백두산전설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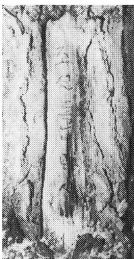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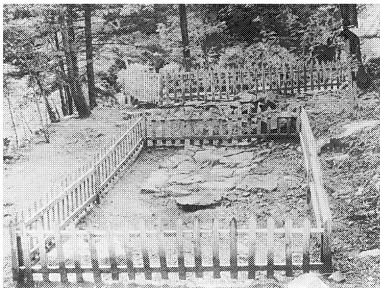
4

보천보전투에서 녹아난 경찰관주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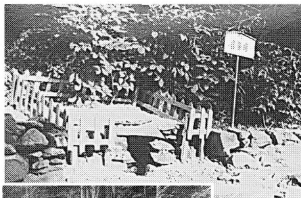
《태풍이 지나간뒤의 보천보》

보천보전투후 놈들은 그 소식을 대서특필한 《동아일보》를 모두 불태워버렸으나 불티들이 모두 신문이 되여 날아내렸다는 통쾌한 전설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전투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장수들로 자라난 이들은 가는곳마다에서 일제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조선독립만세

신평군의 수림속에 1940년초 일제군용비행기가 《정체모를 인원들》의 사격에 의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일대에서 발견된 구호문헌들과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이 리용하던 밀영자리들은 《정체모를 인원들》이 누구였던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일제놈들은 조선의 기를 눌러버린다면서 룡바위의 두뿔을 철퇴로 쳐서 꺾어버렸다. 그때 룡바위가 뢰성벽력같은 울부짖음소리를 내지르며 붉은 피를 내뿜었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는 황해북도 토산군 룡암리의 룡바위

옛날 선녀들이 내려와서 산천경개를 즐겼다는 토산군 선녀동에서는 많은 밀영자리들과 구호문헌들이 발굴되였으니 묻지 마시라, 한 농민에게 덕을 베푼 두 천사가 누구들이였는가를.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양덕의 한 음식점에 들리시여 국수를 들고 가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왜놈들이 총출동했으나 그이께서는 벌써 하늘중천 구름을 타고 날아가고계시였다는 전설은 북대봉의 구호문헌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차　　례

《위인칭송무지경》

《위인칭송무지경》이라는 말은 위인을 칭송하는 마음에는 국경이나 민족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인간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명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법이며 또 그만큼 넓은 범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기마련이다.

이런 리치로 볼 때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영웅중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명성과 영향력은 한 나라, 한 대륙을 벗어나 온 세상, 전인류적인것이였으니 그이를 우러러 흠모하고 존경하며 높이 칭송하는 마음에는 어디에도 지경을 그을수 없다.

하여 《위인칭송무지경》전설도 태여나서 력사와 더불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1940년대를 가까이 하고있던 때였다고 한다.

황해도의 평산땅(당시) 어느 소학교에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학부형들까지도 경악실색케 하는 뜻밖의 사건이 생겼다.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경찰들이 교실에 뛰여들어 일본인력사교원 구마무라 히데오를 체포했던것이다.

놀라운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벌둥지를 쑤셔놓은듯이 술렁대던 학교와 마을이 조용해지기도전에 학교운동장에서는 바로 이 학교에서 체포해간 구마무라 히데오교원에 대한 공개재판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자기들을 가르치던 교원을 재판한다는 말을 듣고 학생들이 떼를 지어 모여왔고 학부형들도 구름처럼 모여왔으며 린근의 여러 학교들에서 교원들이 밀려왔다.

운동장이 넘쳐나게 모여와서 진정을 못하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눈치는 한결같이 도대체 일본사람인 력사선생이 무엇때문에 일본경찰에 체포되였으며 무슨 죄로 일본법의 재판을 받게 되였는지 모르겠다는 기색이였다.

교사의 현관을 등지고 림시로 꾸린 재판석에 법관들이 나앉고 손목에 수갑을 찬 교원이 경찰들에게 끌려나왔다.

사람들의 눈길은 일시에 교원에게로 쏠렸다.

재판정에 끌려나온 자기네 선생의 모습을 보는 학생들은 무엇이라 이름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구마무라 히데오는 비록 일본사람이기는 하지만 마음씨 곱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성실한 교육자였다.

그는 일본 혼슈지방의 가난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때문에 남들처럼 마음껏 배울수가 없었다. 끝없는 향학열에 불타던 히데오의 넋속에는 어느덧 배울래야 배울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자라났으며 기어이 교원이 되여 자기처럼 배우고싶어도 배울수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리라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리하여 입술을 깨물면서 고학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했으

나 일본땅에서는 소학교교원자리 하나도 차례지지 않았다.

히데오는 제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가졌다 해도 실현될수 없는 세상을 저주하면서 군대에 징집되여 만주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친구인 호리모도가 이끄는 《토벌》대에 복무하였다.

쓰디쓴 참패의 수치만을 받아안으면서 몇해동안 군대에 복무한 히데오는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상을 실생활을 통해 깊이 알게 되였다.

일본 황군이 허장성세하면서 승산없는 싸움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은 히데오는 어깨에 부상을 당한것을 구실로 제대되였다.

군복을 벗고보니 또다시 교원이 되고싶은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조선으로 나와 평산땅에서 교편을 잡았던것이다.

그는 교원은 아이들에게 진리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있었다.

때문에 허위와 날조로 가득찬 일본교과서들을 제쳐놓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는것으로 시간을 채울 때가 드문하였다.

방학때면 학생들을 데리고 태백산성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멸악산에 올라 산천경개를 구경시키기도 하고 글짓기를 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산정에 올라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군하였다.

《너희들은 조선사람인만큼 조선을 사랑해야 한다. 나도 내 나라인 일본을 몹시 사랑한다. 제 나라, 제 고향을 사랑하는것은 어느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나 응당한것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때 일제는 1930년대말부터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창씨개명》을 법령으로 내리먹여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요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선말을 하면 벌을 세우고 장마당이나 거리에 흰옷을 입고나가면 먹물총을 쏘아서 까맣게 만드는 등 조선사람의 얼을 깡그리 빼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이런 때에 그것도 일본사람인 그가 조선학생들에게 제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때문에 처음 학생들은 의혹에 찬 눈길로 선생을 바라보며 속을 주지 않고 그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학생들은 히데오선생을 깊이 알게 되고 따르게 되였다.

학생들과 마음이 통하게 되자 히데오선생은 그들에게 더 자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교장을 비롯한 악질교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이따금씩 교실문밖 복도에 학생 하나를 내보내여 망을 보게 하고는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군하였다.

어느날이였다. 히데오선생은 교실에 들어서더니 교과서도 펼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였다.

《누구 하나 밖에 나가서 망을 좀 보거라.》

이것은 곧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신호였다. 복도에 나가 망을 보게 된 아이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을수 없

게 된것이 아쉬워서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였다. 그러나 순번을 정해놓았기때문에 차례가 되면 별수없이 나가서 망을 보아야 했다.

히데오선생은 학생들을 찬찬히 둘러보고나서 이렇게 이야기꼭지를 떼였다.

《학생들! 나는 일본사람이지만 일본군대가 **김일성**장군님 유격대를 이길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는것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장군님은 축지법도 쓰시고 변신술, 둔갑술, 승천입지… 별별 술법에 능하실뿐아니라 천문지리에도 환하시여 천리밖에 앉아서도 일본군대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아신다.

장군님의 뜻은 하늘에 닿았고 장군님의 도량은 천하를 안으실만하고 장군님의 지략과 예지는 비범무쌍하여 감히 견줄만한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늘같은 덕망과 천리혜안의 예지, 산악같은 담력과 무쇠같은 의지를 한몸에 지니시고 광복위업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니 온 세상이 장군님을 우러러 칭송하고 따르며 하늘처럼 믿고있다.

이런 위인을 모시고있는 항일유격대는 필승불패이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친구가 〈토벌〉대장으로 있는 부대에 복무하면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하겠다.》

히데오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 이야기인즉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어느날 호리모도《토벌》대장은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젊고 혈기왕성하고 야심만만했던 호리모도는

《혁혁한 군공》을 꿈꾸면서 곧 부대를 출동시켰다. 히데오도 함께 출전하였다.

《여보게 선비, 임자는 이번 출전에서 싸울 생각은 말구 전투상황이나 잘 보아두었다가 신문기사나 멋들어지게 하나 써주게.》

호리모도는 흰소리까지 쳤다.

그 덕에 히데오는 호리모도결에 따라다니면서 전투상황을 자세히 볼수 있었다.

호리모도는 일단 공산군을 발견하면 진드기처럼 떨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추격하는 전술이라 하여 《다니전술》(진드기전술)이라고 하는것을 제일 좋은 전법으로 생각하고있는터여서 언제나 장거리추격전을 시도하군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다녀야 유격대를 따라잡을수가 없었다. 눈앞에 바라보이는 유격대의 긴 행렬은 마치도 놀리기라도 하는듯이 늘 그만한 거리에서 굽이쳐가고있었다. 이쪽에서 행군속도를 높이면 그쪽에서도 행군속도를 높이고 이쪽에서 행군속도를 늦추면 유격대쪽에서도 행군속도를 늦추었으며 《토벌》대가 쉬면 유격대쪽에서도 쉬였다. 그리고 이쪽에서 출발하면 그쪽에서도 출발하였다.

약이 머리끝까지 오른 호리모도는 미칠 지경이 되여 《토벌》사령부에 련락을 띄웠다. 다른 부대를 동원해서 유격대의 앞을 막아달라는것이였다.

얼마 안있어 다른 한 부대가 유격대의 앞을 막았다. 그랬더니 이번엔 유격대의 대렬이 눈깜빡할사이에 어데론가 사라지고말았다. 눈이 휘둥그래져서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어느새 자기네의 뒤쪽 반대방향에서 유격대대렬이 흘러가고있

었다.

호리모도는 다른 《토벌》대를 동원하여 유격대를 포위하자고 사령부에 또 제기하였다.

사령부에서는 또 그의 제기를 들어주었다. 동서남북에서 《토벌》대들이 유격대를 포위하고 한치한치 조여들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이 까마귀떼처럼 날아돌며 폭탄을 떨구고 기판총을 쏘았다.

《이번에야 갈데 없지.》

호리모도는 산마루에서 망원경으로 포위환속에 든 유격대의 행렬을 살피며 호언장담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포위환은 점점 좁아졌다. 유격대의 대렬은 동그라미가운데에 놓여있는 점처럼 그 자리에 까딱 않고있었다.

의기양양해진 호리모도는 산마루에서 계속 망원경으로 감시를 하면서 포위환을 더욱 조이라고 지시를 했다. 포위환은 점점 좁아졌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었다.

(아마 모든 가능성을 잃자 결사전을 각오했거나 아주 락망해버린 모양이군.)

호리모도가 이렇게 제나름의 판단을 내릴 때였다. 뜻밖에도 유격대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너무도 놀랍고 리해하기 힘든 일이여서 호리모도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유격대도 사람일진대 어찌 저럴수가 있는가?)

절망에 빠졌다면 비관의 빛이라도 보일게고 결사전을 각오했다면 비장한 기색이라도 있을것이고 모든것을 운명에 맡기고 생의 마지막순간을 기다린다면 통탄의 한숨이라도 쉬련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 정말 모를 일이였다.

아무리 정황이 위급하고 생사의 갈림길이 눈앞에 있어도 그저 배포유하고 자신만만하며 태연할뿐이다.

어디에서 저런 배짱이 생겼을가?

《투항하라!》, 《투항하라!》

사방에서 소리치고 하늘의 비행기에서도 소리칠 때였다.

일진광풍이 휘익 불어치며 눈가루를 뽀얗게 휘말아올리더니 유격대원들은 눈앞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호리모도는 더 말할것도 없고 포위망을 좁히며 아득바득 다가들던 졸병놈들모두가 눈이 퀭해지고말았다.

《아! <승천입지> 한다더니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잦았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니 이게 웬일인가!

푸른 하늘 구름장사이로 유격대행렬이 굽이쳐가고있는것이 보였다.

《아, 유격대가 승천을 했구나!》

호리모도가 소리치자 졸병놈들도 고개를 잔뜩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며 까마귀 곯듯하였다.

《유격대가 하늘에 올랐구나!》

《항공대를 불러대라!》

《야, 이 자식아, 그런 수작 하지 말아. 저기서 내리쏘면 우린 멸살을 당한다, 멸살을…》

졸병놈 하나가 겁에 질려 소리를 치자 왜놈들은 대번에 벙어리가 되여 쥐구멍을 찾았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총알소나기가 쏟아질것만 같아서 사지가 굳어졌던것이다.

호리모도는 더는 어쩌지 못하고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방에서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총알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호리모도를 따라다니며 전투과정을 상세히 보고 특종인기기사를 써서 세상을 들썩하게 해보려던 히데오는 어깨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호리모도가 곁에 앉아있었다.

어찌나 지치고 맥이 빠졌던지 파김치처럼 되여버린 두사람은 네발걸음을 하며 겨우 병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군법회의가 호리모도를 기다리고있었다.

《토벌》사령관놈은 노발대발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호리모도의 목을 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어데선가 편지 한장이 날아와서 《토벌》사령관앞에 떨어졌다.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토벌〉대장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당신들이 유격대의 행처를 찾아 너무도 고생하며 헤매기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어디 한번 유격대를 실컷 보라고 당신네 군사들의 눈과 망원경에 약간의 조화를 부렸을뿐이다. 백두산대장수》

사령관놈은 놀라서 호리모도를 비롯한 《토벌》대장들의 망원경을 가져다가 눈에 대고 내다보았다. 렌즈안에 점선같은 《유격대행렬》이 들어있어서 눈에 대기만하면 곧 유격대행렬이 보이군하였다.

《토벌》에 동원되였다가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들이 눈만 뜨면 유격대가 보인다고 아

우성을 친다기에 그들의 눈을 검진해보니 꼭같은 현상이 발견되였다.

《참으로 **김일성**장군의 술법은 신묘하기 그지없구나!》

《토벌》사령관은 그만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

히데오선생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쩐단말인가! 밖에 나가 망을 보던 아이가 살그머니 교실에 들어와서 이야기에 취해있는사이에 악질적인 훈육주임놈이 도적고양이처럼 다가와서 모든것을 엿들었던것이다.

그리하여 히데오는 체포되였고 아이들에게 《불온사상》을 선전했다는 《죄》로 재판을 받게 되였던것이다.

《당신은 <대일본제국>의 국민이며 교육자로서 어떻게 되여 반도학생들에게 **김일성**장군을 격찬하는 선동을 하였는가?》

재판관이 히데오에게 엄하게 따졌다.

《선동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뿐이요. 교원은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의무가 있소.》

히데오는 당당하게 말하였다.

《닥쳐! <대일본제국>의 야마도민족이라면 응당 천황폐하와 제국에 충실해야지 제국이 가장 위험시하는 **김일성**장군을 숭상선전하는가?》

재판관은 책상을 탕 치며 불맞은 승냥이처럼 날뛰였다.

히데오선생은 그러거나말거나 목을 외로 돌린채 멀리 북쪽 어데인가를 바라보고있었다.

재판관은 히데오선생의 그 태도에 더욱 약이 올라 미친듯이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네놈이 야마도민족이 맞기는 맞는가? 당장 네놈의 목을 잘라서 네놈의 몸뚱이에도 야마도민족의 피가 흐르

고있는지 내눈으로 볼테다.》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분명 일본사람이요. 우리 선조들은 혼슈지방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친척들이 살고있소.》

《그렇다면 무슨 도깨비가 들어서 그따위 선전인가?》

재판관은 잡아먹기라도 할듯 으르렁거리며 펄펄 뛰였다. 그러나 히데오는 여전히 태연하였다. 그저 법관들이 노는 꼴이 가소로운듯 입가에 웃음을 띄고있을뿐이였다. 그러다가 재판관이 제풀에 맥이 빠져서 잠시 입을 다물자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법관나리. 당신은 나더러 일본인으로서 어찌 조선의 **김일성**장군을 칭송하고 선전하였느냐고 따지고들면서 범죄시하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요. 어째서 당신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천황을 받들라고 강요하면서도 일본사람이 조선의 **김일성**장군을 존경흠모하는것을 그렇게도 엄중시하면서 한사코 막으려 하는거요? 위인을 흠모하고 따르는 마음은 강권으로 내려먹이거나 법으로 다스려서 생기는게 아니요. 걸출한 인물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그의 높은 뜻에 공감하며 민족앞에 쌓아올린 업적에 감동하면 스스로 존경하고 스스로 따르며 스스로 충정을 바치는것이요.》

《닥쳐랏! 네놈은 매혹이 아니라 변절했다. 스스로의 충정이 아니라 미쳐버렸다.》

재판관은 마치도 전간환자가 발작을 일으킨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허리를 꺾었다. 너무도 흥분한탓에 심장발작을 일으킨 모양이다.

갑자기 재판정은 뒤죽박죽이 되였다.

법관들이 모두 환자를 이끌고 황황히 나가버리자 히데오는 군중을 향하여 불을 토하듯 웨쳤다.

《여러분! 학생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되는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종은 크면클수록 그 소리도 크고 멀리 울려가는 법이며 등불은 크고 밝으면밝을수록 그 빛은 더 넓고 더 멀리까지 비치기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의 지경을 넘어 멀리까지 퍼지는 그 종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죄가 되며 한집안의 뜨락을 벗어나 누리에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았다고 하여 법률에 저촉되겠습니까?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입니다. 장군님의 명성은 온 세상을 들었다놓고있습니다. 천출위인을 우러르는 마음에야 어찌 국경이 있을수 있으며 민족이 따로 있을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을 우러러 칭송하는데도 나라가 따로 있고 민족이 따로 있습니까? 태양과도 같은 전인류적인 위인, 전세계적인 위인은 전세계적인 존경과 흠모, 전인류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기마련입니다.

김일성장군님은 태양입니다. 온 누리를 밝히는 광명이며 세상만물에 생명을 주고 뜨거운 열을 주는 태양을 온 우주가 우러르고 따르며 받드는것은 천만번 지당하고 자연스러운것입니다.》

히데오선생은 어느새 격해져서 차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언제 준비해두었댔는지 품속에서 삐라뭉치를 꺼내여 사람들의 머리우에 뿌렸다.

삐라는 사람들의 머리우에 함박눈처럼 날아내렸다. 거기에

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위인칭송무지경 천출위인 **김일성**장군》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삐라를 쥐고 설레이는사이에 경관놈들이 뛰여나왔다. 그러나 히데오선생은 간곳이 없고 재판관들이 나앉았던 책상우에는 큼직한 종이에 쓴 글발이 놓여있었다.

《위인칭송무지경》

큼직큼직하게 붓으로 쓴 글발은 책상에서 뗄래야 뗄수가 없었다.

지붕에 날아내린 삐라들과 담벽에 붙은 삐라들도 뗄래야 뗄수가 없었고 지울래야 지울수도 없었다.

바람에 날려간 삐라가 멸악산의 어느 바위벼랑에 붙었는데 《위인칭송무지경 천출위인 **김일성**장군》이라고 쓴 글발이 바위에 아주 새겨졌다고도 한다.

울울창창한 밀림속에도 삐라들이 날아내렸는데 아름드리나무들에도 그런 글발들이 새겨졌다고 한다.

일본사람들까지 **김일성**장군님을 이렇듯 칭송하고 존경하여마지 않았다는 이런 전설이 널리 퍼진것은 바로 우리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이 이 세상 그 어느 위인에게도 비길수 없으리만큼 출중무비하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천출위인접견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민항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신 1940년대전반기의 력사적시기를 바탕으로 한 혁명전설들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은 뜻밖에 폭탄과도 같은 선언문을 받았다.

그 선언문인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된 연길일대의 조선인청년학생들이 보내온것이였다.

1941년말에 반일학생조직을 결성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힘차게 벌려오던 그들은 자기들의 조직결성 1돐에 즈음하여 대담하게도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조선총독부에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의지와 반일투쟁기세를 표명하는 《선언문》을 보내기까지 하였던것이다.

그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다나까총감에게

작년 12월 26일 즉 오늘 우리 애국단체가 조직된 때로부터

바로 1주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때문에 의기충천하고 의분이 절정에 도달하였으므로…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선 언 문

1. 우리들은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영예로 생각하며 그의 책임을 완수할것이다.

2. 우리들은 피와 땀의 최후 한방울까지 민족의 영예를 위해 바칠것을 선언한다.

3. 때문에 당국이 우리들, 3천만 민중이 요구하는것을 듣지 않는한 결사적인 투쟁을 할것을 선언한다.

4. 우리들은 동포를 위해서만 살고있는것이다. 즉 조선내의 수다한 투사와 일치단결하여 목적달성에로 돌진할것이다.

… …

이 선언문을 받아본 경무총감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펄펄 뛰였다.

리성을 잃고 날뛰던 경무총감은 간도지구《토벌》사령관 후루가와소장을 전화로 찾아서 한참이나 죽일놈 살릴놈 욕사발을 퍼부었다.

실은 총감이 펄펄 뛸만도 하였다.

《대일본제국》이 하와이에 있는 미군기지를 불의에 공격하고 《태평양전쟁》이라는걸 일으킨지 꼭 18일째 되는 날에 반일지하조직을 무었다는 그 자체가 스쳐버릴 일이 아니지만 《무적황군》이 파죽지세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을 모조리 타고앉았고 멀리 뉴질랜드와

오스트랄리아에까지 손을 뻗치고있어서 온 세상이 그 위세에 부들부들 떨고있는판인데 감히 어데라고 《강대무쌍》한 제국의 코앞에 주먹을 내흔들며 삿대질이란말인가?

더구나 그것도 젖비린내가 몰몰 나는 학생들과 풋내기 젊은놈들한테 이런 홀대를 당하다니…

총감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선전포고를 해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벌써 나라를 빼앗긴지도 30년이 넘는데다가 남의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는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도담하고 당돌무쌍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수 있단말인가?

믿는바가 있어야 대담성도 나오는 법이고 용감성도 발휘되는것이며 굽힐줄 모르는 지조와 절개도 생기는 법이다.

그런데 무얼 믿고 의기충천하다는것이며 의분이 절정에 도달했다는것인가. 혹시 《강약이 부동》이라는 말의 뜻을 리해하지 못해서나 아닌가.

경무총감은 생각하면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울화가 치밀어서 후루가와를 한참이나 꾸짖었다.

그런데 후루가와는 후루가와대로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 겁이 났다.

《당신의 관할지역에서 이따위 선언문이 총독부를 향해 날아왔으니 그래 대본영의 군법회의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것 같은가?》

총감은 이렇게 서리발같은 추궁을 하였다. 이것은 벌써 위협이였다.

후루가와의 눈앞에는 얼마전에 요네하리중장을 비롯한 네명의 고급장교들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대본영의 군법회의에

서 사형선고를 받고 배를 가르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생각만해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관동군사령관의 욕설이 덮씌워졌다. 매맞은 상처에 덧매질이 시작된것이다.

《여보, 당신은 뭘하고있는 사람이요? 한가하게 약담배나 빨고있으라고 당신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줄 아는가? 혹시 군법회의앞에서 유서를 써놓고 배를 가를 차비를 하고있는게 아니요?》

이것 역시 위협이였다.

후루가와는 온몸이 얼어들어서 대답도 변변히 못했다.

교수대의 올가미가 어데인가 가까운곳에서 흔들거리고있는것만 같아 가슴이 얼어들었다.

그는 교수대의 신세를 면하자면 오직 생사결단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한 청년학생지하조직을 들추어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발을 사려물었다.

《뿌리가 어데 있는지 알려면 땅속을 파보아야 한다.》

후루가와는 연길시내에 대한 수색작전을 제가 직접 지휘하였다.

그러나 두달가까이 복닥소동을 일으킨 수색작전은 몇명의 술주정뱅이들과 아편장사군들을 체포하는것으로 끝나고말았다.

그러나 그가 더욱 똑똑히 알게 된것은 연길시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김일성**장군님을 하느님처럼 믿고있으며 끝없이 존경하고있다는 사실이였다.

따라서 총독부에 선언문을 보낸것은 이런 바탕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 확실하였다.

후루가와는 한편 놀랍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하였다.

김일성장군님과 잇닿아있는 《사건》이라면 너무나도 범접하기 어려웠기때문이였다.

(《신출귀몰》하고 《승천입지》하기도 하며 축지법을 써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는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은 과연 어느만큼 뛰여나고 어느만큼 위대한 인걸일가?)

후루가와는 은연중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서 제눈으로 알아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후루가와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어느날 새벽 유격대가 성시를 습격해왔는데 수비대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고말았다.

급해맞은 후루가와는 허름한 로동자옷을 바꾸어입고 도망치다가 한곳에 서있는 화물자동차에 뛰여올라 발동을 걸었다. 다행히도 제꺽 발동이 걸렸다.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전속으로 몰아가는 후루가와는 졸병시절에 자동차운전법을 익혀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만 유격대의 방차대에 걸렸던것이다.

후루가와는 오리밸같이 꼬이기만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차를 세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기름때 묻은 로동복이 그를 살려주었다.

유격대원들은 그의 옷차림새를 보고는 옷에 기름칠을 하며 자동차를 모는 진짜 운전사로 알았는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수고스러운대로 우리를 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성시

를 치고 왜놈들의 물건을 좀 빼앗았는데 목적지까지 실어가야겠기에 그럽니다.》

유격대원들이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

이 순간 후루가와는 생명의 위협을 면했다는 기쁨과 함께 **김일성**장군유격대에 직접 들어가볼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혹시 행운이 차례지면 **김일성**장군을 직접 내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지.)

후루가와는 은근한 기대를 가졌다.

성시로 되돌아온 후루가와는 로획물자를 싣고 유격대원들이 안내하는대로 자동차를 몰아갔다.

한 유격대원이 그에게 좀 쉬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았다. 놀랍게도 운전기술이 매우 높았다.

(아마 입대전에 운전사노릇을 한 모양이구나.)

후루가와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유격대원은 어느새 그 속심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입대전에는 운전사노릇을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누구나 다 자동차를 몰줄 압니다.》

《누구나 다?!》

후루가와는 놀라운 눈으로 유격대원을 바라보았다. 믿을수 없다는 눈치였다.

그런데 이때 적재함에 타고있던 유격대원 하나가 운전칸창문에 머리를 숙이고 큰소리로 사기가 나서 말했다.

《그만큼 달렸으면 이젠 내가 몰아보자구.》

그리하여 자동차는 잠시 멈춰서고 운전교대가 진행되였다.

주행도중에 이런 교대가 여러번 진행되였는데 그때마다 운전대를 잡은 유격대원들은 자동차를 기가 막히게 몰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후루가와는 유격대원들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고 시종 친절히 대해주는바람에 마음의 긴장도 얼마간 풀리고 대담성도 생겨서 **김일성**장군이야기를 비쳐보았다.

《우리 사령관동지말입니까? 이제 곧 만나뵙게 될겝니다.》

유격대원은 스스럼없이 대답하였다.

후루가와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상을 직접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각일각 다가오고있는것이였다.

자동차는 울퉁불퉁하고 비좁은 길도 나는듯이 달렸다. 유격대원들은 어떻게 차를 모는지 아무리 길이 험해도 별로 들추지도 않았고 속도도 늦추지 않았다.

후루가와는 자동차가 도대체 어데로 가는것인지 궁금하여 창밖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그저 량쪽에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사이의 골짝길로 내달릴뿐이였다.

운전대를 잡고 앞만 내다보며 자동차를 몰아가는 유격대원을 곁눈질해보던 후루가와는 총독부가 발간하는 잡지 《고등의사월보》 51호에 실린 글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김일성**은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고있는 지사이고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절대한 세력을 가지고있다. 더욱 **김일성**은 비상히 신체가 완전경철할뿐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역시 우수

한자들이다.》

실로 명장을 알려거든 그 부하들을 보라 했고 그 선생을 알려거든 제자들을 보라 했은즉 유격대원들이 산에서 싸우면서도 자동차를 귀신같이 몰아가니 그 령수의 뛰여남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후루가와는 **김일성**장군을 어서 빨리 만나뵙고싶었다. 지금 그는 항일유격대를 《토벌》해야 할 연길지구사령관이라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있었다.

꼬박 사흘낮 사흘밤을 달린 자동차는 《문바위》라고 부르는 성문같이 생긴 바위사이로 빠져서 그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후루가와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은 환각에 휩싸이고 말았다.

아득히 펼쳐진 들판의 둘레에는 깎아세운듯한 바위벼랑들이 마치도 병풍을 둘러친듯 빙 둘러서있어서 커다란 성시를 방불케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남향받이언덕에는 규모있게 꾸린 병실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헤아릴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맹렬히 훈련을 하고있었다.

(여기가 어데일가?)

군용지도와 함께 수십년을 살아온 후루가와였지만 세상에 이런곳이 있는줄은 아직 몰랐다.

그는 그저 넋을 잃고 별세상을 바라보았다.

온 들판을 환히 내려다볼수 있는 언덕우에서 대장인듯한 사람이 훈련을 지휘하고있었다.

자그마한 붉은기를 손에 들고 호각을 불며 신호를 하자 어디서 생겨났는지 굴뚝같은 대포들이 순식간에 나타나더니 유

격대원들이 나는듯이 그리로 달려가 장탄을 하고 조준을 한 다음 꽝꽝 포탄을 날렸다.

또 대장인듯한 그 사람이 호각을 불며 신호를 하자 신기하게도 아득히 펼쳐진 들판이 사품쳐흐르는 강으로 변하고 유격대원들이 그곳에서 도하훈련을 하는것이였다.

이번에는 붉은기신호와 함께 드넓은 비행장이 나타났다. 곧 훌륭한 비행기들이 날새들처럼 하늘공중으로 떠올랐고 이어 락하산들이 하늘을 덮으며 날아내렸다.

(**김일성**장군유격대는 모든 부문에 능통한 만능의 군사들이구나!)

후루가와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언덕우에 서서 붉은기를 흔들며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이 **김일성**장군님이실거라고 짐작하였다.

그분이 아니고서야 그렇듯 신비한 조화를 능사로 부릴수 있겠는가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저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신가요?》

후루가와는 제 짐작이 틀림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곳으로 데리고온 유격대원들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유격대원들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듯 한참이나 웃어대더니 《저 동무는 그저 평범한 대원입니다. 오늘 훈련지휘당번을 서고있을뿐입니다.》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

후루가와는 입을 딱 벌린채 다물지를 못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부하들에게도 삼백예순다섯가지의 도술을 배워주셨다더니 사실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유격대원이 말했다.

《갑시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는데 당신을 만나주시겠답니다.》

《예?!》

후루가와의 심장은 또다시 후두둑 뛰였다. 자기가 바라던 행운이 너무도 빨리 다가오는바람에 정신이 멍해지기까지 하였다.

유격대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령부에 들어선 후루가와는 돌부처처럼 굳어지고말았다.

방안에는 동서방의 유명한 기자들이 가득 차있었는데 용모가 남달리 준수하고 안광이 빛나는 젊은분이 자기를 마중하는것이였다.

후루가와는 그분의 그 밝은 눈빛이 자기의 본색을 환히 꿰뚫어보는것만 같아서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사실 이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자가 간도지구《토벌》사령관 후루가와라는것을 이미 알고계시였다. 그러나 일부러 모르는척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였다.

《어서 오시오. 당신도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는것이 유익할것 같아서 데려오라고 했소. 여기에 모인 여러 나라 기자선생들이 세계정세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관망하고있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후루가와에게 자리를 권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기자들과의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서유럽의 한 기자가 먼저 기회를 차지했다.

《제가 알기에는 장군님께서는 유격전의 능수이시고 또 유격전으로 성공탑을 높이 쌓아올리신분으로서 유격전의 우월

성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계시는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 륙해공군을 포괄하는 현대전의 전법들을 전면적으로 익히고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리해해야 합니까? 요즘 일부 군사평론가들은 〈**김일성**장군은 지난날 유격전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던 나머지 열하에로 진출하여 장춘을 포위하라는 국제당의 지시에까지도 불응하였는데 최근에 와서 자기스스로 륙해공군을 포괄하는 현대전법을 익히고있다. 아마도 소규모적이고 산발적인 유격전으로써는 일본의 대군을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리해해도 되겠는가요?》

서방기자의 질문은 몹시 까다로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것인가?)

기자들도 후루가와도 귀를 강구고 대답을 기다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당황해하는 빛이 없이 이렇게 대답하시였다.

《기자선생, 어느 한 농군이 자기 집에서는 밭갈이가 더 급하기때문에 소를 끌고 밭으로 나갔는데 누군가가 논을 갈러 나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뿌리친것이 〈독선〉으로 되겠습니까? 더구나 밭갈이는 끝나고 이번에는 논갈이차례가 되여 논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난날의 실책을 늦게나마 깨달은것으로 되겠습니까? 모든 일은 어디까지나 자기 주견을 가지고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결심에 따라 해나가야 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자기 가락에 맞게 부르고 춤을 추어도 제 장단에 맞추어 추어야지 남의 가락, 남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는 머저리가 되고 일을 망칩니다.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조국해방?!》

기자들은 너무도 놀라서 저희들끼리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리해할수 없다는듯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일본은 중국령토의 대부분을 차지했을뿐아니라 동남아시아의 10여개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자국 령토의 열배도 넘는 방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실로 일본은 지금 〈강성번영〉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조선의 독립은 불리해지고 묘연해졌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아, 알만합니다, 그 말의 뜻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였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조선의 해방에 대하여 론하는것은 현실착오라 그 말인데 기자선생들은 문제고찰을 잘하여야 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선각자들이며 사회여론의 대변자들인 기자들은 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옳게 가려볼줄 아는 예리한 눈과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적아반비례〉의 견지에서 볼 때 일본은 〈최전성기〉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몰락기에 처하였고 패망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본이 동양천지를 다 타고 앉았기때문에 그 힘이 비할바없이 강화된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본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는것은 그만큼 일본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선은 그만큼 넓어지고 방어밀도는 급격히 약해졌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이와는 반대로 반일세력은 세계적규모에서 급격히 장성강화되여 련합된 힘으로 사면팔방에서 일제에게 드세

찬 공격을 들이대고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일본은 기껏해서 2년 내지 3년안으로 망할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있기때문에 대사변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입니다.》

기자들은 가슴이 벅차도록 감동해서 일제히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웨쳤다.

《천출위인 만세!》, 《현세의 예언왕에게 영광을!》

폭풍같이 울리는 환호성에 휩싸여 저도모르게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웨치던 후루가와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가슴이 섬찍해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100년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신다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일본은 기껏해야 2～3년안으로 망한다고 예언하시였으니 일본이 망할것은 틀림이 없을것인즉 그렇게 되는 날에는 유격대《토벌》에 날뛰던 내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후루가와는 기자들이 웨치던 《현세의 예언왕에게 영광을!》하던 소리가 자기에게 내리는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장군님의 분석과 판단은 언제나 편차를 몰랐고 장군님의 예언은 백발백중, 천발천중이였다.

그런즉 그 예언은 《대일본제국》의 멸망선고가 아니겠는가.

《장군님께 또 한가지 묻고싶은것이 있는데 우리 기자들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며 미친듯이 타번지고있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망에 대하여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관망하고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에 넘치던 흥분이 얼마쯤 가라앉자 기자들이 또 물었다.

《일본이 망한다는건 곧 그의 동맹국들도 망한다는것을 의

미합니다. 제2차세계대전은 도이췰란드, 일본, 이딸리아의 패망으로 끝날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기자들을 둘러보시였다. 더 물을것이 있으면 어서 물어보라는 기색이였다.

너무도 확신에 찬 대답을 들었기때문에 질문이 더는 없었다. 따라서 기자회견도 이것으로 막을 내렸다.

기자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감동되여 한껏 달아오른 가슴들을 가까스로 누르면서 여러가지 여담들을 나누다가 문득 이런 청을 그이께 드리였다.

《어느때인가 장군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시였다가 여러 수반들과 취재기자들에게 축지법을 보여주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그 좌석에 끼우지 못한 저희들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청을 드리자 장내가 떠나갈듯 박수갈채가 터졌다. 후루가와도 손바닥이 깨져라 박수를 쳤다.

김일성장군님의 빨찌산과 오래동안 맞서싸우면서 지금까지 참패의 고배만을 마셔온 그는 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는것을 직접 볼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난것이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다.

《허허… 땅을 주름잡는거야 뭐가 힘들겠습니까. 새 세상을 앞당겨오는것이 힘든 일이지… 우리는 세월을 주름잡는 〈축세법〉을 빨리 익혀 나라의 해방도 앞당겨오고 인민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도 앞당겨오려고 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이 잠시 멎자 또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이 박수는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에 대한 찬사인 동시에 축지법

을 어서 보여달라는 재촉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별로 자랑할만한 재간은 못되나 여러 기자선생들의 소청이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잠시 장내를 둘러보시더니 후루가와한테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로획물자를 싣고왔던 손님입니다. 자동차로 사흘낮 사흘밤을 줄곧 달려온 이 사람의 귀행길을 축지해봅시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는 후루가와에게로 돌아서시였다.

《당신은 한시바삐 돌아가야겠소. 간도지구사령부에서 사령관이 실종되였다고 소동이 일어났소. 당신네 집에서도 안해와 자식들이 울고불고 야단이요. 자동차의 주인도 차를 찾느라고 뛰여다니고있소.》

《예?!》

후루가와의 온몸은 와들와들 떨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벌써 이미전에 자기의 본색을 환히 알고계셨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간도지구《토벌》사령부에서 사령관이 실종되였다는 소리가 나오자 기자들은 어리둥절해져서 서로 마주보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연길시쪽을 향해 한손을 쭉 뻗치시였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일진광풍이 일더니 연길시가 손에 잡힐듯 가까이에 나타났다.

《야!》 환성이 일어났다.

《후루가와씨, 어서 가보시오. 여기서 보고들은것을 당신

의 상판들에게 다 보고하시오.》

장군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자 후루가와는 절반은 얼혼이 나가서 술취한놈처럼 비칠거리며 자동차에 올랐다.

(천리밖에 있는 연길시를 순간에 눈앞에까지 당겨오시고 시대의 흐름과 력사의 먼 앞날까지도 꿰뚫어보시는 **김일성**장군님!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신통력을 지니신 천출위인을 령수로 모신 조선은 반드시 일본을 패망시키고 국권을 회복할것이며 강성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리라!)

후루가와는 비록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비로소 연길시의 청년학생들이 조선총독부에 선언문을 보낸 담대무쌍의 배짱과 당돌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뜨락이 넓고 식구가 많다고 <큰집>이 아니요, 재산이 많고 집이 화려하다고 <명문대가>가 아니다. 비록 뜨락은 좁고 식구는 적어도 가문의 제일 큰 어른이 사는 집이 <큰집>이요, 재산은 비록 많지 못하고 집도 화려하지 못해도 지체높고 명망높은분이 사는 집이 <명문대가>이니라.》

후루가와의 머리에는 어인 일인지 이 순간 옛 성인들의 이런 가르침이 불쑥 떠올랐다.

이 말의 뜻인즉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하여 위대한 나라가 아니요, 비록 땅덩어리는 크지 않고 인구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위대한 령수를 모신 나라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천지당만지당한 일이라고 후루가와는 생각하였다.

운전대를 잡은 후루가와는 장군님을 다시한번 우러러보았다.

(아, 인간이 지닐수 있는 모든 위대함과 훌륭함을 한몸에 지니신분!)

그는 일본은 벌써 **김일성**장군님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였다.

후루가와가 탄 자동차는 순간에 마주 보이는 연길시에 들어섰다. 기자들은 이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때였다. 지진이라도 인듯 땅이 흔들리면서 연길시가 아득히 먼곳으로 밀려가더니 시야에서 아주 사라져버렸다.

기자들은 그만 넋을 잃은듯 입을 하 벌린채 굳어져있었다.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그들의 온넋은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눈깜짝할사이에 연길시로 돌아온 후루가와는 그후부터 상부의 지시에 못이겨 《토벌》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저 흉내를 냈을뿐이라고 한다.

후루가와는 그후 **김일성**장군님을 만났던 《천출위인접견기》를 자주 이야기하군하였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것으로 끝을 맺군하였다 한다.

《위인을 수위에 모신 인민은 곧 위대한 인민이며 강대한 인민이다. 조선사람들의 대담성과 용감성, 굽힐줄 모르는 신념과 의지는 모두 **김일성**장군님을 굳게 믿는데 그 바탕을 두고있다.》

룡바위골 바위대문

황해북도 토산군 룡암리에 가면 룡바위라고 부르는 큰 바위가 있다.

들판을 향해 뻗어내리던 산줄기가 바닥에 이르러 논판결에서 딱 멎고 그 끝머리에 바위 하나가 하늘을 향해 불끈 솟았는데 이것이 바로 룡바위이다.

높이가 40～50메터나 실히 될듯한 바위의 제일 웃부분은 마치도 두개의 뿔이 돋은 룡대가리같고 그 아래는 잘룩한것이 룡의 목을 방불케 하고 또 그 아래로 번번하고 희끄무레한데는 신통히도 룡의 배허벅같은데 그 한가운데에 직경 2메터가량의 구멍이 뚫려져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룡의 《배꼽》이라고 하였다.

마치도 룡이 아래도리는 땅속에 깊이 감추고 웃도리만 땅우에 불끈 솟구쳐서 거연히 서있는것 같은 이 바위에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전설들이 깃들어있다.

옛날에 이고장 사람들은 봄철에는 이 바위앞에서 한해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고 가물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재난을 물리쳐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곳 경치를 구경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룡의 배꼽을 겨누고 돌을 던지는것으로 앞으로 태여날 자식들을 점

치군하였다.

단방에 명중시켜 배꼽안에 돌을 넣으면 아들이요, 그렇지 못하면 딸이라는것이였다.…

이 룡바위뒤에는 《땡땡굴》이라고 부르는 바위굴이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하였다. 명주실 한꾸리가 다 풀려도 끝이 없더라는 소리도 있고 그 누군가가 이 동굴에 빨래방치를 떨군 일이 있는데 동해바다로 그것이 흘러나왔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당장 알수 있는것은 돌을 던져넣으면 그것이 굴러내려가는 소리가 오래도록 《땡땡땡》 들려서 굴이 퍼그나 깊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는것이다.

굴이름도 땡땡소리를 내며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들린다하여 《땡땡굴》이라고 부르는것이다.

이 굴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다.

이 굴안에는 만권에 달하는 병서가 보관되여있는데 룡바위는 그것을 지키는 파수군이라는것이다.

바위굴안에 보관되여있는 만권병서를 도통하면 삼천삼백가지의 술법을 능사로 쓸수 있어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락엽처럼 쓸어버릴수 있고 나라와 백성들을 그 어떤 재난과 불행에서도 구원할수 있을뿐아니라 무궁번영하는 만민복지의 세상을 꾸릴수도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이 만권병서를 본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것이였다.

그 까닭인즉 《땡땡굴》에는 바위대문이 굳게 닫겨져있는데 누구도 이 대문을 열지 못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 바위대문은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높이 빛내일뿐아니라 천하를 옳바르게 이끌만한 위인이 찾아와야만 열리는데 수천년력사가 흐르는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때인가는 집채같은 바위를 백리밖에까지 내던지는 힘장사가 찾아와서 문고리를 쥐고 힘껏 당겨도 보고 등을 대고 낑낑 떠밀어도 보았지만 바위대문은 꿈쩍도 안했다.

또 어떤 때는 참새한테 굴레를 씌울만큼 꾀가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요리 밀어보고 조리 당겨보았지만 그 역시 끝내 열지를 못하고 물러났다.

(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천하를 옳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절세의 위인은 언제면 나타날가!)

룡바위골사람들은 바위대문을 열고 만권병서를 꺼낼 위인이 나타나기를 일일천추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런 사연을 알아낸 왜놈들은 또 그놈들대로 저들이 먼저 바위대문을 열고 만권병서를 손에 넣으려고 발악을 하였다.

만일 조선에 비범출중한 위인이 나타나서 만권병서를 손에 넣는 날에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왜놈들은 우선 제 나라에서 《뛰여난 인물》이라고 인정되는 작자들을 몰래 데려다가 바위대문을 열어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천황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권병서를 손에 넣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왜놈들은 일본에서 제일 담이 크고 힘이 센 장수 하나를 시켜서 룡바위의 머리를 잘라버리도록 하였다.

체통이 삼백근이나 되고 키가 구척이나 되는 이놈은 두발도 넘는 장검을 비껴들고 룡바위로 기여올라갔다.

룡바위골사람들은 혹시 룡바위의 목이 떨어져나가면 만권병서를 지킨다는 파수병이 없어지게 되고 그 귀중한 병서가 원쑤놈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나 않을가 해서 마음을 조였다.

왜놈장수는 룡바위에 올라서자 장검을 높이 추켜들더니 룡의 목을 겨누고 힘껏 내리쳤다.

순간 번개불이 번쩍 일고 천둥소리가 꽝 꽈르릉 울렸다. 동시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부르르 떨었다.

뽀얗게 어렸던 흙먼지가 천천히 가시여지고 룡바위의 자태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룡바위골사람들은 목없는 룡바위가 눈앞에 나타날것만 같아서 가슴을 조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바람에 흙먼지가 가시여지자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룡바위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다만 왜놈들의 시체가 널려있을뿐이였다.

룡바위를 어째보겠다고 기여올랐던 힘장사놈이나 밑에서 조력을 하던 왜놈들이나 모조리 죽어넘어졌던것이다.

천황은 화가 꼭뒤까지 치밀어서 미친듯이 야단을 쳤다.

《이놈들아, 룡바위에 올라가지 말구 먼데서 대포로 쏘아서 부셔버려라, 대포로…》

그리하여 왜놈들은 구새통같은 대포들을 끌어다가 먼발치에 걸어놓고 룡바위를 겨냥한 다음 일제히 포탄을 날렸다.

《꽝꽝, 꽈르릉》

요란한 포성이 울부짖고 땅이 흔들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포탄들은 왕청같은데로 날아가 꽝꽝 터졌다.

아무리 다시 겨냥을 하고 쏘아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혹시 대포들이 고장이 아닌가 해서 다른곳에 대고 쏘아보았더니 이번에는 어김없이 명중하였다.

그러니 포탄들이 뚱딴지같은데로 날아간것은 모두 룡바위의 조화가 분명하였다.

왜놈들은 대포로도 어쩌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룡바위굴바위대문밑에다 수천근의 화약을 장진하고 폭파하려 하였다.

일본에서 특별히 만든 폭약과 도화선을 가져다 장진을 하고 불을 달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깨비조화인가. 어떻게 된 일인지 폭약이 전혀 튀지를 않았다. 그저 어데선가 아득히 먼곳에서 쿵하고 둔중한 소리가 나며 지진이 이는듯 땅이 흔들릴뿐이였다.

왜놈들은 몇번이나 다시 장진을 하고 불을 달아보았지만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바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에 있는 천황관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쩐 일인지 관저의 땅밑에서 자주 지진이 일면서 집의 기둥뿌리가 마구 흔들리고 지붕이 무너져내릴것같았다.

때없이 집이 무너질듯 흔들리는바람에 잠을 자다가도 소스라쳐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오군하던 천황은 그것이 룡바위골에서 폭약을 터뜨리는 시간과 일치하다는것을 깨닫고는 당장

그 놀음을 걷어치우라고 령을 내렸다.

룡바위골 바위대문을 열지도 깨뜨리지도 못하게 되자 애간장이 요글요글 타들어서 앙앙불락하던 천황은 이번에는 단단히 파수를 서고있다가 바위대문을 여는 위인이 나타나면 그를 없애치우는 동시에 만권병서도 손에 넣도록 하라고 비밀지령을 주었다.

그리하여 왜놈들은 폭파놀음을 그만두고 그대신 수백명의 군사들을 감쪽같이 매복시켜놓고 바위대문을 밤낮으로 지켰다.

룡바위골사람들은 왜놈들의 이런 간계는 감감 모르고 그저 왜놈들이 제김에 맥이 빠져서 물러간것이라고 기뻐하면서 또다시 바위대문을 열 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년이 지나도 그런 위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신 왜놈들은 기가 나서 《보라, 조선에는 바위대문을 열만한 인걸이 없다. 그러니 독립이요, 광복이요 하고 부질없이 떠들지 말고 <대일본제국>에 고분고분 복종하라.》고 지껄였다.

그러면서 룡바위굴을 지키고있던놈들까지 모두 철수해버렸다.

크나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잃은 마을사람들은 그만 커다란 슬픔에 잠겨버렸다.

하늘에는 무거운 먹장구름이 두텁게 뒤덮여 해빛을 가리우고 땅우에는 숨막힐듯한 어둠이 짙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이였다.

뜻밖에도 닭들이 일제히 홰를 치며 울어댔다.

때아니게 밤꾀꼬리가 지저귀고 날도 채 밝지 않은 하늘에

노고지리들이 날아올라 은방울을 굴렸다.

동구밖으로 뻗어나간 길가에는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다투어 피고 산과 들, 마을에는 청신한 기운이 감돌면서 진한 향기가 하늘땅에 가득 흘렀다.

마을사람들은 신비스럽고 이상스러운 뜻밖의 조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들로 나갔다.

그들이 한창 김을 매고있을 때였다.

지나가던 길손인지 아니면 일부러 찾아온 손님인지 딱히는 알수 없었으나 이목구비가 뛰여나게 준수한 젊은 길손이 밭머리에 나타났다.

《수고들 하십니다. 저도 한이랑 매봅시다.》

젊은 길손은 이렇게 말을 하더니 밭머리에 놓여있는 호미를 집어들고 성큼 밭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시원스레 김을 매기 시작하였다.

인차 농군들을 따라잡은 젊은이는 그들과 나란히 김을 매나가면서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모두들 얼굴색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어디 얼굴에 밝은 빛이 떠돌게 됐습니까?》

나이많은 농군 하나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였다.

《허허… 그것때문에 그렇게 실망했단말입니까? 그러지들 말구 우리 함께 가서 바위대문을 열어봅시다.》

젊은 길손은 환하게 웃으며 앞장에 나섰다.

그러자 돌연 하늘에 두텁게 덮였던 먹장구름이 툭툭 터지면서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려 세상천지가 일순에 밝아졌다.

어쩐 일인지 저절로 마음이 끌리고 존경이 가는 젊은 길손을 바라보던 마을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이의 존안에서는 해가 빛나고 별이 반짝이고 따뜻한 봄빛이 아지랑이를 일구며 피여나는듯했기때문이다.

마을사람들은 가슴이 뻐근하게 솟구치는 격정을 안고 그이의 뒤를 따랐다.

호미를 손에 든채 줄레줄레 그 젊은 길손의 뒤를 따르던 마을사람들은 갑자기 룡바위쪽에서 땅이 쿵쿵 울리고 신비로운 음악소리가 울리는것을 똑똑히 들었다.

너무도 놀라와서 걸음을 우뚝 멈춘 그들은 룡바위쪽을 바라보다가 또 한번 놀랐다.

수천수만년동안 꼼짝않고 숨죽은듯이 서있던 룡바위가 움씰움씰 움직이며 길을 척 비켜주는것이였다.

뒤이어 우르릉 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칠색령롱한 채광이 하늘중천으로 뿜어올랐다.

(아, 새벽닭이 일제히 울고 날도 밝기전에 새들이 우짖은 까닭이 이때문이였구나!)

마을사람들은 가슴터질듯한 감격에 휩싸여 젊은 길손을 우러러보았다.

활짝 열린 바위대문으로 굴안을 들여다보니 천만보석이 불꽃처럼 반짝이는 황홀경이 펼쳐졌는데 그 한가운데에 금장식, 은장식을 한 룡두마차가 서있었다.

바로 그 마차우에는 여러개의 금빛궤짝들이 실려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만권병서였다.

《만권병서의 주인께서 오셨으니 어서 가져가십시오!》

뜻밖에도 룡바위가 우뢰와도 같은 목소리로 젊은 길손에게 말하며 허리굽혀 인사까지 하였다.

(아, 저분이 만권병서의 주인이시였구나! 우리 나라를 찾

아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해주실뿐아니라 천하를 옳바르게 이끌어주실분이 이제야 왕림하셨구나!)

마을사람들은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오호홍…》

요란한 말울음소리와 함께 여섯마리의 룡마들이 만권병서들을 실은 마차를 끌고와서 젊은분앞에 멎어섰다.

《어서 룡차에 오르십시오.》

룡바위가 또 우뢰같은 목소리로 삼가 말씀을 올렸다.

젊은분은 마을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룡차에 오르시였다.

(이 나라에는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와 겨레를 구원해줄 절세의 위인이 없는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성인을 보내주셨구나!)

마을사람들은 룡차에 높이 앉으신 젊은분을 우러러보고 또 보았다.

《너무 그러지들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섰기때문에 바위대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라를 찾는 광복위업도 우리모두 힘을 합쳐 함께 이룩해나아갑시다!》

젊은분은 마을사람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황공하오이다. 그저 저희들을 이끌어만 주소이다. 하늘땅 끝까지라도 따르겠나이다!》

마을사람들은 젊은분앞에 부복하고 맹세를 담아 말씀올렸다.

《오호홍…》

말들이 또 한번 울부짖더니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곧 하늘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젊은분은 룡차우에서 손을 저어 인사를 보냈다. 그 모습은 틀림없는 해님이였다.

《조선의 하늘에 해님이 솟았다! 광명천지를 안아올 우리 해님이 솟았다!》

마을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웨치고 또 웨치며 젊은분을 바래드렸다.

그때로부터 백두산쪽에서는 밤에도 하늘을 환히 비치는 세찬 채광이 뿜어올랐는데 그것은 그 젊은분이 등불을 켜놓고 군사들에게 만권병서를 익혀주는 불빛이라는것이였다.

또 얼마를 지나니 백두산쪽에서 번개가 일고 우뢰가 그칠새없이 울었는데 그것은 젊은분이 군사들을 조련시키는 소리로서 창검을 휘두를 때마다 번개가 일고 천군만마가 질풍같이 내달릴 때마다 우뢰가 울렸다는 소문이 퍼졌다.

《지금 우리 나라에 천출위인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백두산에서 군사를 키우고계신다. 그러니 왜놈들세상이 끝장날 날도 멀지 않았다.》

《백두산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왜놈들과의 싸움준비를 하고있는 대장수는 벌써 만권병서를 모조리 독파하고 삼천삼백가지 술법을 능사로 쓰시는데 지금 그 술법을 수천만의 부하들에게 가르치고있다. 이제 그 군사들이 짓쳐나오면 왜놈들은 꼼짝없이 망한다. 바로 그 백두산의 대장수가 **김일성**장군님이시다.》

룡바위골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바위대문을 열고 만권병서를 가져가신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굳게 믿고 천세만세 그이만을 높이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다짐했다.

조선의 하늘님

우리 나라 도처에서 수많이 발굴된 구호문헌들가운데는 다음과 같은것들도 있다.

《**김일성**령수는 조선의 하늘님, 2천만 일심으로 김대장 받들자》

《김대장은 천출명장, 하늘이 낸 장수》

조선의 하늘님, 하늘이 낸 장수!

인류가 아직은 변화무쌍한 자연의 속내를 알수 없었고 그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힘과 광란적인 횡포에 감히 맞설만한 힘이 없었던탓에 《하늘님》과 같은 상상의 신적존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전지전능》과 《대자대비》의 신빙성과 우상을 덧붙여서 이 세상 천지조화와 인간의 길흉화복이 그에 달린듯이 믿게 된 절대만능의 거룩한 존재 《하늘님》!

그런데 어찌하여 인류가 그렇게도 오랜 세월 구세주처럼 숭상하여왔고 또 오늘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느님아버지》로 칭송하며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있는 그 신비만능의 최고존재—《하느님》을 뒤전에 밀어버리고 **김일성**장군님을 《하늘님》으로 숭앙칭송하게 되였는가? 그 까닭을 구태여 물어서 무엇하랴.

《이민위천》, 《민거백승》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만민

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대자대비》를 무색케 했고 일제의 백만대군을 줌안에 넣고 쥐락펴락하시는 천하무비의 지략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천지신명의 예지는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뛰여넘어 세상천지를 경탄케 하였으니 어찌 그이를 《하늘님》으로 우러러 흠모하지 않을수 있으며 나라의 광복성업과 자기의 운명을 통채로 의탁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압록강, 두만강일대와 중국 동북지방일대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을 《조선의 하늘님》으로 높이 칭송하는 전설들이 많이 퍼져서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으니 그중의 하나를 아래에 소개한다.

1930년대말이였다고 한다.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지구에 나오시여 국내진공작전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가고계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던 일제는 범 본놈 창구멍 틀어막듯 도처에 경비진을 치는 한편 압록강, 두만강의 얼음을 까는 놀음까지 벌렸다.

이 놀음은 천황의 시종무관이란자가 조선북부국경일대를 《시찰》한 사건과 때를 같이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경돌파를 무서워한 천황은 자기의 시종무관을 파하여 조선북부국경일대의 경비상태를 3일동안이나 시찰하게 하였다.

천황의 《칙령》을 받은 시종무관은 국경일대를 싸다니면서 실태를 료해한 다음 경비인원들을 모아놓고 천황의 뜻도

전달하고 《하사품》도 내주었다.

천황의 《은총》을 받아안은 놈들은 감지덕지하여 《천황폐하 만세》를 미친듯이 웨쳐댔다. 그리고는 일본도를 추켜들고 그 《은총》에 보답할것을 《맹약》하였다.

일제는 곧 국경연선에 병력을 증강하고 보초소와 포대들을 늘이였으며 순찰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얼어붙은 강을 건너 국내로 스며드는 유격대를 막을수는 없었다.

철조망을 아무리 여러겹 친들 그것으로야 어찌 바람을 막을수 있으며 그물코를 제아무리 좁힌들 새는 물이야 어떻게 막을수 있단말인가.

속이 타들어서 전전긍긍하며 겨우 생각해냈다는것이 바로 백성들을 동원하여 압록강, 두만강의 얼음을 까는 놀음이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칼로 물베기요, 몽둥이로 바람때리기였다.

수백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온종일 얼음을 깨놓으면 밤사이에 강물은 다시 얼어붙고말았다. 하지만 수비대놈들은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데다가 인민들의 고생쯤은 쥐고뿔만큼도 여기지 않았기때문에 얼음까는 놀음을 그치지 않았다.

강 량쪽대안의 인민들이 몽땅 동원되여 장사진을 이루고 도끼로 얼음을 깠다.

하지만 어찌 그 장강의 얼음을 다 깔수 있겠는가.

왜놈들은 골머리를 앓다가 얼음장밑에서 폭약을 터뜨려 얼음을 깨뜨릴 궁리를 하였다.

수비대놈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얼음판에 구멍을 낸 다음 폭약을 일제히 뭉쳐넣어 폭발시켰다. 강물이 발칵 뒤집히고 얼음이 산산이 깨졌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신통한 방법이 못되였다.

깨진 얼음장들은 물우에 떠서 서로 부딪치면서 흔들거리다가 곧 다시 얼어붙고말았기때문이였다.

왜놈들은 약이 올라서 인민들을 내몰아 깨진 얼음장들을 건져내도록 하였다.

수백명의 인민들은 미끄러운 얼음장우를 벌벌 기여다니면서 길다란 장대기로 위태롭게 얼음장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 사람들속에는 우덕근이라는 로인도 있었다.

그는 장대기로 얼음장들을 끄당기다가도 발밑에서 쩡 하고 얼음장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 당장 물속에 빠져들어가는것만 같아서 풀싹 주저앉군하였다. 그때마다 우덕근은 하늘을 우러러 가슴에 십자를 그으면서 《하느님아버지이시여, 굽어보살펴주옵소서.》하고 기도를 드리군하였다.

60이 다 된 몸으로 이런 고역에 끌려나온 그는 죽지 못해 일하였다.

아들이라도 집에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아들은 왜놈들의 짐을 지고 백두산쪽에 가있었다.

《망할놈같으니… 하느님을 노엽히더니 천벌을 받았지, 천벌을 받았어.》

우덕근은 생각만해도 괘씸한듯 아들을 나무랬다. 그러면서도 그가 무사하기를 하느님께 빌었다.

사흘전이였다. 독실한 신자인 우덕근은 온 집안식구들을 례배당으로 들몰아댔다.

그런데 아들 상철이녀석이 시뿌둥해서 일어설념을 안했다.

《빌어먹을… 하느님인지 뭔지 있기나 하는걸 이 야단이야

요? 지금까지 례배당에 찾아다니면서 하느님께 〈복을 줍시사〉 하구 빌었지만 덕을 본게 뭐야요?》

《에끼, 이녀석. 무슨 불손한 망발이냐? 그래도 우리 집이 큰 재난을 당하지 않고 지금만큼 사는것도 하느님덕분인줄이나 알아라.》

《흥, 그래서 두번씩이나 왜놈들의 〈토벌〉에 집을 불태우고 소, 돼지, 닭을 다 빼앗겼겠수다?》

상철이는 심사가 잔뜩 비뚤어져서 대답질이였다.

《이놈아, 하느님이 듣겠다. 당장 수작질을 그만두지 못하겠니?》

우덕근은 하늘에서 하느님이 내려다보기라도 하는듯 겁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는 또 기도를 드렸다.

《대자대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이시여, 제 아들놈이 아직 철이 없고 몽매하여 그런것이오니 부디 용서해주옵소서.》

이때 어데서 큰 남포를 터뜨리는것인지 아니면 지진이라도 일었는지 꾸릉꾸릉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였다.

우덕근은 겁먹은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며 또 빌었다.

《아버진 왜 자꾸 그래요? 하느님한테 빈다구 피쌀 한되박이라도 생긴대요? 하느님이라는건 다 꾸며낸거야요.》

상철은 아버지가 노는양이 보기가 민망스러운듯 퉁을 놓았다.

《뭐가 어찌구 어째? 이놈아, 정말 그렇게 자꾸 하느님을 노엽히는 망발을 하겠느냐? 그러다가는 천벌을 받지 않나 두고봐라.》

우덕근은 애가 타는듯 발을 탕 구르고 주먹을 내흔들었다.

아들녀석은 홀쩍 뛰쳐달아나며 투덜거렸다.

《흥, 천벌은 무슨 천벌… 하느님이 천벌을 내린다는게 사실이면 내손바닥에 장을 지지겠어요.》

바로 이때였다. 밖에서 누군가가 대문을 바스러지게 꽝꽝꽝 두드렸다.

《문열어라.》

거치른 호령소리가 울렸다. 우덕근은 마치도 하느님이 노하여 아들을 잡으러 온듯한 착각이 들어서 온몸이 일시에 녹아내리는듯했다.

그래도 아들녀석은 배심좋게 코방귀질이였다.

《흥, 도대체 어떤 오라질놈이 남의 집 문짝을 이렇게 두드리는거야?》

우상철은 짜증을 내며 대문가로 다가가서 빗장을 벗겼다.

순간 총을 멘 왜놈군대 두놈이 개털모자를 쓴 대가리부터 쑥 들이밀며 들어섰다.

《네놈이 우상철인가?》

왜놈군대가 우상철을 훑겨보며 물었다.

우덕근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이 애비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잡으러 왔단말인가.

그는 또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느님께 빌었다.

《가자. 네놈은 우리 황군의 짐을 지구 백두산으로 가게 됐다. 유격대를 〈토벌〉하러 간다.》

왜놈들은 상철이를 총끝으로 떠밀었다.

《가만 있소. 갈 땐 가더래도 솜옷이나 걸치구 가야 할게 아니요?》

우상철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우덕근은 황황히 뒤따라 들어와서 아들한테 자기의 덧저고리를 입혀주며 지청구를 했다.

《이 녀석아, 하느님을 노엽혔으니 이런 벼락이 떨어지지. 짐을 지구 따라가면 분명 유격대하구 붙을판인데 그 총알소나기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기를 바라겠느냐? 그저 하느님께 비는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니 가면서두 빌구 쉬면서두 빌구 그저 빌어라. 그러면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이 보살펴주실게다.》

《참 아버지두…》

우상철은 이 순간에까지 엇드레질을 할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걱정마세요. 무사할거예요.》

우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덕근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유격대의 총알은 왜놈들만 골라서 맞힌다고는 하지만 혹시 알겠는가. 그리고 왜놈들은 인민들을 총알받이로 앞에 세우고 내몰다가는 수틀리면 마구 쏴갈긴다지 않는가. 왜놈의 짐을 지고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유격대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는가.

그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수밖에 없는데 상철이녀석이 그럴리 만무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고…

아들이 떠난지는 며칠 안되지만 우덕근은 행여나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왔으면 하고 왼심을 쓰고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서에서 쓸어나오더니 얼음까기에 나오라고 사람들을 끌어내는것이 아닌가.

우덕근은 자기네 집에서는 아들이 《토벌》대의 짐을 지고

갔으니 셈에 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럴수록 더 열성적으로 나가야 한다. 얼음을 까서 유격대가 건너다니지 못하게 해야 아들도 무사할게 아닌가.》 하고 무작정 끌어냈다.

그리하여 얼음까기에 끌려나온 우덕근은 미끄러운 얼음장우를 기여다니며 장대기로 얼음덩어리들을 끌어내면서도 이따금씩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를 드리군하였다.

《하느님아버지이시여, 제발 굽어보살펴주옵소서.》

이 모양을 보다못해 이웃집에서 나온 박근배가 퉁을 놓았다.

《형님은 또 하느님소리요? 손이 닳도록 빌었댔자 무슨 자비를 베풉디까.》

《어허, 임자 꼭 우리 아들녀석 말하듯 하네그려. 그러다간 벌을 받네, 벌을… 우리 상철이녀석이 하느님을 노엽히더니 〈토벌〉대놈들한테 끌려간걸 보게나. 분별없이 입방아를 찧다가는 임자도 천벌을 받구 강물에 처박히지 않나 두고보게.》

우덕근은 아예 불손한 말은 하지도 말라고 오금을 박았다.

《허허… 상철이를 끌어간거야 왜놈들이지 어디 하느님이시우?》

《모르면 가만 있게. 그 녀석이 하느님이 어쩌니저쩌니 불손무엄한 수작질을 하던 때에 〈토벌〉대놈들이 들이닥쳤네.》

《그야 우연히 그렇게 된거지,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격으로말입니다. 하느님은 무슨 말라빠진 하느님이요?》

박근배는 그따위 소리는 둥치고 간빼먹는 선교사놈들이나

하는 수작이라고 했다.

우덕근은 벌컥 화를 냈다.

《임자 정말 내앞에서 그따위 수작질을 자꾸 할텐가? 하느님을 노엽히는 불손한 수작질을 하겠거든 저기 딴데루 가서나 하게. 하느님이 벼락을 내리면 남들까지 화를 입지 않게…》

바로 이때였다. 압록강 웃쪽 어데선가 요란한 폭음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덕근은 당장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굳어졌다.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겠수. 또 얼음장밑에서 남포를 터뜨리는 소리겠지. …》

박근배는 시들하게 대답하며 얼음덩이를 건져내는데만 신경을 썼다.

그때 우덕근이 불에 덴듯 놀라며 소리쳤다.

《저게 뭐야?》

그와 동시에 강 웃쪽에서 《물동이 터졌다.》 하는 아우성이 일었다.

그 웨침소리와 때를 같이하여 천군만마가 휘몰아오는듯한 굉음이 우뢰쳐오고 산같은 물사태가 밀려왔다.

휘익 강바람을 몰아오며 질풍같이 밀려오는 물사태는 얼음우를 기여다니며 일하던 사람들을 눈깜빡할사이에 휩쓸어버렸다.

《사람살리오!》

아우성이 터졌다. 온 강반에 악마구리끓듯하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손에 잡히는대로 얼음장들에 매달렸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물속에 잠겨들군하였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서 아우성을 쳤지만 일을 감독하던 왜놈들은 구원할 생각을 꼬물만큼도 안했다.

한참이나 허우적거리던 우덕근과 박근배는 다행하게도 노전만한 얼음장에 마주 붙었다.

자꾸 미끄러지는 얼음장에 턱을 걸고 겨우 물밖으로 머리를 내민 두 사람은 한동안이나 지나서야 상대방을 알아보았다.

《덕근형님! 살아있었구려!》

박근배가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쳤다. 아니 소리를 쳤다기보다 중얼거렸다.

《음… 임자… 근배로구만!》

우덕근도 첫 순간은 기뻐하더니 제정신이 들자 불찌라도 떨어질듯 노한 눈길로 근배를 쏘아보았다.

《내 뭐라든가? 하느님을 노엽히면 천벌을 받는다구 그랬지? 이게 다 임자가 혀바닥을 잘못 놀려서 하느님을 노엽힌 까닭에 하느님이 내린 천벌이야.》

우덕근은 정말로 이 물사태가 틀림없이 박근배가 불손한 소리를 했기때문에 하느님이 내린 천벌이라고 굳게 믿고있었다. 그래서 근배를 그렇게 증오에 찬 눈길로 쏘아보았던것이다.

박근배가 중얼거렸다.

《난 그렇다치구 형님이야 왜 벼락을 맞수? 형님이야 하느

님을 그렇게도 성근히 믿었는데…》

《요런 맹추야, 임자한테 내린 불똥이 나한테까지 튄거야. 그리구 하느님을 그만큼 믿었길래 이렇게 얼음장이라도 잡게 된거야.》

우덕근은 또 화를 냈다.

《헛 참, 그 하느님 린색도 하다. …》

그러나 이런 봉변은 알고보면 얼음을 한꺼번에 깨뜨려버리려고 왜놈들이 강 웃쪽에서 동뚝을 터뜨려놓았기때문이였다.

이런 내막을 알수 없었던 박근배는 이 마당에서 더 할 말이 없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판이여서 우덕근의 말을 더 반박하고싶지도 않았다.

물사태는 얼음장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장난감 가지고 놀듯 물갈기에 휘감아 내동댕이치기도 하고 팽이를 돌리듯 맴돌리기도 하였으며 세차게 떠박질러서 굴리기도 하면서 미친듯이 내달렸다. 게다가 살을 에이는듯한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며 눈가루를 몰아오고 송곳처럼 찌르는 추위는 물에 젖은 사람들을 사정없이 얼구었다.

머리칼에는 고드름이 서걱거리고 젖은 옷은 소가죽처럼 꽛꽛해졌다. 얼음장에 매달린 손은 벌써 감각을 잃었고 사지는 까드라들었다. 이제는 정신마저 가물가물해지고 숨까지 가빠져서 그들은 살아날 희망을 아주 잃고말았다.

우덕근은 입술을 겨우 놀리면서도 중얼중얼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부디 굽어보살피시여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바로 이때였다. 백두산쪽에서 때아니게 오색구름 한덩이가 솟아오르더니 사람들쪽으로 매우 빨리 이동해왔다.

사람들의 머리우에 이른 오색구름에서는 난데없는 가둑잎들이 날아내리더니 그것들은 곧 작은 매생이들로 변해서 사람들곁으로 떠왔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척척 태우더니 기슭으로 실어갔다.

사람들을 태운 매생이들은 신비스럽게도 온돌방처럼 따뜻해서 온몸이 인차 녹고 옷도 말랐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꽁꽁 얼었던 몸이 녹고 옷까지 마르자 죽을번한게 언제냐는듯 법석을 했다.

《매생이들아, 너희들이 아니였다면 우린 다 죽었을게다.》

사람들은 매생이를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런데 너희들을 어느 귀인이 보내주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분명 하느님이 보내주셨겠지?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덕근은 하늘을 우러러 인사를 했다.

바로 이때였다.

《아버지, 그런게 아니예요.》

문득 이런 말소리와 함께 아들 상철이가 불쑥 나타났다.

《상철아, 네가 무사했구나!》

우덕근은 아들이 무사한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다른것은 감감 잊고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잔등을 쓸어만졌다. 그러다가 잠시후에야 백두산에 가있을줄 알았던 아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느냐?》

마을사람들도 그때에야 놀라운 눈길로 상철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임자 어떻게 된 일인가?》

상철이는 어쩐 일인지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인차 대답을 못하고 울먹거리기만하였다.

《여러분! 이 매생이들은 하느님이 보내준것이 아니라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것입니다.》

상철이는 이 말을 하고는 드디여 《흑—》하고 흐느끼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덕근은 이 한마디를 되풀이하고는 더 말을 못하였다. 방금전까지도 하느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던 우덕근은 뭐가 뭔지 통 알수가 없어 멍청해졌다.

《상철이, 어찌된 일인지 어서 말 좀 하게나. 이거야 답답해서 견디겠나?》

박근배가 재촉을 했다. 마을사람들의 눈도 한결같이 대답을 기다리며 상철이의 입만 지켜보았다.

《난 짐을 지고 가면서도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생각은 안했어요. 그런데 유격대와 왜놈들사이에 싸움이 붙었수다. 유격대는 산우에서 내리쏘고 왜놈들은 밑에서 올려쏘고… 총소리가 콩볶듯하는데 왜놈들은 유격대가 농민들은 쏘지 않는다는걸 알구 우리 짐군들을 총알받이로 앞에 내세웠어요. 그리고는 뒤에 바싹 붙어서 우리 농군들을 총끝으로 쿡쿡 찌르면서 산으로 올려몰았어요. 조금만 말을 안들으면 〈땅〉하구 쏴갈기거나 군도루 목을 뎅겅 치구…》

《저런… 죽일놈들, 그래서?》

《내뒤에는 안경쟁이 오장놈이 따랐는데 산중턱쯤 올랐을 때 또 유격대총알이 비오듯했습니다. 그때 내뒤에서 〈아이쿠!〉하는 소리가 나길래 얼핏 돌아보니 오장놈이 총알을 맞구 산비탈로 데굴데굴 굴러가고있었어요. 나는 그틈에 제꺽

웅뎅이에 뛰여들어서 까투리처럼 머리를 쑤셔박구 납작 엎드렸어요. 죽게 되니 떠날 때 아버지가 부탁하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하느님께 빌어보자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상철이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

《그것 참 잘했다. 그 덕에 무사하지 않았느냐?》

우덕근은 그것 보라는듯이 좌중을 둘러보고는 아들을 칭찬하였다.

《헛 참. 그런데…》

상철이는 어처구니가 없는듯 인차 말을 못했다.

《그런데 어쨌단말이냐? 어서 말을 해라.》

우덕근이가 재촉을 했다.

《그런데 글쎄 왜놈 중대장놈이 내덜미를 잡아 일으켜세우더니 〈이 개자식아, 네놈이 오장을 죽였지?〉 하구 눈에서 불찌가 번쩍하게 귀통을 치지 않겠어요. 난 아니라구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앞에 섰던 네놈은 살구 뒤에 섰던 오장은 왜 죽었어? 유격대총알이 뒤에서 날아왔어?〉 하더니 군도를 쭉 뽑는게 아니겠어요. 난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중대장놈이 이발을 사려물고 군도를 추켜들더니 내 정수리를 겨누는데…

휙! 칼날이 내려지면 죽을판입니다. 그때 〈악〉 하는 단말마적인 웨침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중대장놈이 군도를 내리치며 지르는 소린줄 알고 <죽는구나!>하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인가 쿵 자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얼결에 눈을 떠보니 글쎄 중대장놈이 유격대의 총알에 맞았는지 군도를 쥔채 나가넘어져 숨을 몰아쉬고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 하느님, 고맙소이다.》

우덕근은 아들이 장한듯 칭찬을 하고는 또 하느님께 인사를 했다.

《헛 참,… 아버지두…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것이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정말 기도를 드린게 은을 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아버지이시여〉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참 잘했다. 덕을 입었으면 인사를 할줄 알아야 하느니라.》

《잘하긴 뭐가 잘해요. 망신만 당했는데…》

상철은 어처구니가 없는듯 아버지쪽을 흘겨보았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라요. 내가 한창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등뒤에서 〈동무, 하느님은 그만 찾고 일어나오.〉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흠칫 놀라서 돌아보니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에서는 영채가 뿜어나오고 존안에는 해빛이 찬란한분이 서계시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하느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나 하구 그분을 우러러보았어요. 그분께서는 손에 쥐고있던 싸창을 목갑에 찔러넣으시고는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마트면 저놈의 칼에 큰일날번했소. 어디 다친데는 없소?〉

나는 그때에야 나를 내리찍으려던 왜놈중대장을 그분께서 쏘아눕히셨다는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앞에 넙적 엎드려 고맙다고 거듭거듭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호

탕하게 웃으시면서 〈고맙다는 인사야 하느님께 해야지 나한테 하면 되오? 나야 하느님도 아닌데… 허허허…〉 하시지 않겠어요. 어느새 왜놈들은 다 녹아났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총소리도 멎었는데 유격대원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에워싸더군요. 한 대원이 〈장군님, 물동을 터뜨린 왜놈들을 몽땅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얼음까기에 동원되였던 인민들이 물에 빠져서 사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중에는 우덕근이라는 로인도 있는데 얼음장에 매달려서도 하느님만 찾고있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야 난 그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신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또 큰절을 했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말이예요. … 흑…》

상철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참 잘했다, 잘했어!》

덕근은 또 아들을 칭찬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한테 빌고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이 되여줍시다. 그들을 빨리 구원합시다.〉 그러시고는 부대를 이끄시고 산을 내리셨어요. 강가에 이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급히 가둑나무잎 몇개를 강물우에 던지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오색구름이 피고 나무잎들은 그 구름에 휩싸여 멀리로 날아갔습니다. 한 유격대원이 내귀에 대고 〈장군님은 가둑나무잎을 강물에 띄우고 그걸 딛고 강물을 건느시기도 하고 종이장을 바다에 띄우고 그걸 딛고 바다를 건느기도 하시오. … 이제 저 나무잎들은 매생이로 변할거요.〉 하고 소곤거렸어요.

그런데 잠시후 정말 아득히 먼 하늘가에서 나무잎들이 매생이들로 변하는것이 보였어요. 나는 〈아하! 들려오는 소문

이 정말이였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어요.

이때 장군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서시더니 〈어서 빨리 가서 아버지랑 마을사람들이랑 도와주시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순간 거기서 여기까지 300리가 넘는데 어떻게 빨리 가서 도와주라는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혼빠진놈처럼 장군님을 바라보기만했어요. 그랬더니 장군님께서는 내 마음을 벌써 아셨는지 신발 한컬레를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신고 가시오. 천리신발이요. 아마 이걸 신고 가면 눈깜빡할사이에 그곳에 가닿을수 있을게요.〉 그래서 나는 그 신발을 신고 제꺽 떠났어요. 한걸음에 산봉우리 하나씩을 뛰여넘어 이렇게 여기까지…》

《아, **김일성**장군님!》

이야기를 듣고있던 우덕근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매생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았다.

주름투성이인 얼굴로 눈물이 비오듯했다.

《일구월심 간절한 마음을 안고 심혼을 다 바쳐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느님은 썩은 바줄 한오리 내려보내주지 않았는데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은 하해같은 은총을 베푸시여 경각에 이른 백성들을 구원해주셨나이다. 진정 우리 나라를 찾아주시고 백의동포를 구원해주실 하늘님은 저 하늘이 아니라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우덕근은 백두산쪽에 대고 큰절을 드리고 또 드렸다.

마을사람들도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쪽을 향해 합배를 하고 또 하였다.

방한방탄이불

한때 관동군사령부소속 종군기자로 근무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몇해동안이나 따라다닌적이 있는 일본의 유명한 기자 다까기 다께오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주땅에 사는 조선농민들에게 있어서 **김일성**사령관은 완전히 신격화된분이시였다.》

다까기 다께오가 **김일성**장군님을 이처럼 높이 칭송한데는 어쩔수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위대하신 그이의 인품이 바탕에 놓여있다.

진정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나라의 건국신화들이나 고대동서방의 유명한 신화들에 나오는 신적존재이상으로 신기한 힘과 지혜와 용맹을 겸비하신분으로, 천기를 타고나신분으로 인민들속에서 높이 칭송되였다. 그리하여 방한방탄이불에 대한 전설도 생겨나서 길이길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때는 1930년대중엽이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는 벌써 여러차례나 왜놈들의 《토벌》을 받았다.

마을은 불타고 집들은 재더미로 변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불사신처럼 일떠섰다.

원쑤들이 열번 불태우면 백번 다시 일어서고 백번을 불태우면 천번, 만번 다시 일어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다.

산과 들에 강설이 뒤덮이고 혹한이 엄습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로지 한마음 왜놈도 지주도 없는 새 세상, 혁명정권밑에서 제 땅을 가지고 농사지으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격근거지를 목숨으로 지켜내려는 열망에 불타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머나먼 싸움길에 오르셨던 **김일성**장군님께서 근거지로 돌아오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겹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근거지마을을 몸소 돌아보시며 한집한집 생활형편을 료해하시였다.

왜놈들의 《토벌》에 집이 불타는바람에 이불까지 태워버린 집들이 적지 않았다.

《이 추운 겨울에 이불없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거지인민들에게 이불을 마련해줍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적구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왜놈포목상을 치도록 하시였다.

천과 솜이 해결되자 녀성유격대원들이 며칠밤을 새우며 이불을 만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녀성대원들이 이불을 만들고있는 장소에까지 나오시여 솜도 두툼하게 두고 시침도 촘촘히 해

서 근거지인민들이 추위를 모르고 지내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다가 이불에 끝동이 없는것을 보시고는 고운 천으로 꽉 끝동을 달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드디여 이불이 다 만들어졌다. 함박꽃무늬가 활짝 펼쳐진 이불천에 남색끝동을 곱게 달고 햇솜을 두툼하게 두어서 만든 이불은 새색시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가는 이불에 못지 않았다.

《이불이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불의 안팎도 살펴보시고 솜의 두터이도 가늠해보시며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매우 문명하고 깨끗한 인민입니다. 보십시오. 덮고자는 이불에까지 끝동을 대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다는 장식이 아닙니다. 이불의 아래우를 알아볼수 있게 해서 발쪽으로 갔던 이불깃이 입쪽으로 오는 페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이불깃에 끝동을 다는 민족은 우리 조선민족밖에 없습니다.》

순간 녀대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이불에 끝동을 달면서도 그저 보기 좋으라고 장식으로 다는 줄만 알았지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불깃 하나를 놓고도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긍지높이 새겨주시고 근거지인민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어버이사랑에 모두

의 가슴은 저절로 뜨거워졌다.

새 이불을 전달하는 모임이 인민혁명정부 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이불을 받아안은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담긴 이불에 얼굴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앞으로 달려가 큰절을 올렸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나는 이불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만주벌판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조선사람들을 볼 때마다 빚을 진것만 같아 가슴이 저리군합니다. 나는 그저 이 변변치 못한 이불이 여러분들을 추위로부터 막아줄뿐아니라 원쑤의 총알도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장군님!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로인들은 장군님의 손을 잡고 놓을줄을 몰랐다.

이불을 받아안은 집들에서는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이불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가보로 여기면서 시렁에 정히 얹어놓고는 덮을념을 안했다.

《나무 한짐 더 해다가 불을 뜨끈히 때면 될텐데 그 귀중한 이불을 덮다니…》

모두들 이런 심정이였다.

《갑산집》이라고 부르는 진채순할머니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차곡차곡 개여 시렁우에 얹어놓고는 몹시 추운 날에조차 덮지를 않았다.

인민혁명정부일군들이 날씨도 추운데 어서 이불을 덮으라고 권고하면 도리머리를 저었다.

《우린 그저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저렇게 척 얹어놓구

바라보기만해도 온몸이 훈훈해진다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유격대가 또다시 멀리로 싸움길을 떠나고 근거지에는 얼마 안되는 적위대원들만 남아있는 틈을 타서 왜놈들이 달려들었다.

적위대원들은 마을사람들을 급히 뒤산으로 피하게 하는 한편 원쑤놈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마을 하나를 가운데 놓고 이마를 마주한 앞산과 뒤산사이에서 맹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앞산을 차지한 왜놈들은 적위대원들이 차지한 뒤산과 마을을 향해 미친듯이 총질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한단말인가. 마을에는 아직도 피신을 못한 사람들이 더러 남아있었으니…

그들가운데는 《갑산집》 진채순할머니도 들어있었다.

그도 회장이 뛰여다니며 빨리 뒤산으로 오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그냥 두고서는 떠날수가 없어서 허둥거리다가 왜놈들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였다.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께서 주신 이 이불만은 그냥 두고 못떠난다.》

할머니는 안깐힘을 쓰며 이불보퉁이를 끌어내려고 하였지만 부피가 큰 이불이 문에 걸려서 로약한 늙은이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끌어낼수가 없었다.

이런 때 아들이나 며느리가 있었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하나는 적위대에 나가 있고 또하나는 부녀회일때문에 이웃마을에 가고 없었다.

《뚜루룩…뚜루룩… 땅, 땅…》

요란한 총성이 몰방으로 터지면서 담벽이며 천정이며를 벌둥지처럼 만들었다.

다급해난 진채순할머니는 허둥지둥 방안으로 뒤걸음쳐 들어와 이불보퉁이를 풀어가지고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썼다.

(죽더래도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에 싸여 숨지리라!)

이렇게 결심한 할머니는 이불깃을 꽁꽁 여미였다.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지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그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불을 안겨주시던 그날이 생각났다.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불을 쓴채 이대로 숨진대도 여한이 없을것만 같았다.

총알이 계속 우박처럼 쏟아졌다. 그래도 진채순할머니는 움찍 안하고 이불속에 엎디여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근거지마을에서 총소리가 나는것을 듣고 급히 달려온 유격대가 적위대와 합세하여 《토벌》대놈들을 물리친 다음에야 진채순할머니는 이불을 제끼고 머리를 내밀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쓰다듬고 방안을 둘러보던 할머니는 입을 딱 벌렸다.

담벽과 지붕이 온통 총알구멍투성이였기때문이다.

이런 속에서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상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눈길을 돌려 이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어데 있는가.

이불거죽에는 풀밭을 싸다니던 개잔등에 도꼬마리씨가 들

어붙듯이 수많은 총알들이 가득 들어붙어있었으나 놀랍게도 총알들은 이불을 조금도 뚫지를 못하였다.

이불을 툭툭 털자 꽃이불등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총알들이 후두두 떨어지였다. 그제서야 진채순할머니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날수 있은 까닭을 알았다.

(아,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불이 총알을 막아주었구나!)

할머니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울었다.

《장군님께서 추위만이 아니라 원쑤의 총알까지도 막아주고싶어하시더니 그 사랑, 그 은정이 총알을 막아 이 늙은이의 목숨을 지켜주셨소이다!》

진채순할머니는 마치도 **김일성**장군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인사를 올리듯 이불깃을 붙안고 볼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이 왜놈들의 총알까지도 막아준 놀라운 사실을 마을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싶은 생각이 들어 동년배늙은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들도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을 쓰고있었기때문에 무사하였다는것이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였다.

뒤늦게야 달려온 진채순할머니네 아들 칠성이는 총알이 가득 널려있는 방바닥을 보고는 억이 막혀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어쩌자고 빨리 산으로 오르지 않고 이불을 쓰고 있었어요? 하도 이불이 두툼하길래 총알이 뚫지 못했지 하마트면…》

그러자 진채순할머니는 무슨 그런 당치 않은 말을 하느냐는듯 아들쪽을 곱지 않게 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불솜이 두툼해서 총알이 뚫지를 못한게 아니다. 우리 백성들을 끝없이 아끼구 사랑하시는 장군님의 은덕이 두터워서 뚫지를 못한거야. 장군님께서 주신 이불은 실로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일뿐아니라 원쑤의 총알도 막아주는 이불이니라.》

《그러니 방한방탄이불이군요.》

칠성이는 할머니의 말에 이렇게 발을 달며 감격을 금치 못했다.

이리하여 유격근거지들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온 만주땅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추위뿐아니라 원쑤의 총알도 막아주는 방한방탄이불을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아무리 사납고 왜놈들이 발악을 해도 근거지인민들은 끄떡없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방한방탄이불—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들씌워지는 모든 재난과 불행을 막아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가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낳은 참으로 전설속의 이불과 같은것이였다.

백두산의 징벌

개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 나라에 근 500년동안이나 존재했던 강력한 통일국가 고려의 도읍지를 생각하게 된다.

원래 고조선에 속해있던 개성은 고구려때에는 동비홀, 부소압이라는 두 고을로 갈라져있었고 신라가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를 통합하였을 때에는 이름을 바꾸어 동비홀은 개성군으로, 부소압은 송악군으로 부르다가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이곳에 도읍을 정한 때부터는 두 군을 합쳐서 개주 또는 개경이라고 하였으며 때로는 황도라고도 하였다. 그러던것이 1392년 리성계가 정권을 쥐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부터는 송경, 중경 또는 송도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이렇게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개성은 일제의 강점으로 자기의 빛을 잃고 바다건너에서 기여든 왜놈들의 세상이 되고말았다.

일본 헌병대요, 경찰서요 하는따위의 일제관청들이 들어앉고 왜촌, 왜거리들이 생겨나서 옛 도읍지의 번화하던 거리로는 칼을 찬 군경들이 돌개바람을 일으키며 말을 몰아가고 호젓하고 아늑하던 골목길마다에도 왜사내, 왜계집들의 게다짝소리가 귀따갑게 울리였다.

북으로는 평양이 500리요, 남으로는 서울이 멀지 않고 동

으로는 원산, 서쪽으로는 해주에로의 왕래가 편리한곳이여서 예로부터 상업이 발전했던 도시였다. 그러나 왜놈장사군들이 다투어 밀려들어서 점방들을 차려놓고 눅거리물건짝을 가져다가 비싸게 팔아먹고는 대신 이곳의 유명한 고려인삼이며 고려자기요 하는 진귀한 보물들을 모조리 긁어갔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자랑찬 력사와 함께 전해지던 문화재에 대한 파괴와 략탈은 참으로 악랄하였다.

겉발림으로는 허울좋게 고려시기의 문화재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개성보승회》라는것을 내오고 공민왕의 묘지까지 파헤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려청자기와 청동거울을 비롯한 수많은 재보들을 략탈해갔다.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긁어가다못해 징용이요 《보국대》요 하면서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끌어갔고 송악산 소나무의 송진과 집집의 놋수저, 아낙네들의 비녀와 가락지까지 빼앗아갔다.

실로 개성은 땅도 왜놈땅이 되고 물도 왜놈것이 되였으며 나무 한그루, 풀 한대까지 왜놈들의것이 되고말았다.

빼앗긴 땅, 빼앗긴 도읍은 빛을 잃고말았다.

성벽우에 높이 솟아서 위풍을 돋구던 루각들과 만월궁이요, 성균관이요 하는 고색창연한 유적유물들은 옛 수도의 면모를 더욱 무게있고 엄엄하게 하던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도시를 침침하고 쓸쓸하고 음울하게 만들었고 서글픈 느낌만 자아냈다.

하긴 조선천지가 통채로 일제의 서슬푸른 《닛본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철쇄에 칭칭 묶이워 철창없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으니 고려의 옛 도읍지라고 어찌 달리 될수 있겠

는가.

조선땅을 타고앉은 첫 순간에 벌써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내놓고 선포한놈들이니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고려의 옛 도읍지는 겨레의 붉은 피로 물들고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짓밟힌 겨레의 통탄으로 가득찼다.

어제는 만월대 뒤골목에서 징용에 끌려갔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처량하게 들리고 오늘은 송악산기슭의 어느 집에서 《보국대》에 끌려갔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목놓아 통곡하는 소리가 가슴저리게 들려왔다.

바로 이런 개성땅에 놀라운 전설이 펴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전설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느 봄날밤이였다. 자남산밑 외진 골목의 한집에서 아낙네의 통곡소리가 밤깊도록 그치지 않았다.

어찌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목이 꽉 잠겨서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원통할데가 또 어데 있겠소. 놋바리, 놋숟가락 다 빼앗아가구 손가락에 끼였던 가락지까지 다 뽑아가고도 모자라서 생때같은 애아버지 목숨까지 빼앗아간단말이냐? 아이고… 애고… 원통해서 못살겠소.》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아낙네앞에는 다 찌그러져가는 개다리밥상 하나가 놓여있고 그우에는 지짐쪼박이 담긴 접시 두개와 밥사발뚜껑우에 댕그러니 올라앉은 사기술잔 하나가

놓여있었다.

담벽에는 사진 한장도 없는지 이름 석자를 써붙이였다.

《현고학생 리씨 학준》이라고 썼으니 리학준이라는 사람이 녀인의 남편이였던 모양이다.

조객들은 같이 눈물을 삼키며 술 한잔을 부어놓고는 향불그릇에 향나무쪼각들을 집어놓고 절을 했다.

그리고는 아낙네를 위로했다.

《아주머니, 그만하시우. 이놈의 세상이 오래 가기야 하겠수? 강심을 먹구 살아갑시다.》

그 말에 아낙네의 설음이 더욱 북받쳤던지 울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강심을 먹은들 무슨 수로 살겠소. 생때같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잡아다가 시체로 만들어놓은 이놈의 세상에서 쥔것 없고 권세없는 우리같은 가난뱅이들이 어떻게 산단말이우. … 아이고… 아이고…》

이때였다. 뜻밖에도 낯선 조객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키가 훤칠하게 큰데다가 운두가 없는 모자를 눌러썼는데 다리에는 행전을 치고 덧저고리에는 허리끈을 질끈 동이였다.

《아니?!》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덧저고리며 감발이며 그 차림새가 겨울행색인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그의 모자와 어깨에 눈이 하얗게 얹혀있는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였기때문이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눈이란말인가.

조객들은 잘못 보지 않았나 해서 다시 눈정기를 가다듬었다. 분명 눈이였다.

그런데 조객의 말 또한 놀라왔다.

《이거 늦어서 미안합니다.…허, 떠날 땐 눈이 펑펑 내렸는데 여기 오니 여름이 다 된것 같군요.》

조객은 모자와 덧저고리의 눈을 문밖에 대고 탁탁 털었다.

떠날 때 눈이 왔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몇달전 겨울에 떠났다는 소린데 그럼 그때 벌써 학준이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때 맞은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모자와 어깨우에 얹혀있단말인가?

모두 영문을 알수가 없어서 새 조객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조객은 생면부지의 낯선 손님이요, 어깨와 모자에 쌓였던것은 눈이 분명하였다.

《언제 떠났길래 눈이 올 때 소리를 하오?》

나이든 사람 하나가 의혹을 금치 못해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실없는 소리 작작하라. 대포를 쏘아도 비슷한걸 쏘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색조가 력연히 느껴졌다.

《그리구 떠나기는 어데서 떠났다는 말씀이오?》

나이든 조객이 련이어 물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백두산에서 떠났습니다. 이른저녁을 먹고는 곧 떠났는데…》

《뭐뭐 백두산? 이른저녁을 먹구 떠났다구?》

좌중은 그만 입을 딱 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운 빛보다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빛이 더 진했다.

글쎄 백두산에는 하지복골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다니까 눈이 내릴 때 떠났다는 말은 그런대로 믿는다치고 몇백리나 되는 길을 저녁숟가락을 놓자마자 떠났는데 어깨에 쌓인 눈

이 녹기도전에 이곳 개성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수리개나 제비라 해도 그렇게는 빠르지 못할것이다.

조객들이 수수께끼같은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술렁거리는데 아낙네는 그저 꺼이꺼이 울기만한다.

이윽고 새로 찾아온 조객에게 술 한잔 붓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좌중은 자리를 내주었다. 조객은 제상앞에 무릎을 꺾고앉더니 지고온 배낭에서 소주 한병을 꺼내여 술잔에 찰랑찰랑 부어놓고는 분향재배를 하였다.

《백두산에서 오셨다니 뉘신지? 고인하고는 어떤 사이인지 알고지내야 이후에 만나더라도 인사소통이 되지를 않겠소?》

나이든 조객이 좌중을 대표하여 또 물었다.

《차차 알게 될겝니다. 그런데 리형을 그 악귀같은 구마무라놈이 죽였다는게 옳습니까?》

백두산조객은 어떻게 알았는지 분격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참, 원통하구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글쎄 그놈들이 태평양전쟁인지 뭔지를 일으켜놓고는 젊은이란 젊은이는 다 빼앗아가지를 않겠소. 그것도 모자라서 아낙네들의 손가락에서 은가락지까지 빼냈수다. 그뿐인가요? 헌납금을 내라, 광솔기름을 내라, <공출>을 내라 날마다 찾아와서 행패질이웨다. 죽은 학준이 그 사람이 하도 딱해서 〈이젠 죽인대두 낼것이 없수다.〉 하구 대답을 했더니 경찰서에 잡아다가 곤죽을 만들고 목숨까지 빼앗지 않았겠소.》

나이든 조객은 말끝을 겨우 마무리고는 《흑-》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앉았다.

《이곳 경찰서에서 제일 악질로 놀아먹는놈이 구마무라라는걸 알고 왔습니다. 그놈을 당장…》

백두산조객은 분을 삭이지 못하여 주먹을 불끈 쥐였다. 눈에서는 퍼런 불이 펄펄 일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바로 그 구마무라라는놈이 우리애 아버지를 죽였어요. 내 그놈이 죽어자빠지는 꼴을 보면 땅속에 묻혀서도 한을 풀겠어요.》

《쉿, 누가 듣겠수다. 아주머니.》

녀인이 너무도 악을 쓰며 소리치는바람에 곁의 사람들이 겁에 질려 그를 달래였다.

《아주머니, 걱정마시우. 그놈이 이제 천벌을 받을거우다.》

백두산조객은 이 한마디를 하고는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훌쩍 자리에서 일어섰다.

《갑자기 어데를 가려오?》

모두는 눈이 둥그래서 그를 쳐다보았다.

《잠간 나갔다 오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들 하십시오.》

백두산조객은 지고온 배낭도 벗어놓은 덧저고리도 그대로 둔채 문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인차 돌아왔다. 아마 담배 한대쯤 태웠을 시간이나 됐을가.

어쩐 일인지 백두산조객이 잠간 나갔다 돌아오자 방안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모두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백두산조객은 모두의 눈길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묻고있다는것을 느꼈는지 입을 열었다.

《놀라지들 마십시오.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이 화둥잔처럼 커졌다.

《그게 정말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저를 부르시여 지금 개성시의 자남산밑에서 왜놈들에게 남편을 빼앗긴 한 녀인이 너무도 원통하고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하고있는데 얼른 달려가서 위로도 해주고 원한도 풀어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축지법을 쓰시여 순간에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요?!》

갑자기 방안은 상가집답지 않게 환희로 설레였다.

《그러면그렇겠지! **김일성**장군님 축지법이 아니구서야…》

《그래서 어깨의 눈도 녹기전에 개성에 들이닿았군그래!》

《아따, 누가 아니래?》

지금까지 목놓아울고있던 아낙네까지 울음을 뚝 그치고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듯 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 일까지 아시나요?》

뒤설레던 방안이 조금 조용해졌다. 모두가 아낙네와 동감인 눈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앉아서도 삼천리강산을 손금보듯하시며 온 나라를 보살피십니다.》

그러자 방안은 또 바람만난 갈숲처럼 술렁거렸다.

《옳거니… 이제는 우리 백의동포가 살았수다.》

《왜놈 망할 날도 코앞이지!》

《글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삼천리 조선땅을 뜨락을 산책하시듯 돌아보신다더니 그게 그저 뜬소문이 아니였수다래. 허허…》

《이보라구요, 아주머니. 이젠 눈물을 씻구 기운을 내서 살아봅시다. **김일성**장군님이 이제 천벌을 내리시여 아주머니의 원한도 풀어주실거우다.》

조객들은 그만 상가집이라는것도 감감 잊고 웃고 떠들었다.

아낙네는 또 눈물을 흘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슬픔의 눈물이 아니였다.

끝없는 흥분과 격정속에 진정을 못하고 떠들다나니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백두산조객이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였다면서 훌쩍 일어나서야 모두들 일어서서 인사들을 나누었다.

《에구머니… 새벽이 다 돼오누만.》

《안녕히들 계십시오.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거 정말 섭섭하우다. 이렇게 헤여지다니…》

《뭘 그럽니까? 해방년에 다시 만나겠는데…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백두산조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가 남겨놓고 간 배낭에는 적지 않은 돈과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다음날 아침, 선죽교근방에서 구마무라의 시체가 딩굴고있었다.

주검우에는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라고 쓰고 그밑에 《어떤놈이든지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자들에게는 이런 징벌이 차례질것이다. 백두산》이라고 쓴 경고장이 놓여있었다.

경찰서는 불난 집처럼 발칵 뒤집혔다.

학준이네 집에 조상을 왔던 사람들은 구마무라가 시체로 변한 까닭을 알고도 남았다. 학준의 안해는 더 말할것도 없고 마을사람들모두는 속이 씨원해남을 금치 못했다.

개성의 골목골목에서는 사람들이 마주서기만하면 구마무라

의 죽음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범인》을 잡는다고 제일 앞장에 서서 날치던 야마모도네 집 대문에는 이런 경고장이 또 날아와 붙었다.

《주의하라, 야마모도. 구마무라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백두산》

놈들로서는 모두 가슴이 서늘해지고 등골에 얼음물이 흐르게 하는 소리였다. 이런 경고장을 받고도 《용감성》을 발휘하여 무모하게 날치는놈은 영낙없이 시체로 돼버리군하였다.

경찰놈들은 《백두산의 징벌》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함부로 날뛰지 못하였다. 상부에서 내리먹이면 하는척하다가 눈치를 슬슬 보아가며 어물쩍해버리군하였다.

그대신 인민들은 가슴을 쭉 펴고 살았다.

어쩌다 왜놈들이 못되게 굴면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살피신다. 분별없이 날뛰면 백두산이 네놈들을 가만둘줄 아느냐.》고 맞섰다. 그러면 왜놈들은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어서 슬금슬금 피해달아났다.

악질적인 경찰이나 왜놈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일이 그치지 않고 생겨났다.

그때마다 이곳 인민들은 그 까닭을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요새 아무개가 왜 안보이느냐고 물어보군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왜놈들은 대답이 궁해서 쩔쩔매다가 《아아, 그 사람은 천황이 불러서 갔다.》고 둘러대군하였다는것이다.

그러면 인민들은 《천황이 아니라 황천이 불러서 갔겠지.》하고 코웃음을 쳤다.

하늘님이 보내준 두 천사

아호비령산줄기의 주봉의 하나인 설화산은 황해북도 토산군 하남리에 위치하고있다.

눈내리는 겨울이면 백화가 만발한듯한 설경이 하도 아름다와서 산이름도 《설화산》이라 부른다. 다시말해서 눈꽃의 산이라는것이다.

이 산속에는 《선녀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아마도 눈꽃이 하얗게 핀 설경이 하도 아름다와서 하늘의 선녀들이 이곳에 내렸던 모양이다.

바로 이 설화산의 선녀골에는 이곳에서 부대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던 한 농군이 하늘님이 보내준 두 천사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감동적인 전설이 깃들어있다.

왜놈들이 분수없이 태평양전쟁이라는것을 일으켜놓고 한창 기고만장해서 분별을 잃고 날뛰던 그무렵이였다고 한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만 한적하게 울리는 선녀골에서도 한가닥 인적기가 느껴졌다.

《후여! 후여! 요 배라먹을놈의 새새끼들아, 조밭이랑을 몽땅 들쑤셔놓으면 어쩬단말이냐!》

머리에 무명수건을 질끈 동인 중년의 사나이가 만세련창을

하듯 두팔을 들었다놓았다 하며 새떼들을 쫓았다. 그는 박두석이라는 농군이였다.

박두석은 문전옥답을 다 떼우고 심산유곡의 숲속에서 화전농사에 명줄을 걸고 살아가고있었다.

그런데 날짐승, 길짐승들의 성화에 골치를 앓고있었다.

오늘도 부대기밭들을 돌아보니 까투리, 참새, 메새, 비둘기들이 파헤쳐놓아 뿌연 재가루와 노란 조알, 기장알들이 드러났다.

지키는놈 열이 훔치는놈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데 이건 거꾸로 지키는놈은 혼자요, 훔치는놈은 수백수천이니 난사는 난사다.

《후여!》하고 쫓으면 화르르 날아갔다가는 어느새 살금살금 기여드는 새들과 싸우자니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미칠 지경이였다.

생각같아서는 모조리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발기고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생각해낸것이 겨우 꿩이나 짐승들이 내려오는 길목에 옹노를 놓는것이였다.

박두석은 부대기밭을 파헤쳐놓은 새들한테 별별 쌍욕을 다 퍼부으며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가련한 제 신세를 한탄하듯 타령 한곡조를 늘어지게 넘겼다.

요놈의 종자야 홍
성화를 말어라 홍
문전옥답은 홍홍
어디다 두고 홍

산비탈 부대기에 홍
이 고생을 하느냐 홍

한 곡조 뽑고보니 마음이 좀 내려간 박두석은 옹노들을 놓은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옹노를 놓은곳들을 살펴보던 박두석은 한곳에 이르러 우뚝 멈추어섰다.

《허허… 이게 웬떡이냐? 장끼란놈이 걸렸구나!》

박서방은 당장 장끼란놈이 날아나기라도 할가봐 겁이 나 덥석 잡아쥐고는 조심히 옹노를 풀었다.

목에 흰 띠를 두른 시뻘건 장끼는 보기만해도 훌륭했다.

박서방은 곁에 누구라도 있으면 한껏 자랑하고싶은 심정이였지만 아무도 없는것이 무척 아쉬웠다.

이 순간에는 얄미운 생각같은것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저 횡재를 한 기쁨뿐이였다.

당장 꿩을 집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설설 끓는 물에 튀긴 다음 메밀국수를 누르고 꿩고기꾸미를 듬뿍듬뿍 놓아서 배꼽이 툭 불거지도록 먹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곧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보다 더 급한것은 석유를 사오는것이였다.

깊고깊은 산속에서 오막살이둥지를 틀고살자니 아침해는 늦게 뜨고 저녁해는 먼저 져서 캄캄한 밤세상이 벌방보다는 엄청나게 긴데다가 고콜에다 광솔가지를 태워 불빛구경을 좀 하고나면 코구멍이 청솔가지를 땐 굴뚝같이 새까맣게 되여버려서 아침에 새끼손가락으로 코구멍을 후비면 검댕이가 한삽태기씩 나올 지경이였다.

눈알이 머루알같은 아이들 셋하고 줄창 배를 곯아서 얼굴이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누렇게 뜬 녀편네까지 합치면 숟가락 드는 입이 자그만치 다섯이니 그까짓 장끼 한마리 삶아놓은들 뉘코에 바를텐가.

하지만 석유를 사오면 한달이나 두달쯤은 등잔불을 켜놓고 제 녀편네 코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볼수 있을게 아닌가.

(장에 내다 팔자. 팔아서 석유를 사오자.)

박서방이 이런 닭알굴림을 하고있을 때 등뒤에서 와슬랑와슬랑 숲을 헤치는 소리가 나더니 낯선 젊은이 둘이 불쑥 나타났다.

그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오더니 마치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박형, 안녕하시우?》하고 인사를 했다.

(?!… 이들이 언제 나를 봤다구 박형이라누. …)

박서방은 아무리 보아도 처음보는 사람들이여서 인차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또 그들쪽에서 먼저 말을 했다.

《박두석형님, 그것 참 좋은걸 잡았수다. 오늘저녁엔 형님네 가마에도 고기국물이 발리게 됐수다래.》

두 젊은이가 자기 이름까지 알고있는바람에 더욱 놀란 박두석은 여전히 벙어리처럼 그들만 바라보다가 풀죽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글쎄 집에 가져다 끓였으면 오죽 좋으련만 가난뱅이의 입술에 고기국물이 발리면 부르튼다네.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석유를 사올 작정이네.》

《그래요? 이런 안성맞춤이라구야.… 우리는 장끼를 한놈 사려던참인데 장마당에 안가구 앉은 덕을 보게 됐수다래. 그

장끼란놈을 우리에게 주시우. 그래 얼마면 주시겠소?》

두 젊은이는 마침이라는듯 기뻐하면서 돈을 꺼내더니 박서방에게 내밀었다.

《형님, 이거면 되겠소?》

박서방은 얼핏 그것을 바라보았다. 눈짐작으로도 장끼 한마리가 아니라 돼지 한마리라도 살 돈이였다.

누구를 놀리자는건가? 아니면 사람됨을 떠보는건가? 아니면 요즘 시세를 모르는 판무식쟁이들인가? 박서방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형님, 왜 그러시우? 돈이 적어서 섭섭하다면 좀 더 드리겠수다.》

젊은이들은 이러면서 지전 몇장을 더 붙여서 박서방의 손에 억지다짐으로 쥐여주고는 무작정 장끼를 빼앗았다.

돈을 받아쥔 박서방은 어안이 벙벙하여 멍청히 서있었다. 도무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두 젊은이는 박서방이 그러거나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장끼의 깃털을 쓸어보며 싱글벙글 웃기만하더니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박형, 신세를 질바엔 깨깨 집시다. 우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몸이니 이 장끼놈을 어데 가서 끓여먹겠소? 형님네 집신세를 좀 집시다.》

그리고는 또 무작정 팔소매를 당겼다.

박두석은 그 손길에 이끌리면서도 난처한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글쎄 그야 어렵겠소만 우리 집엔 식구들이 많아서 국물 한순가락이라도 떼우면 떼웠지 보탤건 하나도 없네.》

《허허… 형님두 별걱정을 다합니다. 그런 걱정은 아예 마시구 어서 집구경이나 시켜주시우.》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박서방을 떠밀었다. 박서방은 그바람에 할수없이 두 젊은이를 제 집으로 데리고오고말았다.

젊은이들은 산전막이나 다름없는 집이지만 조금도 허물하지 않고 오히려 고향집에나 온듯이 기뻐하면서 토방에 성큼성큼 올라섰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초면에 안됐습니다만 이걸 좀 손질해주시우.》

두 젊은이는 장끼를 집어넣은 배낭을 박서방의 처앞에 척 내밀고는 다른 배낭 하나는 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버렸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하나씩 덥석덥석 끌어안고는 머리도 쓸어주고 잔등도 다독여주고 옛말도 해주며 껄껄거렸다. 배낭에서 말눈깔사탕도 꺼내주고 과자도 꺼내주며 어서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고 좋아라 깔깔거렸다.

방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마음이 끌려서 사이문에 다가붙어앉았던 박서방내외는 장끼를 어서 손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낭을 들추었다.

그 순간 박서방은 또한번 놀라서 굳어져버렸다.

배낭에는 꿩이 한마리가 아니라 네마리씩이나 들어있었던 것이다. 어데서 꿩을 세마리씩이나 사가지고 와서는 자기의 장끼를 샀단말인가? 그리고 또 이 네마리를 다 튀하라는

건가?

박서방내외는 어찌해야 할지 가늠이 안가서 두 젊은이에게 물었더니 그럼 그걸 남기겠느냐고 대답했다.

점점 알수 없는 일만 생겨나 벙벙해진 박서방은 《에라, 모르겠다. 소를 잡으라든 말을 잡으라든 시키는대로 하자.》 하고 꿩 네마리를 다 튀해서 가마에 안쳤다.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가마안에서는 김이 세차게 뿜어나오고 구수한 고기국냄새가 풍겨나왔다.

그 냄새에 군침이 도는지 아이들의 가느다란 목에서 울대뼈가 오르내렸다.

박서방내외는 슬그머니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손님들에게 음식을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불러냈다.

《너희들은 밖에 나가놀아라. 아저씨들 진지 잡수시게.》

그러자 어린것들은 서운한듯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주춤주춤 문가로 다가갔다.

《냉큼 나가놀지 못해?》

박서방이 발을 탕 구르자 아이들은 꿈쩍 놀라서 문턱을 훌쩍 넘어섰다.

이때에야 영문을 알아차린 두 젊은이는 펄쩍 뛰면서 아이들을 잡아앉혔다.

《형님, 이거 왜 이러시우? 그러지 말구 몽땅 퍼가지구 들어와서 함께 먹읍시다. 마침 오늘이 박형의 생일이라면서요?》

《뭐 생일?!…오늘이 며칠이더라…》

박서방내외는 그만 돌부처처럼 굳어져서 마주 볼뿐이였다. 너무도 놀라왔기때문이였다.

그중에서도 박서방의 처가 더 놀랐다.

쌀바가지를 든 아낙네라는게 제 서방의 생일을 감감 잊고 있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긴 생일을 잊은건 그들의 죄가 아니였다. 벌써 몇해째 아이, 어른할것없이 생일이라는걸 쇠여본적이 없는데다가 하루 세끼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판이니 언제 생일같은걸 생각할 겨를이 있었는가. 차라리 감감 잊어버리고 모르는것이 마음편한 노릇이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본인 당사자와 안해라는 사람도 까맣게 잊은 생일을 어떻게 알았단말인가? 혹시 아이들이 재잘거렸을가? 아니, 그건 더욱 그럴수 없다. 어른들이 감감 잊은 생일을 코흘리개아이들이 어찌 알수 있겠는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박서방내외가 얼떠름해져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데 젊은이들은 배낭에서 소주가 든 큼직한 도꾸리병 하나를 척 꺼내며 또 이렇게 재촉한다.

《형님, 생일을 축하해서 이 동생들이 한잔 부을테니 술잔 하나 주시우.》

박서방은 점점 리해할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로 빠져들었다. 이제는 아예 모든것을 젊은이들한테 맡겨버리고말았다.

두 젊은이는 철철 넘치게 부은 술잔을 박두석에게 권하더니 아이들한테도 고기점들을 뚝뚝 떼서 골고루 안겨주었다.

박서방은 그만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솟구쳤다.

《도대체 임자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

사들이 아닌가?》

박서방은 맑은것이 방울지는 두눈을 슴벅이였다.

《허허… 형님, 벌써 취하셨소? 너무 급해하지 마시우. 차차 알게 됩니다.》

두 젊은이는 여전히 헌헌담소이다.

오래간만에 꿩고기국에다가 팥을 듬성듬성 둔 조밥을 배불리 먹고난 집안식구들은 순간이나마 만시름을 잊고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어른들은 껄껄거리고…

(배가죽이 펴져야 낯가죽이 펴진다더니 허허…)

박서방내외는 두 젊은이가 너무도 고마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또 새로운 놀라움이 생겼다.

두 젊은이는 배낭을 뒤적거리더니 옷 한벌을 꺼내놓았다.

《형님한테 맞겠는지 모르겠소다. 입어보시우. 생일날에 동생들이 옷 한벌 하는것은 례의범절인데 옷이 별로 시원치 못해놔서…》

젊은이들은 오히려 제편에서 미안해하면서 어서 입어보라고 재촉을 했다.

박서방은 그만 울음을 터치고말았다.

《왜들 이러나? 나를 세상밖에 낳아놓은 어머니한테서두 이렇게 새옷을 받아입어보지 못했는데 생면부지인 임자들이, 임자들이… 흑…》

《형님, 너무 그러지 마시우다. 나라가 해방되면 한번 잘 살아봅시다.》

젊은이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 박서방을 위로하고는 그의

처에게도 치마저고리 한벌을 내놓았다.

《형님한테만 새옷을 드리면 형수님이 섭섭해할것 같아서 허허… 그리구 이건 아이들거우다.》

젊은이들은 아이들의 옷과 고무신도 꺼내놓았다.

눈이 말똥말똥해서 아빠, 엄마의 옷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아이들은 너무도 기뻐서 옷과 신발을 안고 깡충거렸다.

박두석은 꿈인지 생시인지 통 가늠이 가지 않아 젊은이들을 넋없이 바라볼뿐이였다.

(세상에 하늘이라는게 열리고 땅이라는게 생긴이래 선녀나 신선들이 땅우에 내려와 산천경개를 즐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가난한 농군에게 귀떨어진 동전 한푼 보태주었다는 말은 꿈에조차 듣지를 못했다. 그런데 낯도코도 모르는 농군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니 이들이야말로 천사중의 천사요, 은인중의 은인이구나! 천상천하에 신령님이 한둘이며 하늘님도 몇몇인가? 부처님의 자비심이 봄빛처럼 따사롭고 옥황님의 은총은 하늘만큼 크다지만 세상천지 그 어디에 덕을 본 사람이 있었던가!)

아이, 어른할것없이 새옷을 입고 꿈을 꾸듯 울고웃는데 젊은이들도 싱글벙글이다.

《허허… 형님네들이 새옷을 입으니 이 오막살이는 어울리지 않수다. 벌마을에 내려가서 새집 사구 살아보시우. 이 집은 꼭 쓸 일이 있으니 우리에게 팔구. …》

한 젊은이가 또 놀라운 소리를 했다.

《허, 말같지 않은 소리… 이건 비루먹은 하늘소를 팔아서 날개달린 룡마를 사라는 소린데…》

박서방은 도무지 정신을 수습할수가 없어서 중얼거렸다.

《허허…그건 념려마시우. 때로는 룡마보다 하늘소가 더 쓸모있을수도 있는 법이니. 그땐 하늘소값이 룡마보다 더 나갑니다. 그저 형님이 벌마을에 내려가기 싫어할것 같아서…》

《어느 시러베아들놈이 벌마을을 마다하구 이런 궁벽산속에 처박혀사는걸 좋아한단말인가?》

《그러면 됐수다. 이 동생들을 도와주는셈치고 집을 우리한테 팔구 벌마을로 내려가 온전한 집을 한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소원성취나 된듯이 기뻐하면서 얼른 돈을 꺼내여 박서방의 손에 쥐여주었다.

박서방은 손에 든 돈을 내려다보았다.

산전막 오막살이집같은건 몇채를 팔아도 받지 못할 돈이였다.

장끼를 살 때도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도 또 엄청난 돈을 쥐여주는 젊은이들! 도대체 이들은 왜 나한테 돈을 쥐여주지 못해 안달인가?

박서방의 가슴속에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의문이 장마철 구름처럼 밀려들었다.

《이건 날보구 강도질을 하라는거나 같은건데 어찌 이 돈을 다 받겠나. 장끼값을 터무니없이 받은것만도 천벌을 받을 일인데… 도대체 임자들 왜 이러나?》

박서방은 돈을 밀어놓았으나 젊은이들은 막무가내였다.

《형님, 사정을 좀 봐주시우. 우리에겐 이 집이 꼭 필요해서 그럽니다. 물건이 긴요하면야 어찌 값을 따지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오히려 제편에서 통사정을 했다.

《그럼 이 오막살이의 금새만큼만 받읍세.》

박서방이 이러며 돈을 떼려 하자 젊은이들은 그의 손을 덮쳐잡았다.

《안됩니다. 우리는 꼭 얼마를 드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뭐 분부?!… 도대체 누구의 분부란말인가?》

박서방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다시한번 젊은이들을 살펴보았다. 분명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일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가슴깊이 파고들었다.

(그런즉 그 분부란 하늘님의 분부임이 틀림없다. 하다면 내가 그런 천은을 받을만한 무슨 운수라도 타고났던고? 아니면 그런 행운이 차례질만큼 무슨 덕행이라도 쌓은것이 있던고? 그런 운수도 덕행도 없는 나에게 어찌하여 하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는고?)

박두석이 얼혼이 빠진놈처럼 대답을 못하는데 젊은이들은 마치도 제 집이 다된듯 기뻐한다.

《형님, 우리가 이길로 내려가서 집 한채를 수소문할테니 제꺽 이사를 합시다.》

젊은이들은 훌쩍 일어서더니 떠나버렸다.

《참 별난 사람들이군!》

《글쎄말이예요. 진짜 하늘님의 천사들이 아닐가요?》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드오?》

두 내외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것만 같아 오래도록 마주앉아있었다.

철모르는 아이들만 좋아라 재잘거리고 깡충거렸다.

젊은이들에게 집을 팔고 벌마을로 내려온 박두석은 얼싸한 집 한채와 땅마지기까지 사서 잘살게 되였다. 그러자 아근의 사람들은 박서방네 살림이 갑자기 펴인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별별 억측과 제나름의 짐작들을 내돌리였다.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백년묵은 산삼을 한바구니나 캐서 돈벼락을 맞았다느니, 어느 다래넝쿨밑에서 천년전에 무너진 기와집자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하나 얻었다느니…

박서방은 젊은이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도 함구무언을 했다. 입가진놈은 마음대로 짖고 까불라는 배심이였다.

이랬든저랬든 뜻밖의 행운을 만난것은 사실이니 아무런들 뭐라느냐는 심사였다. 그는 그저 하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굳게 믿고있었다. 그럴수록 박서방은 두 젊은이가 오막살이집을 사가지고 도대체 무엇에 쓰고있는지 알고싶어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짬을 내여 선녀골로 찾아가보았다.

맑디맑은 석간수가 은구슬을 휘뿌리며 흘러내리는 골짜기들과 울울창창한 숲속에서는 산열매들이 한창 살지고있었다.

박두석은 선녀골로 걸음을 다그치면서도 줄곧 하늘의 천사들인 두 젊은이의 모습을 눈앞에 상상해보았다.

안개발같은 날개옷을 휘날리며 구름사이를 날아내리면서 옥피리를 부는 신선들의 모습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채운이 서린 절벽우에 앉아서 표주박으로 신선주를 마시며 취흥을

돋구는 모습으로 상상해보기도 하였다. 하늘님의 천사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박두석은 자기가 살고있던 집앞에 이르자 더욱 그런 환각속에 휩싸였다.

찌그러져가던 산막집은 어찌나 손질을 잘하였는지 심산절경에 자리잡고있는 옛성인들의 초당같아졌다. 싸리바자를 곱게 틀어서 둘러친 울타리에는 줄당콩이며 호박넝쿨들이 꽃송이들을 달고 뒤엉켰는데 새초를 베여 새로 이은 지붕에는 어느새 애호박이며 하얀 박통이 다문다문 올라앉았다. 흙매질을 곱게 한 바람벽은 실금 하나 없는데 울밑에는 어데서 떠다심었는지 봉선화, 백일홍이 고운 얼굴을 쳐들고 생글거렸다.

삽짝문을 나서면 샘물터까지 우물길이 뻗었는데 길 량옆에는 알맞춤한 돌들을 줄맞춰 세워놓아서 구슬을 늘인듯 보기좋았고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샘물밑에는 오리알같은 차돌들을 촘촘히 깔아놓아서 정갈하기 그지없었다. 두 젊은이는 어데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데 조, 기장… 심어놓은 곡식들은 무성히 자라고있었다. 개꼬리같은 이삭들이 무겁게 드리우고 한뼘씩이나 되는 꼬투리들이 줄레줄레 달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분명해! 곡식종자들도 하늘에서 가져온게 틀림없구!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살림을 잘 꾸리고 곡식을 훌륭하게 가꿀수 있담!

그런데 어찌하여 천사들이 땅세상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있을가? 옥황님도 귀밀이나 콩따위를 좋아하는가? 하긴 임금님한테 진상을 하기 위해 벼나 조는 물론이요 참깨, 들깨, 녹두따위를 따로 가꾼다고 했지. 그러니 아마 옥황님이 이런

귀한 낟알들을 키우기 위해 천사들을 이곳에 내려보낸것이 아닐가?)

박서방은 보는것마다가 신비로와서 오래동안 그자리에 서 있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여 미끄류월, 어정칠월, 건들팔월이 살같이 지나가고 복닥구월이 되였다.

모두가 한해여름 땀흘려 가꾼 낟알들을 거두어들이느라고 야단들이였다. 그런데 두 젊은이는 어데로 갔는지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른 집들에서는 벌써 거두어들인 낟알들을 말끔히 털어서 뒤주에 넣었는데 두 젊은이들이 가꾼 곡식들만 한껏 고부라진채 주인을 기다리고있었다.

때를 넘긴 이삭들에는 얄미운 새떼들만 달려들어 축을 냈다.

박두석은 그것이 아까운데다가 은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금할수가 없어서 신세갚음을 하는셈치고 곡식들을 거두어들이였다. 알알이 털어서 건사해두었다가 젊은이들에게 주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온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나타나지를 않았다.

박서방네는 한해 농사 지은것을 《공출》바람에 절반나마 빼앗긴데다가 다섯식솔이 먹어대다나니 식량이 떨어지고말았다.

그러다나니 그만 젊은이들이 지은 낟알에 손을 대고말았다. 급하면 임금님의 감투끈 살 돈도 잘라먹는다지 않는가.

《한말만 돌려먹자.》, 《한번만 더 손을 대자.》 이러면서 졸금졸금 펴낸것이 그만에야 생쥐 소금 녹이듯 젊은이들의 낟알을 거덜내고말았다.

저질러놓은 일때문에 근심이 큰 산같아서 마음을 조이고있을 때 젊은이들이 불쑥 나타났다.

박서방은 너무도 죄스럽고 미안하여 그들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낯색 하나 달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듯이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것 참 잘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집에 가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농사야 또 지으면 되는건데 낟알을 쌓아두었다가 어데다 쓰겠습니까.》

《뭐 집에 가있었다구? 그래 집은 어데구 부모님들은 계시나?》

박서방은 놀라서 물었다.

《네, 계십니다. 나를 낳아준 친부모는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어버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박서방은 저도모르게 되뇌이였다. 그리고는 그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어버이》란 분명 하늘님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집이란 하늘에 있는 천궁일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박두석은 젊은이들의 눈이며 웃음어린 얼굴이며를 새삼스레 살펴보았다. 보면볼수록 천사의 눈, 천사의 얼굴로 돋보이였다.

봄이 되자 젊은이들은 또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들이 심은 곡식은 싹를 때부터 다른 곡식들보다 곱절이나 싱싱하더니 어느새 이삭이 패였다. 천궁에서 가져온 종자가 분명하였다.

이해에도 젊은이들은 농사에 극성이였다.

그런데 방치같은 이삭들이 누렇게 익어갈무렵 그들은 또 어데론가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그들이 살던 집에 찾아가보니 세간살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방안에는 편지 한장이 놓여있었다.

박서방은 서둘러 편지를 집어들었다.

《박형, 우리들은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고 이곳에 나와 임무를 수행하다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백두산에 계시면서도 온 나라 구석구석을 손금보듯하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박형네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에서 고생한다는것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도와주라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의 어버이는 **김일성**장군님이시고 우리들의 집은 백두산입니다.》

박서방은 그만 바위처럼 굳어졌다. 가슴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솟구쳐올랐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눈물이 쏟아졌다. 격정이 솟구쳤다. 고마움이 온몸을 휩쌌다.

《**김일성**장군님! 나라의 해방을 위해 뇌심초사 풍찬로숙하시는 장군님께 쌀 한톨 보태드린 일 없는 이 농군에게 하해같은 은총을 베푸시니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을 하오리까!》

박서방은 편지를 두손에 받쳐든채 오열을 터뜨렸다. 그리

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옳거니! 그대들이 장군님의 자식들일진대 나도 장군님의 아들이다. 아니 장군님은 온 나라 백성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니 온 겨레가 그이의 자식들이다!)

박서방은 이 세상에 하늘님이나 천사라는게 하늘에 있는것이 아니라 백두산에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저 푸른 하늘 허허공중에 있긴 뭐가 있어? 선녀골이 생겨서 지금까지 선녀구 신선이구 본 사람이 누구야? 우리 조선의 하늘은 백두산이구 거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이 우리 하늘님이시야!》

박서방은 이렇게 하늘땅이 쩡쩡 울리도록 웨치고싶었다.

지금도 이곳 선녀골에 가면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이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들고 여기에 나와서 전민항쟁을 준비할 때 쓰던 밀영자리들과 껍질벗긴 나무에 새긴 구호문헌들을 볼수 있다.

이 귀중한 사적물들은 박서방이 하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났던 전설을 전해주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백두산의 《한증탕》

한때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에 소대장으로 참가하였던 하가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는 4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삼도하자에서 <집단부락>의 경비를 하면서 수시로 <토벌>이란 이름을 내걸고 부근산속을 돌아다니였다.

지금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때 우리는 실제로 항일유격대를 상대로 전투할 마음이란 조금도 없었다. 왜냐하면 신출귀몰의 뛰여난 전법으로 싸우는 항일유격대와 맞다들게 되면 우리쪽이 진다는것은 뻔한 일이였기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속을 다녀도 항일유격대가 나타날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험한곳은 슬슬 피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곳만을 찾아서 빙빙 돌다가 돌아와서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것을 마치 정찰한것처럼 거짓을 꾸며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군했었다. 하기에 우리는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였다. 하가시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닌 일만군경들 일반의 고백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어느날 《토벌》대장 나가시마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백두산의 어느 골짜기를 행군하고있었다.

그는 바늘끝같이 찌르는 추위가 개털외투를 뚫고들어와 온

몸을 얼구고 눈보라가 볼따귀를 후려치는바람에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갔다.

이따금씩 눈보라가 휘몰아다 쌓아놓은 눈구뎅이에 허궁 빠졌다 두더지처럼 기여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산쪽대기에서 쏟아져내리는 눈사태에 묻히기도 하면서 백두산발의 크고작은 봉이들과 골짜기들을 싸다녀야 하는 고생이란 염라국의 지옥을 헤매는것만치나 고통스럽고 맥이 빠지는 일이여서 매일과같이 녹초가 되군하였다.

그런데다 어느 어둑침침한 수림속에서 유격대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일이여서 불안이 늘 혼백을 괴롭히며 육체도 정신도 다같이 지쳐버리는 놀음을 날마다 반복해야만하였다.

나가시마는 명색이 제국장교라 졸병놈들이 이런 심정을 눈치채게 할수 없어서 늘 《야마도다마시이》를 웨쳐대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것 역시 모순된 심리여서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더해줄뿐이였다.

나가시마는 자주 하늘의 해를 쳐다보군하였다. 해가 빨리 저물어야 민가에 내려가 몸도 녹이고 쉬기도 하겠는데 나가시마의 이런 마음과는 상관없는 하늘의 해는 굼벵이같이 느리게도 갔다.

드디여 해가 서쪽 산마루에 장바 두어기장만큼 남게 기울었다.

나가시마는 하늘이 도와서 오늘은 무사했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민가를 찾아 골짜기로 내려가도록 졸병놈들에게 명령하였다.

졸병놈들도 속으로는 뛸듯이 기뻐했을것이다.

나가시마네가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민가들이 나타나려면

아직도 퍼그나 멀리 가야 하리라고 생각했던곳에서 뜻밖에도 웬 사람들이 움직이는것이 보였다.

개눈엔 뭐만 보인다고 혹시 유격대가 아닌가 하여 온몸이 옹송그려졌다.

대오를 멈춰세우고 유심히 보니 한증가마들이 대여섯개나 있는데 농군들인지 숯쟁이들인지 한창 한증을 하는듯했다.

나가시마네가 그곳에 이르니 한증가마들에서 온통 땀투성이의 사람들이 기여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가시마는 자기네들은 동태짝처럼 꽁꽁 얼어가지고 사지를 와들와들 떨고있는데 여기서는 땀을 철철 흘리며 벌겋게 살이 익어가지고 돌아가고있다는 생각이 들어 괜한 심술보가 터지고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트집을 걸었다.

《너희들이나 여기서 한증을 하는척하면서 유격대와 내통을 하려는거지?》

나가시마는 이렇게 소리치며 농군들의 따귀를 한대씩 갈겼다.

《여기서 당장 사라져랏! 이제부턴 우리 황군이 몸을 좀 녹여야겠다.》

나가시마가 이렇게 소리치자 농군들은 한증가마들을 내주고 사라지고말았다.

숯가마를 리용한 한증가마는 큼직해서 한가마에 대여섯명씩은 실히 들어갈만하였다.

《적당히 나누어 들어가서 몸을 녹이라.》

나가시마는 이렇게 명령하고는 제 먼저 옷을 벗어던지고 한증가마안으로 기여들어갔다.

석달가물에 물웅뎅이를 만난 개구리새끼들처럼 기뻐하며 한증가마에 뛰여든놈들은 살통을 만났다고 법석을 했다.

다만 두명의 제일 낮은 졸병들만 밖에 남아서 보초를 서면서 시끄러운 심부름을 하였다.

아구리를 좀 꽉 닫아달라느니 수건을 들여보내라느니… 어찌나 귀찮게 들볶는지 짜증이 났다.

더구나 남들은 한증탕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며 호화판을 만났다고 히히닥거리는데 저들만 밖에 남아서 추위에 떨며 별별 잡심부름을 다 하자니 부아통이 터져서 견딜수가 없었다.

한증탕에 들어앉은놈들은 얼었던 몸이 녹자 사지가 나른해지고 아편에 취한듯 눈이 거불거려서 세상이 녹두알만해졌다.

어떤놈은 벌써 《하나요… 둘이요… 말클강…》하고 셈을 센다.

《여, 너무 더워서 죽겠다. 아구리를 약간 열어놓으라!》

나가시마가 밖에 남은놈들에게 소리쳤다.

보초를 서며 심부름을 하던 두 졸병놈은 밸이 울컥 치밀었다. 자기들은 추워서 범본 개 떨듯하고있는데 너무 더워서 죽겠다니… 그러면 빨리 나와서 교대를 해줄것이지 무슨 호통질이란말인가. 숨이나 칵 막혀 뒈져라!

이렇게 욕을 퍼부으며 심부름을 하던 두 졸병놈은 무심결에 앞산마루를 쳐다보다가 돌미륵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자기들이 온종일 헤매다 내려온 그 산마루우에서 산듯한 겨울군복을 입은 유격대원들이 자기들을 내려다보고있었기때문이였다.

두 졸병놈은 재빨리 눈속에 코를 박고 엎드려서 산마루를 조심히 살폈다.

유격대원들이 올라앉은 산마루가 움씰움씰하며 자기들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더니 자기들의 머리우에서 우뚝 멈추어섰다.

바로 머리우에서 자기네들을 내려다보며 주고받는 유격대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어쩌랍니까? 기관총벼락을 한바탕 안기랍니까?》

한 대원이 망원경을 들고 아래를 살피시는분에게 물었다.

두 졸병놈은 깜짝 놀랐다.

(장군님이라니?…그러면 **김일성**장군이란말인가?)

두놈은 땅바닥에 구겨박힌채 하늘처럼 올려다보이는 산봉우리를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기관총은 왜 쏘겠소. 백두산 한중탕에 온놈들인데 땀을 쭉 빼주어야지.》

장군님의 목소리는 우뢰소리처럼 울렸다.

《그래 동무들은 지금까지 몇가지 술법을 배웠소?》

장군님께서 물으시자 유격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하였다.

《330가지 술법을 배웠습니다.》

《330가지라… 그가운데서 어느 술법을 써서 저놈들의 진땀을 빼주겠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저놈들의 진땀을 빼주겠습니다.》

《허허… 좋소. 그런데 눈이 깊어서 솔방울을 어데서 찾겠소?》

《저기 있지 않습니까?》

꼬마대원 하나가 아찔하게 자란 소나무우듬지를 가리켰다.

그 소나무의 우듬지에는 까만 솔방울들이 여러개 달려있

었다.

《허허… 마침 거기에 있구만. 그런데 저걸 어떻게 따겠소?》

《총으로 쏘아 떨구겠습니다.》

꼬마대원이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좋소. 그런데 단방에 다섯개의 솔방울이 떨어져서 한중가마아구리에 각각 하나씩 날아들게 해야 하오. 자신있소?》

《옛, 자신있습니다.》

《그럼 동무가 한번 술법을 써보오.》

장군님은 꼬마대원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알았습니다.》

힘찬 대답소리와 함께 꼬마대원은 소나무우듬지를 향해 싸창을 겨누었다.

두 졸병놈은 그때에야 이 정황을 상관놈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유격대다!》하고 소리치려 했으나 입이 딱 굳어져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가까이에 있는 한중가마에로 달려가려 했으나 손발마저 굳어져서 꼼짝을 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바깥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한중가마안에 있는 놈들은 별별 소리를 다했다.

《여, 뭘해? 공기구멍을 좀 넓히라! 숨막혀 죽고말겠다.》

《이 자식들아, 귀구멍이 먹었어? 이쪽 한중구뎅이는 아구리를 좀 꽉 닫으라.》

그래도 꼼짝할수 없는 두 졸병놈은 땅바닥에 엎드린채 꼬마유격대원만 지켜보았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더니 정말일가?)

졸병놈들은 눈알이 뗴꾼해서 꼬마대원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땅!》

한방의 총성과 함께 아찔한 소나무우듬지에서 다섯알의 솔방울이 동시에 튕겨났다.

《야!》

두 졸병놈은 유격대원의 사격솜씨에 놀라서 하마트면 입밖으로 탄성을 내지를번하였다.

그러나 더 큰 놀라움은 그다음에 있었다.

소나무우듬지에서 튕겨난 다섯개의 솔방울은 다섯개의 한증가마아구리에 각각 한알씩 날아들더니 《꽝, 꽝》 요란한 폭음을 내며 동시에 터졌다. 그러자 한증가마아구리들이 일시에 풀썩 무너져내렸다.

《아! **김일성**장군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잣송이로 연길폭탄을 만든다더니 사실이였구나!》

두 졸병놈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대가리를 더욱 깊이 눈속에 틀어박았다. 당장이라도 자기들의 머리우에 솔방울수류탄이 날아와 터질것만 같았다.

아구리가 무너져서 바람구멍이 막혀버린 한증가마안에서는 숨막혀 죽는다고 악마구리 끓듯하는 아우성이 들려왔다.

《허허… 왜놈들이 백두산에 들어왔다가 진땀을 빼는군! 이 백두산은 그대로 왜놈들의 진땀을 빼는 〈한증탕〉이요. 앞으로도 찾아오는놈들마다 〈한증〉을 시켜서 진땀을 빼주어야 하오.》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소리는 우뢰와도 같이 울렸다.

《알았습니다.》

유격대원들의 대답소리도 산발에 쩌르렁 메아리쳤다.

그 유격대원들속에는 놈들이 한중가마에서 쫓아버린 《농군》들도 있었다.

두 졸병놈은 그때에야 자기들이 《한중탕작전》에 걸렸다는것을 깨달았다.

(《한중탕작전!》… 유격대의 모든 작전은 우리 황군의 진땀을 빼는 《한중탕작전》이야!)

두 졸병놈은 한중가마안에 들어가지 않은 덕분에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는것이 다행스러웠으나 어느 순간에 솔방울을 쏘아떨구던 그 명사수의 총알이 자기들의 이마빡을 뚫을지 몰라서 사시나무떨듯할뿐이였다.

그런데 자기들의 머리우에서 들려오던 유격대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는것이였다.

이상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김일성**장군님과 유격대원들이 올라앉아있는 산봉우리가 저 멀리로 물러가는것이였다.

그때에야 땅에서 일어난 두놈은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내뺐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두놈은 그후 《백두산의 한중탕》이야기를 헛소리처럼 하고다니였다.

이 이야기는 날개를 달고 퍼져서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으며 왜놈들이 백두산쪽으로 《토벌》하러 가는것을 보면 조무래기아이들까지도 《야, <토벌>대가 또 진땀을 빼러 가는구나!》하고 놀려대군하였다 한다.

양덕땅에 깃든 전설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1938년 8월 국내 깊이 양덕땅까지 나오시여 이곳 비밀근거지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덕지구에 파견된 소부대성원들은 도처에서 일제원쑤놈들을 습격소탕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한편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해방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양덕군 락천면주재소가 습격을 받아 하늘로 날아나는가 하면 련이어 내률면주재소가 죽탕이 되여버리고 양덕역과 상신리일대에서 적의 군수렬차가 나딩굴어 풍지박산이 되고 신평군과의 경계점인 지경고개에서 20여명의 군경들을 태운 군용차가 습격을 당하여 전멸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양덕군 북대봉, 남대봉일대와 신평군 하람산일대를 선회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던 황군비행기가 《정체모를 사람들》의 사격을 받고 산속에 곤두박혀 원쑤놈들을 전률케 하고 인민들을 법석 끓게 하였다.

처서군들과 숯을 굽는 사람들은 산속을 다니다가 껍질벗긴 나무에 《**김일성**령수는 조선의 하늘님, 2천만 일심으로 김대장 받들자》, 《**김일성**령수 만세》라고 새긴 구호들을 자주 보

군하였다.

방금 껍질을 벗겨서 속살이 하얀 나무에 새까만 참먹으로 또박또박 새긴 글발을 가슴에 받아안은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에 휩싸이군하였다. 실로 온 양덕땅이 폭풍을 안은 바다처럼 술렁거렸다.

이런 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칭송하는 전설들이 수많이 전해지게 되였는데 그중 하나를 아래에 소개한다.

양덕땅 북대봉밑에 살고있는 황근복이라는 농민이 어느날 약초를 캐서 쌀이라도 사려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삼이나 백봉령같은 값나가는것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던 근복은 큰 나무뒤에서 총을 멘 군대 하나가 불쑥 나타나는바람에 하마트면 호미를 떨어뜨릴번하였다.

《당신은 누구요?》

총을 든 젊은 군사가 날카로운 눈길로 근복이쪽을 살피며 물었다.

근복이는 사지가 와들와들 떨리고 가슴이 얼어들었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총을 멘 군사를 만났으니 왜 겁이 나지 않겠는가. 그는 자기는 이 산밑에 사는 농군인데 약초를 캐러 왔다고 떠듬거리면서 대답하였다.

군사는 잠시 근복이의 아래우를 살피더니 총을 어깨에 메며 이렇게 말하였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군사의 말에는 친절이 풍겼다.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처음 보는 군대인데 왜놈군대와는 판판 다르다는것이 첫눈에 안겨왔다. 군복차림새도 전혀 달랐지만 사람을 대하는품이 하늘

파 땅차이였다.

왜놈군대나 경찰은 두마디안팎으로 큰소리를 치고 쩍하면 따귀를 갈기고 발길질이였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죄같은건 애당초 꿈에조차 생각못할 일이였다.

근복이는 얼마간 마음이 놓여서 약초를 캐려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사연을 자상히 말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군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안하지만 저하구 같이 가야겠습니다.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도대체 나를 어데로 데리고가는것일가?)

근복이는 친절히 대해주는 군사를 따라가면서도 별별 생각을 다하였다.

문득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근복이는 저도모르게 긴장해졌다.

그를 더 따라가니 웬 군사들이 총도 다루고 대렬훈련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어떤곳에서는 쉴참인듯 군사들이 모여앉아서 떠들썩 웃어대는 모습도 보였다.

(여기가 어데일가?)

근복이는 궁금증이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

어느 한 귀틀집앞에 이르자 근복이를 데려온 군사는 잠간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군사는 인차 되돌아나와서 근복이를 데리고 귀틀집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여러명의 군사들이 앉아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근복이를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부탁

을 하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며칠간 중요한 회의를 하기때문에 여기서 며칠동안 기다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근복은 이렇게 되여 이곳에 머물러있게 되였다.

하는 일없이 하루 세끼 주는 밥만 축내자니 갑갑하기가 이를데 없는데다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갈마들기도 하였다. 혹시 이 친절한 군대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도 들었다.

이런 속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날 아침이였다.

《사령관동지, 바로 이곳입니다.》

문밖에서 누군가의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뒤이어 문이 열리더니 한분이 방안에 들어서시는것이였다.

순간 근복이는 솟아오르는 태양을 마주한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신 젊은분이 서계시였던것이다.

분명 솟아오르는 태양같으신 그분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몹시 놀랐겠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존안에 웃음을 담으시니 금시에 천지가 밝아지는듯했다.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그 음성은 다심한 어머니의 목소리와도 같았다.

(룡궁도 천궁도 아닌 이런 심심산중에 이렇듯 출중무비한 영걸이 계심은 어이된 일인고?… 양덕땅에 북대봉, 남대봉이 높이 솟아 하늘세상에서 신선들이 내린다는 전설이 있더니 진정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출위인이 분명토다!)

근복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이고 마음은 더없이 숭엄해지고 경건해졌다.

이 순간 근복은 하늘에서 해가 비쳐서 세상천지가 밝아지는것이 아니라 《사령관동지》라고 부르는 이분이 계셔서 광명천지가 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사령관》어른은 집안식구들은 몇이며 살림형편은 어떤가고 차근차근 물으시더니 왜놈세상에서 정말 고생이 많겠다고 걱정해주시였다.

옹이가 박히고 터갈라져서 손이라기보다 나무갈구리같은 자기손을 따뜻이 쓸어주시며 친부모도 다할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근복이는 가슴속에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수 없어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이렇게 웨쳤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고생으로 말하면 제 고향, 제 집을 떠나서 하늘을 지붕삼고 땅을 구들삼아 풍찬로숙하는 군대어른들에게 비기겠소이까. 고삭은 지붕밑이라도 제 집 지붕밑에서 눈비를 피하고 헐어빠진 노전일망정 제 집아래목에 누워 허리를 펼수 있으니 군대어른들에 비하면 호강을 한다 해야 하겠는데 오히려 고생을 한다고 걱정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소이다!)

그런데 또 《사령관》이라는분은 함께 들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나무라시는것이였다.

…농민을 이렇게 데려오면 집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걱정하겠는가. 그리고 이 농민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러면 안된다. 우리는 인민을 믿고 혁명을 시작한만큼 인민을 믿어야 한다. …

그분께서 이럴수록 근복은 더욱더 송구해서 몸둘바를 몰

랐다.

《그래 산에 며칠이나 있을 예정이였습니까?》

《사령관》이라는분이 근복에게 물었다.

《예, 한 사나흘 말미를 잡고 떠났습니다.》

근복은 얼른 대답을 올렸다.

《그렇습니까? 하다면 마음을 푹 놓고 쉬십시오. 정 심심하고 갑갑하면 장기도 두시고… 장기를 둘줄 아십니까?》

《장기말입니까? 여기에 상대가 있겠는지…》

근복이는 마치도 친부모앞에서처럼 스스럼이 없어져서 제법 흰목을 뽑았다.

《허허… 그러면 됐습니다. 마침 우리한테도 장기를 몹시 즐기는 동무가 하나 있는데 보내주겠으니 한번 마주앉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여 근복은 이곳에서 사흘동안이나 묵게 되였다.

숲속에는 귀틀집들이 여러채나 있었다.

근복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군사가 장기판을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다.

《귀틀집마을》에서는 근복이를 귀한 손님처럼 륭숭하게 대접하였다.

노루고기가 상에 오르는가 하면 꿩고기, 토끼고기도 차례졌다.

저녁이면 오락회라는걸 벌려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근복이를 기쁘게 해주었다.

근복이는 아침마다 여러명의 군사들이 괭이를 들고 약초를 캐러 떠나는것을 보았다.

(아마 군대에서도 환자들이 있어서 약초를 캐는 모양이

구나.)

근복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느덧 사흘이 지나갔다. 《사령관》이라는분이 근복이를 찾아왔다.

《그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집에서도 몹시 걱정하겠는데 이제는 돌아가보십시오. 이곳에서 보고들은것은 일체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왜놈들의 귀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당부한 그분께서는 변변치 못하지만 성의로 알고 받아달라면서 돈 50원을 내놓으시였다.

근복이는 그만 당황해서 팔을 내저으며 뒤걸음질을 쳤다.

황소 한마리값이 넘는 돈을 어찌 선뜻 받을수 있단말인가!

그러나 《사령관》어른께서는 끝내 돈을 근복이의 손에 쥐여주시고는 한 군사에게 《동무들이 그동안 캐온 약초도 가져오시오.》하고 령을 내리시였다.

그러자 그 군사가 달려가서 약초구럭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팔뚝같은 산삼이며 사발만큼씩한 백봉령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동안 약초를 못캐서 손해가 약차하겠는데 이것도 가지고가서 보태십시오. 우리 동무들이 짬짬히 캐온것입니다.》

《사령관》어른께서는 약초구럭을 근복이의 앞으로 밀어놓으시였다.

근복은 그때에야 군사들이 무슨 까닭에 매일같이 약초를 캐러 떠나군하였는가를 깨달았다.

(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분도 있단말인가!)

근복은 눈물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광명을 주고 따뜻한 열을

주어 보살피는것이 하늘의 태양이라면 자기와 같은 가난한 농군을 이처럼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이 분은 만백성의 태양이시라고 근복이는 확신하였다.

(이분이 뉘실가? 혹시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실가?)

이런 생각이 든 근복이는 몸가짐을 바로한 다음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청을 드렸다.

《너무도 크나큰 은총을 받고보니 그 고마움을 무엇이라 말씀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송하오나 하늘같은 은인께서는 뉘신지 명함을 알고싶소이다. 만일 은인의 명함 석자도 알지 못하고 이렇듯 큰 은혜를 입는다면 죽어 눈을 감는 날까지 어찌 바보소리를 면하겠소이까.》

《허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집 사고 전답을 마련할만큼 보태드리지도 못하구 겨우 인사차림이나 하자구 드린걸 가지구 은혜요, 뭐요 할게 있습니까. 이제 나라를 찾으면 잘 살게 될터이니 그때 가서 옛말하며 잘 살아봅시다.》

《사령관》어른은 근복이의 손을 꽉 잡아주시였다.

근복이는 그이를 눈물고인 눈으로 우러러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근복이는 자나깨나 그분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해님같은 그분은 틀림없이 **김일성**장군님이실거라고 확신했다.

그후 어느날 그의 이런 생각은 명백해졌다.

그날 근복이는 《사령관》어른이 주신 돈 50원으로 사다맨 둥글황소한테 달구지를 메우고 장작을 가득 실었다. 그리고는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양덕장마당으로 향했다. 산속에 들어가 약초나 캐서 살림에 보태던것이 소가 생겼으니 이제는 신선놀음이였다. 그래서 저절로 코노래가 나왔다.

양덕읍에 이른 근복이는 이미 약조가 되여있는 《양덕음식점》에 나무를 부렸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을양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그는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산속 《귀틀집마을》에서 뵈왔던 《사령관》어른이 신사옷차림을 하고 1등칸 식탁에 앉아계셨기때문이였다.

《사령관》어른은 첫눈에 근복이를 알아보고 가볍게 눈인사를 보내시였다.

그 차림새로 보나 용모로 보나 세상에 보기드물게 출중한 인물이여서 군경찰서장이나 군수따위는 말할것도 없고 서울에서 온탕을 하러 왔다는 왜놈나부랭이들까지도 기가 눌리고 주눅이 들어서 1등칸에는 코도 들이밀 생각을 못하고 2등칸으로 쫓겨가고말았다.

(어떻게 저분이 여기에 와계실가?)

근복이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하늘님같으신 은인을 만났는데도 와락 달려가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낯선 사람처럼 처신을 하자니 죄스럽기 그지없고 안타깝기가 이를데 없었다.

이때 음식점주인이 들어와 그이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무엇을 더 요구하실게 없는가고 말씀을 여쭈었다.

《아니… 없습니다. 참 잘 먹었습니다. 이곳 양덕의 국수맛이 참 별맛입니다.》

《사령관》어른은 음식점주인에게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가시였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음식점주인이 인사를 할 때 근복이도 마음속으로 함께 인

사를 올렸다.

《저분의 명함이 무엇이랍디까?》

근복이는 《귀틀집마을》에서 알아내지 못했던 은인의 성함을 혹시 여기에서 알아낼수 있지나 않을가 해서 음식점주인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호랑이를 본 강아지 마루밑에 기여들듯 옆방으로 쫓겨가서 모가지를 움츠리고 말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처박혀있던 군수, 경찰서장나부랭이들도 방금 밖으로 나간 《고관》이 누구인지 알고싶어서 우르르 밀려와 음식점주인을 둘러쌌다.

《저도 방금 알았는데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시랍니다.》

음식점주인의 대답이였다.

《**김일성**장군?!》

모두의 입에서는 놀라운 소리가 합창으로 튀여나왔다.

(아, 그분이시였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탄성을 터친 근복이는 그만 가슴을 치며 탄식하였다.

(하늘도 무심하구나! 만백성의 해님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존전에 마주앉아 하늘같은 은총을 받아안으면서도 눈이 어둡고 불민하여 미처 알아뵙지 못하였으니 정녕 청청대낮에 하늘의 해를 알아보지 못했던들 이보다 더 한심하랴!)

왜놈들도 얼혼이 쑥 빠져서 한참이나 멍청해있다가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헤덤비기 시작하였다.

경찰서가 불난 집처럼 발칵 뒤집히고 평양주둔군 77련대산하 분견대가 긴급출동을 하고 양덕에 멈춰서있던 군수렬차에서 천여명의 군졸들이 쏟아져내려 수색작전에 합류하고… 어

쨌든 손바닥만한 양덕읍바닥에 왜놈군경이 구데기끓듯하였다.

얼마후에야 근복이는 와들짝 놀라서 음식점에서 뛰여나왔다.

김일성장군님의 신변이 걱정되였기때문이였다.

왜놈들이 복닥소동을 일으키는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태연하게 걸어가시던 장군님께서 역기다림칸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였다.

근복이는 황황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어느새 역사 둘레를 왜놈군경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접근할수가 없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말인가!)

근복이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데 기다림칸으로 들어가신 장군님께서는 그저 태연하게 앉아서 책만 읽고계시였다.

왜놈들은 포위망을 한치한치 조였다.

그래도 장군님께서는 태연자약하시였다.

그러더니 왜놈들이 앞뒤문을 박차고 뛰여드는 순간 책을 탁 덮으시였다. 이와 동시에 장군님의 모습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왜놈들은 말할것도 없고 기다림칸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져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혼맹이가 쑥 빠져서 두눈을 멀뚱거리며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자리만 들여다보던 왜놈들은 한참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결상밑을 들여다본다, 기다림칸 구석구석을 뒤진다 소동을 피웠다.

이때였다.

《저기 계신다!》

밖에서 환성이 터졌다.

기다림칸을 뒤지던 왜놈들은 물론이요, 기차손님들까지도 몽땅 밖으로 밀려나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는 하늘중천에는 구름우에 우뚝 서시여 웃고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틀림없이 만리창공에서 빛을 뿌리는 밝은 태양이였다.

왜놈들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공포에 질려 뒤로 벌렁 주저앉아서 가재걸음을 치는데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우러러보고 또 보았다.

근복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서 웃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어리석은놈들아, **김일성**장군님을 어쩌보겠다는건 하늘의 해를 잡으려는거나 같은거다. 하늘의 해는 절대로 잡을수 없어!)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김일성**장군님을 생각하군하였다. 그들은 하늘에 태양이 영원한것처럼 **김일성**장군님은 조선의 태양으로 영원할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옥좌에 비낀 밝은 별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몇해전이였다.

서울장안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여 리발을 하고가시였다.》는 소문이 번개뒤의 우뢰소리처럼 퍼져서 사람들을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장군님께서 평양면옥에 찾아오시여 국수를 드시고가셨다는 이야기, 함흥에 있는 륙군병원에 입원하시여 치료를 받으셨다는 이야기, 지어 부산에 있는 고급려관에 드시여 하루밤을 쉬여가셨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조선팔도강산이 바람부는 날 갈숲 설레이듯하는판에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총독부가 틀고앉아있는 서울 한복판에까지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셨댔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설설 끓는 죽가마에 장작불을 덧지핀 격이 되여버렸다.

그 소문은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어느날 서울장안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고급리발관의 손님칸에는 대여섯명의 고관들이 폭신한 걸상에 제끼고앉아서 신문들을 뒤적이고있었다.

이 리발관으로 말하면 서울바닥에서 두번째라면 섭섭하다고 할만큼 급이 높고 이름이 나서 내노라 하는 고위관리들과 신사멋쟁이들이 다투어 찾아드는곳이였다. 어쨌든 이 리발관

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멋을 부리기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내들이라면 이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는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것이 하나의 류행으로 될 지경이였다.

그러니 지금 손님칸에 앉아있는 작자들도 허술히 볼 인물들이 아님은 명백하였다.

그들가운데는 누런 금줄장식을 한 군복쟁이도 보이고 하얀 목깃에 까만 나비넥타이를 맨 코수염쟁이신사도 눈에 띄였다. 분명 총독부의 《나으리》들과 무슨 사령관이요, 대장이요 하는 거물급들임이 틀림없었다.

그들이 신문장들을 뒤적이다가 이제는 더 볼것이 없는지 그것들을 앞상우에 내던지고 하품을 하며 걸상등받이에 몸을 제낄 때였다.

출입문이 열리더니 젊고 점잖은 손님 한분이 들어섰다. 좌중의 눈길이 일시에 그리로 쏠리였다.

순간 손님칸에 앉아있던 작자들은 저도모르게 일시에 일어섰다.

방금 들어선 손님의 인품이 어찌나 뛰여나고 위풍당당하였던지 대번에 기가 숙어들고 위압당하였기때문이였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손님이 걸상에 앉은 다음에야 선생앞에서 학생이 처신하듯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히 제 자리에 앉았다.

새로 들어온 손님은 천천히 신문을 집어들더니 조용히 거기에 눈길을 주었다.

고위관리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못내고 쥐죽은듯이 앉아있었다. 손님칸에서는 새로 들어온 손님이 신문장들을 번지는 소리만이 들릴뿐이였다.

바로 이 시각 리발실에서 손님을 맞을 차비를 서두르던 리발사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도는것을 느꼈다.

어데선지 밝은 채광이 방안으로 비쳐들고 까닭모르게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지면서 온몸이 환희에 휩싸이는것을 느꼈다. 저절로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고 눈앞이 밝아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끝없이 샘솟아올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슨 까닭에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고 가슴이 이렇게 높뛰는것인가?

리발사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짚이는데가 있어서 서둘러 별실로 달려갔다.

이 별실은 리발사가 몇십년동안 하루도 번지지 않고 남몰래 드나드는곳이였다.

그 까닭은 누구도 몰랐다.

바로 이 별실에는 그 어느 손님도 앉혀보지 않은 걸상 하나가 보관되여있었다.

이것은 리발사의 아버지가 온넋을 바쳐 만든것이였다.

리조말엽 궁중에서 목수일을 하던 리발사의 아버지는 황제에게 새로운 룡상을 만들어올리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제나름으로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두고 걱정해서였다.

어쩐 일인지 5천년력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가 점점 국력이 쇠진해지고 밀려드는 외적의 무리들앞에 언제 꺼꾸러질지 모를 위기에 처했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다.

《임오군변》이 터져서 대궐안팎이 죽끓듯하더니 뒤미처 《갑오동학란》이 터져 온 나라가 폭풍안은 바다처럼 뒤설레고 그 돌개바람이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으로 뒤번져져 삼천리

강토가 황소싸움을 겪고난 배추밭처럼 짓뭉개지고 백성들의 살림은 풍지박산이 되여 도탄에 빠지고말았으니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아닐수 없었다.

사모를 뒤집어쓰고 나라를 좀먹으며 백성들의 등가죽을 벗겨서 제배를 채우는 세도재상들과 량반벼슬아치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그지없었지만 둥지가 뒤집히면 성한 알이 있을수 없는 법이니 빈대, 벼룩 밉다고 불달린 집을 그대로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는가.

그런데 한갖 궁중목수따위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무슨 힘으로 버쳐낸단말인가!

가슴을 쥐여뜯으며 생각을 짜내던 리발사의 아버지는 어느날 귀가 솔깃해지는 말을 듣게 되였다. 그 말인즉 룡상은 임금이 앉는 옥좌이고 옥좌의 위세는 곧 임금의 위풍이요, 임금의 위엄은 곧 나라의 위엄이라 임금에게 보다 더 훌륭한 룡상을 만들어올리면 떨어졌던 임금의 위엄이 다소나마 높아지고 더불어 나라의 위세 또한 얼마간이라도 높아지리라는것이였다.

(옳거니!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로다!)

리발사의 아버지는 그날로 새 룡상을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자고 하니 룡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임금의 위세를 돋구고 나라의 기강을 추켜세우는데 보탬이 되겠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는데 또 이런 말이 들려왔다.

임금은 곧 나라와 백성의 령수인만큼 마땅히 조종의 산 백

두산에서 천년 묵은 향나무를 베여내고 향산의 금돌과 금강산의 옥돌을 캐내고 동서해의 물밑에서 산호진주를 얻어내여 룡상을 만들어야 격에도 어울리고 효험도 높을것이라는것이였다.

리발사의 아버지는 즉시에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산발을 헤치고 벼랑을 톺으며 천년 묵은 백두산의 향나무를 찾아내고 향산, 금강산의 바위들을 까내고 땅을 파헤치면서 금돌, 옥돌을 캐냈으며 천길 물속에서 산호진주를 건져냈다. 이렇게 천신만고하여 새 룡상을 완성해서 정히 수레에 싣고 서울로 돌아오니 그만에야 나라는 벌써 왜놈들에게 먹히우고말았었다. 리발사의 아버지는 그만 너무도 절통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열흘동안이나 침식을 전폐하고 통곡하던 리발사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가 망했으니 이 옥좌에 누구를 앉히겠느냐? 차라리 리발관에 가져다놓고 머리나 깎거라. 그러나 명심하거라. 이건 내가 십여년을 두고 심혼을 깡그리 바쳐 만든것이니 절대로 아무나 앉혀서는 안된다. 오로지 이 나라를 이끌고 천하에 빛내일 위인이라고 생각되는분에게만 내여드려라.》

말을 마친 리발사의 아버지는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의 품속에서는 이런 유서가 나왔다.

《아, 절통하구나! 룡상은 있으되 모실 위인이 없고 나라와 백성은 있으되 이끌어줄 령수가 없구나! 이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줄 절세위인은 언제면 나타나실가. …

옥좌에 새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금은 보석들이 별처럼 빛을 뿌릴 때 그것은 위인이 왕림하신 조짐이거니 내 아들아, 네가 그 위인을 실수없이 받들어모셔다오.》

유서를 읽고난 리발사는 아버지의 간절한 념원이 깃들어있는 룡상을 리발관의 별실에 옮기였다.

그는 어느때든지 반드시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줄 걸출한 위인을 옥좌에 모실 날이 올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은 과연 언제이며 그런 위인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리발사는 일구월심 그런 위인을 모실 날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손님들의 머리를 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옥좌에 모실만한 인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말하여 옥좌에 새긴 새들이 우짖고 꽃들이 향기를 풍기는 신기한 일은 한번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가!

리발사가 별실로 들어가니 룡상에 새겨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꿈속에서처럼 은은하게 들려오고 꽃송이들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풍겼으며 기기묘묘하게 박아넣은 진주보석들은 불꽃처럼 반짝반짝 빛을 뿌렸다.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위인이 어디에 나타나셨을가?)

리발사는 저절로 경건해지고 숭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별실에서 나와서 옷차림새를 바로한 다음 손님칸의 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왜 방안이 다른 때없이 밝아지고 가슴이 설레였는지를 대번에 깨달았다.

걸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있는 젊은 손님을 보았던것이다.

존안은 태양이요, 자태는 산악인듯 근엄한데 안광은 천리

도 순간에 꿰뚫을듯 영채를 뿜고있었다.

리발사는 저도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 그분앞으로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어서 들어가시자고 안내를 했다. 기다림칸에 앉아있던 고관들은 리발사가 젊은 손님을 정중히 모셔가는바람에 더욱 기가 질려서 놀라운 눈길로 바라볼뿐이였다.

젊은 손님이 리발실로 들어가자 그자들은 조심스레 그쪽을 곁눈질로 가리키면서 수군거렸다.

《뉘시오?》

《글쎄…》

기다림칸에 앉아있는 작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릴 때 리발실안에 들어선 리발사는 더욱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한없이 겸허소탈하신 젊은 손님은 미처 별실로 안내할사이도없이 지금까지 써오던 보통리발걸상에 스스럼없이 올라앉으시는것이였다.

《아니… 저쪽 별실로…》

황망히 다가가서 말씀올리려던 리발사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세상천지에 이렇게 인품이 뛰여난분도 있단말인가!

고루한 봉건세습에 반발하고 현대류행에 공감하여 길게 땋아늘였던 머리태를 제손으로 잘라버리고는 리발기를 들고 친구들의 머리를 하나, 둘 깎아주던것이 인연이 되여 아주 《까까쟁이》가 되여버린 그는 리조말엽 궁중리발사로까지 되였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임금을 위해 룡상을 만들던 그무렵에도 궁중리발사로 일하였다.

그는 사신일행을 따라 여러곳을 다녀보며 내노라 하는 인

물들과 영웅호걸들, 고위요직의 정객들과 사회활동가들, 이름있는 외교관들과 명성높은 학자들, 신사멋쟁이들과 풍류남아들… 아니 깎아본 사람이 없고 아니 만나본 명인재사들이 없지만 이 젊은 손님처럼 출중하신 인걸을 뵙기는 처음이였다.

왜놈들이 기여든 다음에도 아버지가 만든 옥좌에 앉힐만한 인걸을 갈망하며 상해요, 하바롭스크요 소문난곳은 다 돌아다녔지만 이처럼 뛰여난 인걸은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 지긋지긋한 리발사노릇을 계속하게 되였는데 여기에서도 천황이 파견했다는 무슨 《령사》요, 《툭사》요, 《파견관》이요 하는 거물급의 작자들을 적지 않게 앉혀놓고 떡주무르듯하며 그 모양새를 다스려보았다.

리발걸상에 조용히 앉아서 창문밖 어데인가를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겨있는 손님을 이윽토록 우러르던 리발사는 이분을 별실에 정히 보관해온 걸상에 모시고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 더는 참을수가 없었다.

리발사는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손님에게 정중히 말씀올렸다.

《제가 어리석고 불민하여 위인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그 실수 자못 크오나 너그러이 용서해주소이다.》

그리고는 어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청을 올리였다.

《왜 그러십니까?》

젊은 손님은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리발사를 바라보며 여기도 좋으니 어서 머리를 깎자고 거듭 말하였다.

《여기는 귀인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못됩니다. 어서 가십

시다.》

리발사는 젊은 손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젊은 손님은 리발사가 너무도 절절하게 청하는바람에 할수없이 그가 하자는대로 따랐다.

젊은 손님을 별실로 안내한 리발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써본 일이 없는 《룡상》에 그분을 모셨다.

그분께서 《옥좌》에 앉으시자 방안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새들의 지저귐소리는 더욱더 은은하게 울리였다.

《옥좌》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손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리발사의 마음은 저절로 숭엄해지고 경건해졌다.

리발을 끝냈을 때 귀빈은 정말 수고했다고 거듭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뜨시였다.

순간 리발사는 저도모르게 손님에게 이런 청을 드리였다.

《무엄한 소청이오나 귀빈께서 명함장을 남겨주시면 우리 리발관의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허허… 그거야 어렵겠습니까!》

젊은 손님은 안섶에 손을 넣더니 명함장을 꺼내여 리발사의 손에 쥐여주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가시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고난 리발사는 손에 들고있는 명함장에 눈길을 주었다.

《뉘시오?》

그 순간 고관들도 우르르 밀려와서 리발사의 손에 들려있는 명함장을 들여다보았다.

《?!…》

모두들 눈이 사발만큼이나 커졌다. 명함장에는 《조선인민

혁명군사령관 **김일성**》이라고 씌여있었다.

《**김일성**사령관?!》

리발사도 고관들도 동시에 놀라서 돌부처처럼 굳어졌다.

당시 총독부기관지 《경성일보》에까지 **김일성**장군님의 용모가 출중하다는 기사가 실려 서울장안이 술렁거렸는데 직접 목격하고보니 상상을 초월했던것이다.

《오늘따라 방안이 밝아지고 채운이 서리며 옥좌에 새겨진 새들이 노래한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왕림하실 조짐이였구나! 그러니 장군님은 분명 우리 나라와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실 절세의 위인이시다!》

리발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옥좌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아직도 장군님께서 그 옥좌에 앉아계시기라도 하듯 오래도록 우러렀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린 왜놈들은 전화를 건다, 수사포치를 한다 덤벼쳤지만 그것은 때늦은 소동이였다.

서울장안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여 리발을 하고가셨는데 그이께서 앉으시자 걸상이 옥좌로 변하였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왜놈들을 아연케 하고 인민들에게는 신심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실분은 오로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는 신념이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장수발자국골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곳이면 안도땅이건 장백땅이건 그 어데라 할것없이 이런 노래가 돌아갔다고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엔 새별도 밝다
백두산골짜기는 얼마나 깊은지
왜놈들 들어가면 못나온다

작사자는 알수 없으나 노래는 생겨났고 널리 불리워졌으며 마을로, 거리로 퍼져갔다.

백두산에는 크고작은 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이 천인지 만인지 모른다. 그 헤아릴수없이 많은 골짜기들과 봉우리들에서 왜놈《토벌》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녹아나 무주고혼이 되였는지 그것은 더더욱 알수 없다.

매복에 걸려 녹아나고 기습을 받아 풍지박산이 되고 따라오다가 전멸되고 도망치다가 황천객이 되고…

실로 백두산의 골짜기들은 그대로 왜놈들의 《함정골》이 되고 봉우리들은 왜놈들의 《죽음봉》이 되였다.

어찌보면 울울창창한 천고의 밀림이 아득히 펼쳐져서 무사태평하게 설레이고있는것 같지만 그 푸르고 무성하고 끝간데없는 백두의 밀림은 자기의 깊고도 넓은 품안에 얼마나 위대하고 거세차고 뜨겁게 타번지는 혁명의 불길을 감싸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골짜기들과 봉우리들에서 《토벌》에 미쳐날뛰던 왜놈들에게 파멸의 불벼락을 안기군하였는가.

령산의 골짜기들과 봉우리들과 비탈들은 왜놈의 군대이든 경찰이든 할것없이 자기의 신성한 땅에 어지러운 발길을 들여놓는놈들이면 그 불손한 침입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군하였다.

때문에 일제군경들은 《토벌》에 나서기는 했지만 백두의 울창한 수림속 나무뒤에서 언제 명중탄이 날아와 저들의 가슴을 뚫을지 몰라서 늘 소타고 얼음판을 건너가는 심정이였다.

오죽했으면 한때 《토벌》대를 이끌고 만주의 산발을 메주밟듯했다는 스가와 게이조라는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겠는가.

《<토벌>이란 실상 쫓겨다니거나 피해다니는 과정의 련속이였다. 무서움에 시달리면서 <토벌>을 한다는것은 벌써 거짓말이였다. 나는 <토벌>대장을 3년동안 지내고나니 심장이 작은 바람에조차 바르르 떠는 종이장마냥 얇아졌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였다. 《무적황군》이라 떠드는것은 알쭌한 허세였다.

솔가지에 스치는 바람소리는 **김일성**장군유격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소리같고 떨어져내리는 솔방울은 당장 《꽝》하고 터질 수류탄만 같아서 늘 가슴이 옥죄여들었으니

《무적》이란 말이 어울리겠는가.

더구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천변만화의 술법으로 때로는 하늘의 번개를 휘몰아다 적병들의 머리우에 불소나기를 들씌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잣송이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기여드는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군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하늘에서 우뢰소리가 우릉땅땅거려도 그것이 **김일성**장군님의 노하신 호령소리로 들리고 폭우가 쏟아져 사태가 무너져내리고 사나운 돌개바람이 몰아쳐 나무가지들을 와지끈지끈 분질러버려도 그것이 꼭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리시는 천지조화로만 생각되여서 놈들의 등골엔 얼음물이 흘렀다.

어느해 겨울날이였다.

일제 《토벌》대 대장 나가시마는 졸병들을 거느리고 백두산의 산발들과 골짜기들을 뒤지고있었다.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도무지 승산이 없었다. 《숲속에서 바늘찾기》라는 말이 있듯이 무변광대한 숲속에서 유격대를 어떻게 찾는단말인가.

어느 목재소가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가면 벌써 유격대는 종적없이 사라지고 또 어느 골짜기에서 유격대가 숙영하는걸 보았다는 소리를 듣고 천방지축 달려가면 천막을 쳤던 자리만 남아있을뿐이였다.

꼭 귀신하고 술래잡기를 하는것 같아서 맥이 빠지고 지쳐버린나머지 잠시 숨을 돌리려고 어물거리면 그때엔 또다시 번개같이 나타나서 총알소나기를 들씌워 송장무데기를 만들어놓고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

얻어맞으면서도 따라다니는 신세,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수도 없는 바람을 붙잡아보겠다고 부질없이 헤매는것과도 같은 허무맹랑한 짓에 맥이 빠지고 신물이 났지만 어쩌는수가 없는 일이였다. 군인에게는 《명령》이라는것이 있었던것이다.

그저 어둑시근한 숲속 어데인가에서 《땅》하는 야무진 총소리와 함께 불줄기가 쏟아져나올것만 같은 그 불안만 없었으면 좋으련만…

눈보라가 사정없이 휘몰아쳐와서 볼따귀를 쥐지르기도 하고 차거운 눈가루를 목덜미에 끼얹기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눈사태가 무너져내려서 온 부대를 눈구뎅이속에 처박기도 했다.

깊은 눈속에 묻혀 두더지처럼 기여다니다가 하얀 눈사람이 되여 겨우 뚫고나오면 이번엔 진대나무가 앞을 막았다.

(이것도 **김일성**장군이 도술을 쓰는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갈마들어 놈들의 사지가 굳어졌다.

어느날, 그날도 하루종일 이렇게 불안에 떨며 헤매던 나가시마는 어서 해가 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늘을 벌써 몇번이나 쳐다보았다.

그는 이 하루도 하느님이 도와주어서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시간은 왜 그리도 굼뜨게 가는지…

나가시마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가까운 부락에 내려가서 하루밤 쉴 작정으로 느릿느릿 산비탈을 내렸다.

그런데 이런 속상한 일이라구야… 눈치코치없는 한 졸병놈이 이상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펄쩍 놀라서 소리쳤다.

《대장님, 여기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자식… 못본척할것이지…)

나가시마는 낯을 찡그리고 그리로 걸어갔다.

눈우에는 방금 지나간 발자국이 찍혀있었는데 놀랍게도 송아지가 누웠던 자리만큼이나 컸다.

오랜 경험이 있는 나가시마는 그것이 설피를 신은 유격대원들이 한줄로 서서 자욱을 덧찍으며 행군해간 흔적이라고 단정하였다.

《발자국을 따르라. 기껏해야 여라문명이다.》

나가시마는 졸병놈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대장님, **김일성**장군유격대는 천명, 만명이 행군해가도 발자국은 하나뿐이라는데 일없을가요?》

졸병놈 하나가 겁에 질린 소리를 했다.

실은 나가시마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어 속이 떨리던참이였으나 대장체면에 그런 내색을 할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쳤다.

《왜 겁이 나는가? <대일본제국>의 청년남아가 그래가지고야 무슨 공을 세우겠는가?》

졸병놈은 쫄찍해서 자라목이 되였다.

가도가도 발자국은 한사람이 걸어간듯 하나뿐이였다.

여기저기 지형을 살피기도 하고 군용지도를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발자국을 따라가던 나가시마는 《요씨!》하고 무릎을 쳤다. 발자국이 《마지막골》이라고 부르는 외통골짜기로 들어갔기때문이였다.

량쪽에 깎아지른듯한 벼랑이 솟아있는 이 골짜기로 들어가면 마지막은 또 깎아지른 벼랑으로 막혀버린다. 때문에 되돌아나오지 않으면 더는 어데로 갈수 없는 골짜기여서 그 이름

도 《마지막골》이라 부른다.

이제 골짜기어구만 봉쇄하고 추격해들어가면 유격대는 틀림없이 《마지막》이라고 확신하면서 나가시마는 행군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누구의 《마지막》으로 되겠는지는 아직 누구도 알수 없는 앞으로의 일이였다.

《대장님! … 저거…》

발자국을 발견했던 졸병놈이 또 놀란 소리를 하며 앞을 가리켰다.

굉장히 긴 유격대의 행렬이 골짜기로 들어가고있었다.

그 행렬은 골짜기의 마지막이 막혔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나가시마네가 뒤따르고있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태평스럽게 흘러가고있었다.

대오의 맨앞에는 붉은기가 펄펄 날리고 대원들의 잔등에서는 백포자락들이 커다란 새의 흰 날개마냥 펄럭이였다.

(천명, 만명이 행군해가도 발자국은 하나라는 말이 옳구나!)

나가시마는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자기네 힘만으로는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서뿔리 유격대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제편에서 소멸당하는 그런 바보짓은 하고싶지 않았다.

나가시마는 유격대가 다른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골짜기어구를 봉쇄하는 한편 증원부대를 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로부터 두어시간이 지났을 때 우끼나헌병대장이 이끄는 증원대가 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려왔다.

《유격대가 어데 있는가?》

우끼나헌병대장은 말잔등에 앉은채 황급히 물었다.

《저기…》

손가락으로 골짜기가 막힌 벼랑쪽을 가리키던 나가시마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방금전까지 벼랑밑에 모여앉아서 쉬고있던 유격대가 가뭇없이 사라졌던것이다. 정말 귀신이 곡을 하다가 기절할 노릇이였다.

나가시마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여 눈만 뚜부럭거렸다.

《도대체 유격대가 어데로 갔는가?》

헌병대장이 또 물어서야 나가시마는 변명하듯 지금까지 있은 일을 자초지종 설명하였다.

《개자식! 거짓말쟁이같은것… 당장 유격대를 찾아내랏!》

헌병대장은 약이 올라서 소리쳤다.

나가시마는 헌병대장이 당장 군도를 뽑을것만 같아서 황황히 유격대의 행처를 찾아나섰다.

유격대원들이 쉬고있던곳으로 달려가 살펴보니 송아지가 누워있던 자리만큼이나 큰 발자국이 두개 나있을뿐 다른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분명 몇백명의 유격대원들이 벼랑밑에 앉아서 쉬는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무슨 도깨비조화란말인가. 자기 혼자 보았다면 혹시 잘못 볼수도 있겠지만 눈가진자들은 모두 함께 보았는데 어찌된 감투끈이란말인가.

이때였다. 처음 발자국을 발견했던 그 졸병놈이 또 놀라운 소리를 질렀다.

《대장님, 저기…》

그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곳을 보니 깎아지른듯한 벼랑중턱에 커다란 발자국이 여러개나 찍혀있었다. 그것은 눈우에 나있는 발자국과 크기도 모양도 신통히 꼭 같았다.

나가시마는 유격대원들이 벼랑우로 올라갔다는것을 깨달았다.

(날개라도 달렸단말인가!)

나가시마는 두려운 생각이 휩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빨리 벼랑우로 올라가보라.》

헌병대장이 또 호통질을 했다.

나가시마는 할수없이 허둥지둥 골짜기어구로 되돌아나와서 산기슭을 에돌아 벼랑우로 올라갔다.

그러나 유격대는 그곳에도 없었다.

(도대체 유격대가 어데로 갔단말인가?)

아찔한 벼랑우에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던 나가시마는 자기도모르게 《앗, 장수발자국골이다!》하고 비명을 질렀다.

벼랑우에서 내려다보니 헌병대장을 비롯하여 자기네 군대들이 몰켜있는 골짜기는 신통히도 커다란 발자국모양이였다.

《장수발자국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있는 나가시마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사지가 얼어들었다.

그 이야기인즉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땅을 주름잡고 하늘을 휘저어서 벼락을 내리고 풍우를 휘몰아다가 천만대적을 가랑잎 날려보내듯하시는데 장군님의 발자국이 한번 찍힌 골짜기는 그 모양이 발자국형으로 변해버려서 이런 골짜기를 《장수발자국골》이라고 부른다는것이였다.

이런 골짜기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천명이건 만명이건 상관없이 일만군경모두가 몰살을 당한다.

나가시마는 지금까지 《토벌》을 다니면서 늘 이런 《저승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왼심을 쓰면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먼저 골짜기의 모양새부터 살펴본 다음 들어서군하였는

데 이번에는 그만 스스로 《장수발자국골》에 뛰여드는 실책을 범했던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기만은 날벼락이 떨어지기전에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벼랑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니 하늘이 도운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벼랑우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나가시마는 당장이라도 총알소나기가 저아래 골짜기로 쏟아져내려 자기의 졸병들을 쓸어버릴것만 같아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가 하늘이 깨지고 땅이 뒤집히는것 같은 요란한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벼랑아래 골짜기에 운집해있던 헌병대장을 비롯한 군졸들이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여 갈팡질팡하다가 몽땅 시체로 변하고말았다.

그 정경을 제눈으로 똑똑히 내려다본 나가시마는 자기가 골짜기에서 벼랑우로 빠져나오게 된것은 참으로 천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냥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번하였는가.

나가시마는 조선천지는 물론 중국땅에까지 널리 퍼진 《장수발자국골》에 대한 소문이 진짜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일대는 말할것도 없고 멀리 국내깊이와 드넓은 만주땅에 이런 신기한 발자국을 무수히 새기신다니 《토벌길》이 곧 《지옥길》이 아니겠는가.

나가시마는 지금까지 계속해온 《토벌》의 걸음걸음이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겠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나가시마는 아득히 펼쳐진 수림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황소눈이 되였다.

천리, 만리로 펼쳐진 밀림의 바다우로 붉은기를 휘날리며 유격대의 행렬이 흘러가고있었던것이다.

방금 《장수발자국골》에서 헌병대를 몰살시킨 유격대가 분명하였다. 《**김일성**장군유격대는 밀림의 바다우를 륙지 걸어다니듯한다는 말이 사실이였구나!》하고 나가시마는 얼빠진놈처럼 중얼거렸다.

나가시마의 그런 생각은 겨울이 다 지나간 어느 봄날에 있은 일로 하여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그날도 《토벌》에 내몰린 나가시마는 유격대행렬이 밀림우로 흘러가던 그곳에 가보게 되였다.

(저렇게 아찔하게 높이 자란 수림우로 어떻게 걸어다닐수 있을가?)

이런 생각을 하며 아슬하게 자란 이깔이며 분비나무들을 쳐다보던 나가시마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자란 나무우듬지에 유격대의 낡은 신발들이 걸려있는것을 발견하고 더욱 놀랐다.

그는 그 신발들이 분명 지난 겨울 천리수해우를 흘러가던 유격대의 행렬이 잠시 쉬면서 낡은 신발을 벗어던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것은 눈이 하도 많이 왔던 지난 겨울 유격대원들이 눈우에서 쉬면서 낡은 신발을 벗어던진것인데 눈이 녹으면서 나무우듬지에 얹힌것들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한번 자욱을 찍으시면 <장수발자국골>이 되고 장군님의 유격대원들은 밀림우로도 척척 걸어다닌다는 말은 내가 직접 본 사실이다.》

나가시마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이렇게 말하군하였다.

노래하는 멸악산

산이 노래를 한다면 아마 세상에 그런 신비한 일도 다 있느냐고 놀랄것이다. 그러나 그런 산이 있은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산이 노래를 하는것을 직접 제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제귀로 들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것도 한두사람이 아니라 수천수만명의 사람들이 보고들었다는것이다.

그런 산이 바로 황해북도 린산군에 있는 멸악산이라고 한다.

나라가 해방되기 대여섯해전부터 멸악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처음 그 소리를 듣고는 나무군들이나 숯을 굽는 사람들이 무슨 타령같은것을 하는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여러 사람이 합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혼자서 독창으로 부르기도 하는 노래들은 모두다 씩씩하고 뜻이 깊은 처음 듣는 노래들이였다.

그 노래들은 대부분이 왜놈들은 꼭 망하고 우리 나라는 광복된다는 내용들이였다.

멸악산에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울린다는 말을 들은 왜놈들은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려고 산밑에 있는 마을에 와서 며칠씩 묵으며 귀를 기울이였다.

정말 노래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왜놈들은 분명 처서군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것이라고 생각하고 헐레벌떡 산으로 기여올랐다. 그러나 방금까지 들려오던 노래소리는 왜놈들이 다가가면 뚝 그쳐버리고 키높이 자란 나무들만 태연스레 설레이고있을뿐이였다.

(참 이상하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는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울려왔을가?)

왜놈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돌아서군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산아래에 이르기도전에 노래소리가 또 울려오군하였다. 약이 오른 왜놈들은 산을 올려다보며 투덜거렸다.

《이건 우리를 놀리는거야? 이번엔 소리나는곳을 멀리에서부터 빈틈없이 둘러싸고 살금살금 조여들어서 기어이 알아내야지.》

왜놈들은 삭정이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걸음한걸음 기여올랐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왜놈들이 그렇게도 애를 박박 쓰며 알아내려고 하던 《비밀》을 한 농군이 직접 제눈으로 보고 알게 되였다.

홍창세라는 농민이 산에 올랐다가 아름드리나무들이 노래를 하는것을 똑똑히 보았던것이다.

어떻게 되여 어떤 기회에 그가 그런 희한한것을 보게 되였는지를 이야기하자면 멀리 옛날로 거슬러올라가야 할것같다.

멸악산의 원래 이름은 《우산》(소산)이였다고 한다. 마치도 큰 소가 구유에 머리를 숙이고 여물을 먹는듯한 모양이여

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이 산에 절간들이 생기면서 《우산》이라는 본명은 《멸악산》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였다고 한다. 《악한것을 없애버리는 산》이라는 뜻이다. 절간들이 들어앉고 빤빤머리중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새로 붙여준 이름이였다.

악한것을 없애버리는 산—멸악산, 이름이야 얼마나 좋은가.

산의 모양새에 바탕을 둔 《우산》이라는 본명은 어느덧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망각의 락엽속에 묻혀버리고 《멸악산》이라는 두번째 이름만이 전해져서 나중에는 본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삭막해져서 아주 없어질 지경에 이른 본래의 이름을 완강히 지켜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홍창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멸악산밑인 린산군 지택리에 가면 홍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홍씨들이 많이 살고있는 마을이여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바로 이 홍촌에 홍창세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그는 고집스레 멸악산을 우산이라고만 불렀다고 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의 앞에서 멸악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면 화를 버럭 냈다.

《내앞에서 멸악산, 멸악산 할텐가? 우산이라고 부르게, 우산!》

어찌하여 홍창세가 이제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만 우산이라는 본명을 그렇게도 고집스레 지켜주고있는것일가? 우산이라는 이름과 그 어떤 남다른 인연이라도 있단말인가? 그런것도 아니였다. 하다면 무슨 까닭에 우산이란 이름을 남달리 사랑하는것인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온갖 악을 없애버린다는 멸악산이 생겼지만 어찌된 일인지 악한것들이 멸하기는커녕 더욱 성하여 나중에는 선한것을 누르고 타고앉아 활개를 치기만하였다.

벼슬자리도 악한자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살기도 악한자가 더 잘산다.

결국은 악한자들이 총명예지롭고 뛰여난 인간으로 떠받들리우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바보취급을 받는다.

잘살고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려면 량심이요, 도덕이요 하는것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남을 타고누르고 속여넘기고 욕심을 부리며 그악을 떨어야 한다는것이 인생의 어쩔수 없는 리치처럼 인정되는판이다.

세상에 악한놈으로 말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역적보다 더 악한놈이 어데 있으며 남의 나라를 빼앗고 남의 겨레를 살륙하는놈들보다 더 잔악한놈이 어데 있단말인가.

헌데 리완용이요, 송병준이요 하는 천하역적들이 나타나서 백의민족과 삼천리금수강산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섬나라 오랑캐들이 칼부림을 하여 피의 강이 흐르게 만들어서 가슴이 찢기고 복통이 터져 태질을 해도 씨원치를 않은데 제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관세음보살을 웨쳐도 그놈들의 털끝 하나 어찌되지 않으니 도대체 멸악이란 무슨 당치 않은 말이냐.

(멸악산! 멸악산! 악한놈을 한놈도 없애지 못하면서도 뻐젓이 멸악산이라 이름달고있는 빈소리쟁이 산! 내 결단코 너를 멸악산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홍창세는 이렇게 다짐하고 그때부터 멸악산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든 자기앞에서 멸악산소리를

하면 벌컥 화를 내군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멸악산이라면 부모죽인 원쑤처럼 대하던 홍창세가 해방되기 몇해전 어느날부터는 지금까지 옹고집을 써오던 태도를 돌변하여 우산이라고 부르면 벌컥 화를 내며 멸악산이라고 부르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였으니 이건 또 무슨 변덕이란말인가.

그런데 알고보니 그 까닭인즉 홍창세가 변덕스러운탓도 아니요, 이랬다저랬다 하는 주대없는 사람이여서 그런것도 아니였다.

여기에도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왜놈들이 조선을 집어삼킨지도 어언간 30여년이 썩 지나간 어느날이였다.

홍창세는 이미 쉰고개를 넘긴 나이였지만 지게를 지고 멸악산으로 오르고있었다.

1941년 12월 8일에 하와이에 있는 미해군기지를 불의에 공격하는것으로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일제는 늘어나는 군수물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선인민들의 고혈을 더욱 모질게 짜냈다.

나중에는 놋바리, 놋숟가락까지 걷어가다못해 광솔기름을 짜내라고 다그어대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홍창세도 할수없이 광솔을 따러 나섰다.

《창세아저씨, 광솔따러 가지 않을래요?》

아침에 뒤집에 사는 귀득이녀석이 찾아왔었다.

《어데로 가자느냐?》

홍창세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물었다.

등에 지게를 지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인 귀득이는 겁석

인사를 하고는 무심중 이렇게 대답했다.

《어디긴 어디겠어요, 멸악산이지.》

그러자 홍창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녀석, 아직도 내앞에서 멸악산소리를 할테냐? 그 악귀 같은 왜놈들을 한놈도 없애치우지 못하는 허재비산인줄 뻔히 알면서두 혼맹이가 빠졌다구 멸악산이라 부른단말이냐?》

홍창세는 대통으로 문지방을 두드리다못해 벌떡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귀득이는 그만 질겁을 해서 내뛰고말았다.

홍창세는 이렇게 귀득이를 쫓아버리고도 한참이나 풀떡거리다가 저혼자 구유골로 떠났다.

구유골은 멸악산 동쪽 골짜기이다.

그는 산으로 오르면서도 가슴속에 치미는 울기를 누르지 못해 씨근거렸다.

(멸악산아, 네가 진정 악한것을 멸하는 산일진대 어찌하여 저 섬오랑캐놈들을 가만 놔두느냐? 젊은이들은 다 뽑아다 총알받이를 만들구 기름진 옥백미는 《공출》로 다 빼앗아가구 이제는 이 나라 소나무에서 송진까지 빼내려하니… 아, 멸악산아, 너도 이 나라, 이 땅에 솟은 산일진대 명실공히 멸악을 해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산으로 오르던 홍창세는 문뜩 걸음을 멈추었다.

어데선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기때문이였다.

홍창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멸악산숲속 어데서인가 분명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들이 노래를 부르는지 확인해봐야지.)

홍창세는 지금까지 왜놈들이 알아내지 못한것을 혹시 자기가 알아낼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노래소리가 나는 쪽으로 부지런히 톺아올랐다.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자는 노래도 들려오고 멀지 않아 일제는 망하고 나라가 해방된다는 노래도 들려왔다.

홍창세는 지금까지 멸악산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어떤 처서군들이나 숯쟁이들이 모여서 제 설음에 겨워 신세타령을 하거나 한잔 술에 취해서 한곡조씩 넘기는것이겠지 하고 시들하게 여겨왔다.

그런데 정작 산속에 들어와서 노래소리를 듣고보니 떠돌아가는 소문처럼 진짜로 멸악산나무들이 노래를 부르는지 제눈으로 직접 보고싶은 생각이 치솟았다.

그래서 노래소리가 나는곳을 가늠하고 한치한치 다가갔다.

멀지 않은곳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왔다.

에헤라 좋구나 대들보감이로다
에헤라 좋구나 기둥감이로다
이 나무 베여서 새집을 짓고
해방된 세상에서 잘살아보세
얼씨구 절씨구 닐리리야
백두산마루에 장수별 떴네

《어허,이건 처서군들이 나무를 베면서 부르는 천박스러운 노래가 아닌걸!》

홍창세는 《백두산마루에 장수별 떴네》라는 구절을 들었

을 때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는것을 느꼈다.

홍창세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있는지 알고싶어서 노래소리가 울리는곳으로 숨가쁘게 치달아올랐다. 노래소리는 더욱 똑똑하게 들려왔다.

삼발처럼 촘촘히 들어선 아름드리나무들사이로 멀지 않은 앞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것이 보였다.

눈정기를 모아 살펴보니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 낯선 군대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있었다.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에로 재빨리 옮겨가면서 이상한 군사들이 있는곳으로 은밀히 다가가던 홍창세는 그만 한곳에 못박히고말았다.

아름드리나무뒤에 숨어서 얼굴 반쪽만 내밀고 살펴보니 산뜻한 군복에 빨간 오각별이 빛나는 모자를 단정히 쓰고 다리에는 행전을 가쯘히 친 젊은 군대들이 열정에 넘쳐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벌목부들과 숯굽는 사람들, 부대기군들과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그들과 한데 어울려 흥이 나서 노래를 따라부르고있었다.

키큰 젊은이 하나가 앞에 나서서 팔을 휘저으며 선생노릇을 하고있었다.

한참이나 신이 나서 노래를 배워주던 그는 이렇게 웨쳤다.

《여러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노래가 있는곳에 승리가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왜놈들이 발악을 한다고 기가 죽어서 살지 말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가슴을 쭉 펴고 사십시오. 우리의 앞날은 대낮같이 밝습니다. 우리에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십

니다. 여러분! 노래를 배우려면 언제든지 여기로 오십시오. 그러면 멸악산의 나무들이 노래를 배워줄겁니다.》

이윽고 군대들은 사라졌다. 처서군들과 부대기군들, 숯쟁이들도 제갈데로 가버렸다.

밀림속엔 솨솨 바람소리만 들렸다. 홍창세는 갑자기 허전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방금 군대들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던곳을 이윽토록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라구야… 사람은 한명도 없는데 여럿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그곳에서 계속 들려오는것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들이 노래를 하는것이였다.

너무도 이상해서 슬금슬금 다가가니 푸른 가지를 하늘높이 펼친 아름드리소나무에서도 노래소리가 울리고 구름을 꿰지를듯 아아하게 치솟은 이깔나무, 전나무에서도 노래소리가 울렸다. 잎이 큰 나무들은 활짝 펼친 가지들을 늠실늠실 흔들며 춤까지 추었다.

홍창세는 이 나무, 저 나무를 둘러보며 노래를 따라불렀다.

이때였다. 산속에서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통보를 받고 왜놈들이 또 헐레벌떡 달려왔다.

홍창세는 얼른 몸을 피하고 나무뒤에 숨어서 놈들의 거동을 살피였다.

나무들은 어느새 노래를 뚝 그치고 천연스레 바람소리만 솨솨 낼뿐이였다.

《바로 이 근방에서 노래소리가 났습니다.》

사냥군인줄 알았던 밀정놈이 경찰서장에게 노래가 울리던곳을 가리켰다.

《나무들을 몽땅 찍엇!》

서장놈의 지시가 떨어지자 경찰놈들은 도끼와 톱을 가지고 나무들을 찍기 시작하였다.

홍창세는 노래를 부르던 나무들이 결단나는것이 가슴아팠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나무를 찍는 왜놈들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또 신기한 일이 생겨났다.

나무들이 와지끈지끈 넘어가면서 왜놈들을 때려눕히는것이였다. 재빨리 피해달아나는놈은 따라가서 내려덮치고 나무밑에서 어물거리는놈들은 그자리에서 지짐짝처럼 만들어버렸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위험한 이 일에 이고장 인민들을 내몰았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데 있는가. 나무들은 넘어지면서도 사람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놈들의 등살에 못이겨 나무베기에 끌려나온 늙은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면 길을 비켜주기까지 하는것이였다.

(우리 백성들을 천금같이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백두산대장수님의 술법이 깃든 나무들인데 우리 백성들을 상하게 할리야 없지!)

홍창세는 저절로 가슴이 벅차져서 숨결까지 높아졌다.

왜놈들은 찍어낸 통나무들을 평산역으로 실어내갔다. 그런데 역구내에 쌓아놓은 통나무들이 또 왜놈들만 사라지면 노래를 불렀다.

왜놈들은 그만 경악실색하여 통나무들을 제재기로 켜서 책걸상을 만들고 가구류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책걸상을 들여놓은 교실들에서는 노래소리가 합창으로 울려서 온 학교가 들썩거리고 농짝이며 찬장따위의

가구류들을 들여놓은 집집에서는 또 그것들이 노래를 불러서 온 집안, 온 마을이 노래로 흥성이였다. 놈들은 대경실색했다.

더더욱 난사인것은 멸악산에는 노래를 부르는 나무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수가 없고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도 천인지 만인지 알수가 없는것이였다.

그러니 나무군들이 산에 들어갔다가 지팽이 하나 꺾어와도 그게 노래를 배워줄수 있고 소몰이군들이 회초리 하나를 꺾어와도 그것이 노래를 퍼뜨릴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날엔 온 마을, 온 나라에 노래가 퍼질것이였다.

하지만 무슨 뾰족한 방책이 있는가.

왜놈들은 멸악산에 들어가기를 지옥에 가는것만큼이나 두려워했다.

상판놈의 강박에 못이겨 기여들었던놈들은 영낙없이 황천객이 되군하였다. 포수로 변장을 하고 기여들었던놈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나무들을 알아내려고 산속을 싸다니다가 칡넝쿨에 발목이 휼쳐서 거꾸로 매달린채 시체로 변하고 약초캐는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기여들었던놈은 다래넝쿨에 모가지가 휼쳐져서 데룽데룽 매달려 송장이 되였다.

멸악산의 나무들이 모두 왜놈들을 매다는 교수대로 변하는 판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나무들에도 넋을 안겨주시고 노래도 배워주시여 왜놈들과의 싸움에 나서게 하신다.》는 말은 자꾸자꾸 퍼졌다.

홍창세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져서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 **김일성**장군님! 고맙습니다.》

그는 이제야 멸악산이 백두산의 지맥에서 솟아난 조선의 산으로서 진짜 멸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지켜오던 자기의 립장을 버리고 《우산》이라는 이름대신 《멸악산》으로 다시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멸악산아, 너는 **김일성**장군님 덕분에 진짜배기 멸악산으로 태여났구나! 예로부터 명산이 있어 명인이 태여난다 하더니 아니였구나. 명인이 있어 명산이 태여나고 빛나는것이구나!》

홍창세는 그날부터 태도를 돌변시켜 누구든지 멸악산을 우산이라 부르면 벌컥 화를 냈다.

갑작스레 달라진 그의 태도에 놀라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지면 그는 자기가 멸악산에서 본것을 성수가 나서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멸악산이 노래를 부른다》는 소문과 함께 이제는 이 산, 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명실공히 《멸악산》으로 되였다는 말이 멀리까지 퍼졌다.

최근에 이곳에서 구호문헌들도 많이 발굴되고 해방직전에 《멸악산반일결사대》가 조직되여 활동한 사적자료들이 발굴된것으로 보아 《노래부르는 멸악산》에 대한 전설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욱에 바탕을 두고 태여나서 전해지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뜬소문이 아니였구나》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나오시여 총독놈과 담판을 하셨는데 어찌나 사리정연하고 사개가 딱딱 맞게 들이대시는지 총독놈이 꼼짝을 못하고 진땀을 빼며 쩔쩔 맸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고급승용차를 타시고 서울바닥을 휩쓸고다니시는데 왜놈군경들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가도 보지를 못한대.》

이런 소문이 어른들속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철부지아이들속에서까지 돌아가서 서울장안이 법석 끓던 1940년대초였다.

서울에서도 제일 크고 급이 높기로 소문난 어느 호텔주인도 이런 소문을 듣고는 그게 정말일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그런 조화를 부릴수 있겠느냐는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인물이 뛰여나게 잘난 젊은이들 몇이 호텔주인을 찾아왔다.

동양은 물론이요, 저 멀리 서방의 사절들과 저명한 인사들, 유명무명의 방문객들을 수없이 맞이하고 봉사를 해온 호텔주인은 첫눈에 이 젊은이들은 매우 지체가 높고 유력한 고관대

작의 아들들이거나 백만장자의 아들들일거라고 짐작하고 친절을 다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과 같은 점잖으시고 명망이 높으신분들을 저의 호텔에 모시게 되여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방을 드릴가요?》

《이 호텔에서 최고급호실을 주십시오.》

젊은이들은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짐작이 틀리지는 않았어. 분명 대단한 재산가나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호텔주인은 연방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대답하였다.

《예예. 특등호실을 드립시다. 어서 가십시다.》

《아니… 귀한 손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우린 그분의 보좌관들입니다.》

젊은이들은 특등호실을 요구한것은 자기들이 들려고 한것이 아니라 그 귀한분을 모시기 위한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뭐뭐, 보좌관?)

호텔주인은 깜짝 놀랐다. 보좌관들이 이렇듯 인끔이 높고 인물이 뛰여났을진대 그들이 모시는분은 얼마나 출중무비하겠는가!

호텔주인은 급사를 불러서 여직 한번도 손님을 넣은적이 없는 특등호실문을 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호실정돈을 잘하라고 덧붙였다.

잠시후였다. 호텔앞에 고급승용차 한대가 와서 멎고 손님 한분이 내렸다.

먼저 와서 호실을 부탁하던 젊은이들이 달려가 인사를 하

고 안내를 하였다.

호텔주인은 천천히 걸어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보다가 넋을 잃고 굳어졌다.

현관홀이 갑자기 해가 뜨듯 환해지고 창문들도 벽들도 더욱 밝아지는것 같았기때문이다.

존안은 해님이요, 두눈은 새별인데 구척장신의 름름한 체구와 제왕들도 무색케 할 듬직한 몸가짐! 하늘나라의 신선인가, 아니면 전설속의 호걸인가!

숱한 고관대작, 명인재사들과 재산가요, 정객이요 하는것들을 받아들여 친절봉사를 해주었건만 이렇게 뛰여난분은 배꼽 떨어져서 처음이였다.

호텔주인은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다.

《귀한 손님을 저의 호텔에 모시게 되여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이의 말씀 또한 얼마나 친절하고 점잖으신가!

《며칠동안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집떠난 길손에게는 려관이 곧 집인셈인데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호텔주인은 어쩐지 눈물이 솟구쳤다.

조금만 벼슬자리가 높아도 제집 하인에게 하듯이 호령질이 여반장이요, 돈푼이나 있는자들은 또 돈많은 재세를 하며 생트집이 례상사여서 밸이 뒤틀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려관업을 하자니 꾹 참고 속에 없는 웃음도 짓고 굽신거리기도 하며 살아온 인생인데 자기 수고를 그렇게도 높이 쳐주시니 과연 이분은 누구이실가?

호텔주인은 그때부터 《귀빈》에 대한 접대를 자기가 직접

맡기로 결심하였다.

손님들은 아침이면 어데론가 떠나가고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다.

《귀빈》은 보좌관젊은이들하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무엇인가 당부하기도 하였다.

어느날 저녁식사가 끝난지 이슥해서였다. 차를 끓여가지고 귀빈의 방으로 다가가던 호텔주인은 방안에서 새여나오는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변신술이든 둔갑술이든 한가지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뭐 변신술, 둔갑술?)

호텔주인은 호기심이 잔뜩 동하여 빠금히 열려진 문짬으로 안을 엿보았다.

《허허… 그건 왜 갑자기 보여달라는거요?》

《축지법이랑, 승천입지랑 별별 술법을 임의대로 쓰신다는데 우린 말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그럽니다.》

보좌관들은 마치도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졸라댔다.

《귀빈》은 옛말을 해달라고 졸라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아버지같았다.

호텔주인은 가슴이 쿵쿵 뛰고 온몸이 긴장해졌다.

(백두산에서 왜놈들과 싸우신다는 **김일성**장군이 《축지법》도 쓰고 《승천입지》도 한다더니 그런 인걸이 세상에 또 있는가? 혹시 이분이 **김일성**장군이 아닐가? 서울에 나와다니신다는 소문도 돌고있는데…)

호텔주인도 이름난 도사들이 변신술, 둔갑술 등 여러가지 술법을 쓴다는 말은 들었는데 직접 본적은 없어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좌관들이 더 떼를 썼으면 하고 은근히 빌었다.

그런데 이런 행운이라구야.… 《귀빈》이 보좌관들의 청을 들어주겠다는게 아닌가.

《허허… 그럼 한번 보여줄가. 다들 담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눈을 꾹 감고있소. 내가 열까지 세면 눈을 뜨고 나를 찾아보오.》

《귀빈》이 이렇게 말하자 젊은 보좌관들은 담벽을 향해 돌아서서 눈을 꾹 감고 셈세기를 하였다.

하나, 둘, 셋…

호텔주인은 《귀빈》이 어떻게 도술을 부리는가 보려고 숨을 딱 죽이고 눈정기를 모았다.

그리고 자기도 속으로 《하나, 둘, 셋…》하고 셈세기를 하였다.

《귀빈》은 《열》하고 세는 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말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호텔주인은 문짬에 눈을 댄채 넋을 잃고 굳어져버렸다.

《자, 이제는 눈을 뜨고 나를 찾아봐라.》

이윽고 《귀빈》의 이런 말소리가 울렸다.

젊은 보좌관들은 눈을 뜨고 돌아서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두리번거렸다.

《귀빈》이 온데간데 없었기때문이였다.

보좌관들은 옷장이며 벽장이며 책상안이며 방안을 살살이 뒤지였다.

그러나 귀빈은 어디에도 없었다.

보좌관들은 그만 손을 들었는지 《어디에 숨었습니까? 이젠 나오십시오. 우리 재간으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 순간 보좌관들의 앞에 《귀빈》이 불쑥 나타났다.

보좌관들은 《야!》 하고 탄복하였다. 문짬으로 안을 엿보고있던 호텔주인도 속으로 《야!》 하고 탄복하였다.

《허허…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모르더구만.》

《귀빈》은 유쾌하게 웃었다.

《어디에 숨으셨댔습니까?》

《무엇으로 변했댔습니까?》

보좌관들은 마치도 요술사에게 그 비결을 대달라고 조르듯이 《귀빈》의 팔에 매달렸다.

《허허… 그저 몸이 보이지 않게 하는 술법을 쓰구 여기에 서있었지. 나를 찾아돌아가는 동무들을 슬슬 피해다니면서…》

《그럼 어제도 그렇게 몸을 안보이게 하구 총독부에 들어가셨댔습니까?》

《허허… 그렇게 했지. 오늘처럼 몸을 안보이게 하구 들어가 총독놈곁에 서있었지. 그랬더니 우리 항일유격대를 소멸할 작전을 토의하고있지 않겠소. 내가 곁에서 다 들여다보고있는줄도 모르고 작전이라는걸 토론하고는 비밀이 새나가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참가했던놈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손도장까지 받아내더군. 어찌나 우스운지 하마트면 소리내여 웃을번했소. 허허…》

《우리한테도 그런 술법을 배워주십시오.》

보좌관들은 응석을 부리듯 졸라댔다.

《그래그래, 배워주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서너가지만 배

우기요.》

《귀빈》은 사랑스러운 자식들과 약속하듯 새끼손가락까지 걸었다.

다음날부터 《귀빈》은 보좌관들에게 도술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솔잎으로 군사를 만드는 법,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법, 땅속에 잦아드는 법…

호텔주인은 처음에는 저혼자 살금살금 다가가서 엿보다가 나중에는 직원들한테까지 발설을 하여 여럿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짬으로도 들여다보고 열쇠구멍으로도 들여다보았다.

《저렇게 도술에 능하신분이라면 백만대군도 두려울것 없겠구나!》

《정말이야. 불속에서도 물속에서도 문제가 없겠어요.》

그들은 감동에 넘쳐 이렇게 속삭이였다.

며칠후 손님들은 호텔을 떠나가게 되였다.

《며칠동안 신세를 졌는데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떠나는것이 례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 명함장이니 받아주십시오.》

《귀빈》은 안주머니에서 명함장을 꺼내여 호텔주인에게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귀빈을 우리 호텔에 모셨던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오래도록 자랑하겠습니다.》

호텔주인은 두손으로 명함장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대뜸 커졌다.

명함장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이라고 씌여있지 않는가.

명함장에서 눈길을 들고 바라보니 어느새 《귀빈》은 승용차를 타고 멀어져가고있었다.

《아, **김일성**장군님!》

호텔주인도 직원들도 마음속으로 불러보고 또 불러보았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뵈왔고 그이께서 쓰시는 술법을 제눈으로 똑똑히 본 그들은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가장 뛰여난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호걸중의 호걸이시라고 탄복하였다.

총독부에서는 극비밀리에 토론된 작전내용이 유격대에 알려졌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원인을 찾느라고 소동을 피웠다.

호텔주인과 직원들은 그 내속을 알고있기때문에 웃음이 터지는것을 겨우 참았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호텔주인과 직원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서울시민모두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삼백서른가지 술법을 능사로 쓰신다는것이 그저 돌아가는 소문이 아니라 확고한 사실이라고 굳게 믿게 되였으며 이런분이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기때문에 일제는 꼭 망하고 나라는 틀림없이 해방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적군에게도 령을 내리시다

옛 병서에 이르기를 《적군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줄 아는 장수가 진짜 명장이다》라고 했다.

무릇 싸움이란 힘과 힘의 대결인 동시에 지략과 지략의 대결인즉 제 군사를 잘 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적군까지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수 있다면 그야말로 백전백승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제 군사야 령을 내리고 군률로 다스리면 그만이지만 적군이야 어찌 군령이나 군률로 움직일수 있겠는가. 이는 오로지 수를 쓰고 신묘한 술법을 써야만 가능한것이니 뛰여난 지략이 없이는 아니될 일이다.

이런 리치로 보면 천변만화의 전술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줌안에 넣고 쥐락펴락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명장중의 명장이라 아니 할수 없다. 변화무쌍하고 기기묘묘한 전술로 어떤 때는 왜놈들이 장마철에 구름모이듯 하게도 하고 어떤 때에는 돌개바람에 락엽 흩어지듯 헤쳐지게도 하고 때로는 제발로 함정골에 기여들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제놈들끼리 죽기내기로 싸우게도 하시여 어찌보면 왜놈들이 꼭 장군님의 령에 따라 움직이는듯싶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장군님은 적

군에게도 령을 내리시는데 왜놈들은 코꿰인 송아지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며 그저 장군님의 령대로만 움직인다》는 전설이 수없이 생겨났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보기로 한다.

1. 수비대장에게 보낸 명령서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어느 성시를 포위공격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반일부대와 힘을 합쳐 왜놈들을 족침으로써 조중인민의 우의와 단결을 더욱 두터이 하고 반일부대병사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기 위하여 조직된 이 성시공격전투에는 수천명의 반일부대병사들도 참가하였다.

성시는 마치도 두개의 안경알이 코걸이에 의해 련결되여있듯이 두개의 집단부락이 강을 사이에 두고 큰 다리로 련결되여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시를 《안경성시》라고 불렀다.

성시공격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동쪽 《집단부락》을 맡고 반일부대는 서쪽 《집단부락》을 맡게 되였다.

비유해 말해서 조중 두 부대가 각각 《안경알》을 하나씩 맡았던것이다.

조중 두 부대는 저마끔 자기가 맡은 부락을 은밀히 포위한 다음 신호가 오르면 동시에 들이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먼저 신호를 올리기로 한 반일부대쪽에서 감감 소식이 없었다.

온밤을 꼬박 새우며 기다렸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도 반일부대쪽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날이 활짝 밝아서도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 때에 반일부대쪽에서 **김일성**장군님께 련락이 왔다.

반일부대사령이 보낸 편지에는 왜놈들이 지하실과 포대안에 들어박혀있기때문에 공격을 할수가 없다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그래서 **김일성**장군님께 도움을 바란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곧 반일부대사령이 있는데로 가시였다.

지형지물들을 리용하여 매복해있던 반일부대병사들은 **김일성**장군님을 기대에 찬 눈길로 우러러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이께선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왜놈들한테 지하실에서 나오라고 명령할수야 없지 않는가?)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밖으로 나왔다가는 총알벼락을 맞고 목숨이 날아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놈들이라 겨우 총구나 내밀고 지하실이나 포대에 박혀있는판인데 그놈들을 무슨 수로 끌어낸단말인가? 아마 목을 매서 끌어당겨도 안나오겠다고 뻗디딜것이다.

반일부대사령과 그의 병사들은 이런 생각만을 하고있었다.

망원경으로 적진을 살피시던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반일부대사령을 안심시키시였다.

《근심할것은 없습니다. 왜놈들이 밖으로 나와 정렬하게 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그게 어디 우리 군사들이라구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일부대사령은 장군님의 말씀을 잘 리해할수 없어서 어리둥절해졌다.

《허허… 마음을 놓으십시오. 지하실, 포대, 전호… 각종 은폐지에 들어가있는 모든 왜놈들이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밖으로 끌려나와 정렬하도록 수를 써봅시다.》

《수를요?!》

반일부대사령은 점점 더 알수 없어서 장군님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하얀 종이 한장을 꺼내시더니 무엇인가 써서 전령병에게 주시였다.

(어쩌시자는걸가? 김사령은 별별 도술을 다 쓰신다더니 혹시 어떤 술법을 쓰시려는가?)

반일부대사령은 의혹과 호기심이 가득 실린 눈길로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고 달려가는 전령병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장군님께서는 반일부대사령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신듯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치치전술… 다시말해서 꿩으로 다스리는 전술을 쓰자는 겁니다. 하늘높이 날아다니는 매란놈을 얼핏 생각하면 잡기 힘들것 같지만 치치술법을 쓰면 식은죽먹기입니다. 살아있는 꿩을 넣은 조롱을 적당한곳의 나무가지에 걸어놔둡니다. 물론 조롱곁에는 여러개의 옹노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하

늘높이 빙빙 날아돌며 먹이를 찾던 매란놈이 꿩을 먹어보겠다고 조롱에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꿩을 먹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던 매란놈은 마침내 옹노에 발목이 걸려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장군님께서 말씀을 끝내시기 바쁘게 전령병이 사라진쪽에서 뜻밖에도 꿩 한마리가 《꿔겅꿔겅》 소리를 내며 왜놈병영쪽으로 날아가는것이였다.

《아! 김사령께서 도술을 쓰신다더니 정말이였구나!》

반일부대사령도 병사들도 일시에 감탄을 터뜨렸다.

왜놈의 병영이 있는데로 날아간 시뻘건 장끼는 상공을 한바퀴 돌더니 병영들의 창문가를 스칠듯이 날기도 하고 땅을 스칠듯이 날기도 하면서 별별 재간을 다 부렸다.

《저게 뭐야? 장끼란놈이구나!》

포대의 작은 구멍으로 머리를 내민 왜놈 병사 하나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에서 왜놈들의 낯짝이 나타났다.

《야, 그놈 크기도 하다.》

《그놈 잡아서 술안주 했으면 좋겠다.》

구멍으로 낯짝을 내민놈들이 떠들썩 고아대자 수비대장 호리모도놈이 머리를 쑥 내밀었다.

《놔두라, 내 솜씨를 보여줄테다.》

수비대장놈은 곧 쌍알배기 사냥총을 꼬나들었다.

《탕! 탕!》

총소리와 함께 장끼는 땅에 떨어졌다.

《맞았다!》

환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장끼는 날개를 상했는지 푸드덕거리면서 마당을 뛰

여다니기 시작했다.

《잡아라!》

호리모도의 웨침소리와 함께 왜놈들이 마당으로 뛰여나와 장끼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

장끼는 잡힐듯말듯 하며 재빨리 달아났다. 어느새 왜놈들이 몽땅 뛰여나오고 포대안에는 호리모도 혼자 남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잡아라! 잡아라! 밥통같은것들, 날개부러진 꿩도 못잡는단말인가?》

이렇게 소리치며 등이 달아서 안절부절을 못하던 호리모도놈도 마침내는 밖으로 뛰여나오고말았다.

《참으로 김사령님의 술법은 신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왜놈들이 김사령의 령을 받구 몽땅 기여나왔는데 한바탕 족쳐대봅시다.》

망원경으로 성안을 살피던 반일부대사령은 너무도 신비스럽고 놀라와서 장군님을 우러러보며 말씀올렸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제 수비대장놈이 졸병놈들을 마당에 정렬시킬겁니다.》

《?!》

반일부대사령은 그만 더 말을 못하였다.

지하실과 포대안에 박혀있던놈들을 밖으로 끌어낸것만도 놀랍기 그지없는 조화인데 정렬까지 시키다니…

장군님의 술법에 너무도 탄복한 반일부대사령은 이제는 모든것을 그이께서 하시는대로 따르리라는 생각뿐이였다.

장끼를 잡으려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한참이나 따라다니던 왜놈들은 갑자기 뚝 멈춰서고말았다. 장끼란놈이 어

데로인지 홀까닥 사라지고말았던것이다.

《누가 장끼를 감추었는가?》

호리모도는 졸병놈들중 어느놈이 장끼를 잡아서 재빨리 감추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졌다. 눈이 퀭해진놈들은 누구 하나 대답을 못하였다.

저마다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누가 감추었는지 내놓지 않겠는가?》

이놈저놈을 쏘아보며 따지던 호리모도놈은 드디여 이발새로 내뱉았다.

《좋다. 소대별로 정렬하랏!》

졸병놈들은 당장 날벼락이 떨어질것만 같아 허겁지겁 모여들어서 줄을 맞춰 정렬하였다.

《어느놈이 꿩을 챘는가?》

호리모도놈은 줄지어 서있는 졸병놈들앞에 버티고 서서 눈알을 부라리였다.

《제가 꿩을 덮치기는 했는데…》

축구문지기로 소문난 한놈이 주저주저하며 나섰다.

《그런데 꿩은 온데간데 없어지구 손에 이런것이 쥐여져있었습니다.》

《축구문지기》놈은 제비꼬리처럼 접은 쪽지편지 하나를 호리모도앞에 내놓았다.

《그게 뭔가?》

호리모도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종이쪽지를 빼앗듯이 가로채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천천히 펼쳤다.

순간 그는 눈알이 튀여나올만큼 놀랐다. 그것은 뜻밖에도 한명도 빠짐없이 병졸들을 마당에 정렬시킬데 대한 **김일성**장군의

명령서였던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김일성**장군의 명령대로 포대와 지하실에서 몽땅 나와서 마당에 정렬하였구나!)

호리모도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곧 깨달았던것이다.

당장 유격대의 몰사격이 쏟아질것만 같아 온몸이 얼어들었다.

《모두 자기 위치롯!》

이렇게 소리치려는 순간이였다.

《땅, 땅, 따따따… 뚜루룩…》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듯한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지고 총알소나기가 터졌다.

망원경으로 성안을 살피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던것이다.

왜놈들은 눈깜빡할사이에 전멸되고말았다.

반일부대사령과 병사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만세를 웨쳤다. 그 소리는 하늘땅을 흔들었다.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다. 김장군 만세!》

《**김일성**장군님은 적군에게도 령을 내리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그들은 감격에 목이 메여 이렇게 웨쳤다.

이리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적군에게도 령을 내리신다》는 전설이 생겨나서 널리 전해졌다.

2. 《꼬량토벌대》

일본의 이름있는 기자 다까기 다께오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40년 4월에 들어서면서 일본군 연길헌병대의 조사보고서가 <사상대책월보>에 게재되였는데 그 내용은 매우 심각하였으며 일본군벌의 문건답지 않게 우는 소리에 가까운 표현들을 늘어놓은것을 찾아볼수 있다.

보고서는 이들(항일유격대를 말함)의 세력은 허수히 볼수 없으며 꼬량(수수)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을 앞두고 더욱더 엄중히 경계하여야 한다고 겁에 질린 소리를 하였다.

일본군경에게는 …<꼬량>이라는 또하나의 <적>이 생겨났던 것이다.》

세상에 대고 《무적황군》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야심만만하게 중국대륙을 거의다 집어삼키고 북으로는 이전 쏘련,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모조리 점령할 야망에 들떠있던 일본군이 어찌하여 수수밭을 이처럼 무서워하였으며 《꼬량토벌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지 않으면 안되였겠는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신출귀몰》하고 《승천입지》하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은 만주지방에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수

수밭을 산간오지의 원시림 못지 않게 또하나의 활동무대로 리용하면서 성시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군수물자수송대를 기습하기도 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일제놈들은 수수잎이 와수수 설레이기만해도 어느 밭이랑에서 유격대가 뛰여나올것만 같아 오금이 얼어들었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든 무수한 수수이삭들은 유격대의 혈색좋은 얼굴처럼 보여서 눈알이 둥그래지군하였다.

그런데다가 알알이 여물어가는 수수밭은 유격대에게 있어서 더없이 좋은 《식량공급기지》였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격대에 식량을 보내주고싶어하는 인민들은 밭에서 수수를 유격대에 넘겨주군하였다. 이것 역시 일제에게는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일제군경들은 산간오지의 대밀림지대에 못지 않게 수수가 무성한 들판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고 《꼬량토벌대》요, 《꼬량경찰》이요 하는 가소로운 이름들도 생겨나게 되였던것이다.

일제놈들은 여물어가는 수수밭의 여기저기에 커다란 망루들을 세우고 그우에 총을 메고 올라서서 수수밭들을 살피는 한편 들판에 뻗어간 도로를 따라 기마대가 기동순찰을 하도록 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밤이면 여기저기에 잠복초들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전조등을 휘둘러 불비자루질을 하였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랴.

무성하게 자란 수수밭은 태고연한 밀림처럼 유격대원들을

감싸안고 천연스레 잎새들만 스적이고있을뿐이였다. 그러다가도 어데서 발사되는지 모르는 명중탄들을 감시병이나 기마순찰대에게로 날려보내군하였다. 그때마다 왜놈군대들은 영낙없이 황천객이 되군하였다.

일제놈들은 약이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어쩌는수가 없었다. 후끈단다고 맨발로 바위를 찰수는 없었다.

이렇게 되여 연길헌병대의 《조사보고서》라는것이 관동군사령부로 올라가게 되였고 수수가 무성할 때에는 산간오지와 밀림지대에 대등하게 수수밭지대에도 《토벌》력량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수이삭이 한껏 무르익는 가을이였다.

어느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령병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가을철은 매우 바쁘다는 뜻이요. 지금 농민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안타까와하겠는데 우리가 나가서 수수가을을 도와주어야겠소.》

《알았습니다. 어느 중대를 내보내랍니까?》

전령병은 차렷자세를 하고 장군님의 분부를 기다렸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소. 동무하구 나하구 둘이 나가면 충분하오.》

《네에?! 저하구 둘이서 말입니까?》

《그렇소. 이제 우리가 나가면 연길헌병대장이 졸병들을 몽땅 데리구 수수가을을 하러 나올게요. 우린 그때 그놈들이 수수가을을 제대로 하는가 감독만하면 되오.》

《네에?!》

전령병은 장군님의 말씀이 도무지 리해되지 않아서 멍청해

지고말았다.

《왜 그러고 서있소? 어서 떠나기요.》

어느새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옮기시였다.

전령병은 어째야 좋을지 종잡을수가 없어서 인차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연길헌병대장놈이 가을을 하러 나오다니?…)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알수가 없었다.

전령병은 장군님께서 저쯤 가신 뒤에야 황급히 뒤따라 달려갔다.

그는 장군님의 뒤를 따라걸으면서도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오늘은 마을에 내려가시여 실태나 알아보시고 중대들은 다음날에 내보내시려는게군.) 하고 제나름의 짐작을 하고말았다.

수수밭이 무연하게 펼쳐진 들판에 이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농민들이 수수가을을 하고있는 밭머리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수고들 하십니다. 수수가을을 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장군님께서는 먼저 농민들에게 인사를 하시였다.

《아이구, 장군님께서 나오셨군요. 그간 귀체만강하셨습니까?》

농민들은 장군님의 인사를 받고서야 그이께서 밭머리에 나오신줄을 알고 반색을 하며 달려나왔다.

장군님께서는 밭머리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농민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런데 수수가을을 도우러 나왔다는 말은 손톱만큼도 내비치지 않으시였다.

농민들과의 담화는 끝이 없었다.

전령병은 저혼자서라도 한이랑 베여보고싶어서 낫을 들고 슬그머니 일어섰다.

《가만 앉아있소. 수수가을을 도우려면 유격대식으로 도와야지 그까짓 한두이랑이나 축내선 뭘하겠소. 오늘중으로 이 백정보밭의 수수를 다 베여서 알알이 털어놓고 돌아가기요.》

어느새 전령병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장군님께서는 또 롱담인지 진담인지 통 가늠할수 없는 말씀을 하시였다.

전령병이 의아한 눈길로 장군님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농군들은 노상 싱글벙글이다. 장군님과 함께 있는것이 무등 기쁘기만한것이다.

전령병은 눈치무딘 그들이 민망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장군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였다.

《마음을 놓소. 두고보오. 이제 연길헌병대 대장놈이 졸병놈들을 몽땅 끌구 수수가을을 하러 올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에야 농민들은 그 무엇인가를 눈치채고 펄쩍 놀랐다. 그들은 장군님께 간절히 말씀올렸다.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왜놈들을 끌어오고 그 한복판에 뛰여드시려는겁니까? 그건 절대로 안되옵니다. 만일 장군님의 신상에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하늘에서 해가 떨어진듯 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고맙니다. 나라의 해방도 장군님의 어깨에 달려있고 겨레의 생사존망도 장군님께 달려있으니 제발 위험한 일은 삼가해주소이다.》

나이많은 한 농군이 장군님께 통사정을 하였다.

《허허… 뭘 그러십니까?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들 마십시오.》

장군님께서는 흔연히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다 생각이 있어 그러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던 전령병도 농민들도 번개같이 머리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렇지, 신출귀몰하시고 승천입지하시며 천만가지 술법에 도통하신 장군님께서 또 무슨 천지조화를 부리시려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마음이 놓여서 그들도 웃음을 지었다.

이무렵 연길헌병대 대장은 밀정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 전령병과 함께 수수밭에 나오시여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첫순간 헌병대장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갈마들어서 잠시 생각을 굴리였다.

(**김일성**장군이 수수밭에 나왔단말이지?)

그는 이 사실을 아침에 있었던 일과 련결시켜보았다. 오늘 아침 그는 뜻밖의 통고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김일성**장군이 보내온것이였다. 그 내용은 더욱 놀라운것이였다.

《꼬랑토벌대》 대장에게 명령한다

관하 모든 군경들을 전원 인솔하고 수수가을을 나올것.
이 명령집행에 대한 감독은 본관이 직접 현장에서 할것

이다. …

김일성장군께서 보내신 이 명령서를 받은 헌병대장은 한동안 어리둥절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김일성**장군이 어째서 이런 명령서를 보냈을가? 야유인가? 아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자는 타진인가? 아니면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는 계략인가?…)

줄곧 이런 생각에 마음을 종잡지 못하던 헌병대장은 밀정이 보내온 통보를 받고서야 그것이 《이목을 딴데로 끌기 위한 기만》이라고 단정하였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는 서쪽을 치는것도 **김일성**장군의 전술이지만 절대로 그곳에는 나타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놓고는 슬쩍 그곳에 나타나서 할 일을 다하는것도 장군의 전술이라는것을 그는 잘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보라. 이번에도 헌병대를 데리고 수수가을을 나오라, 감독은 본관이 현장에서 직접 하겠다, 이래놓고는 정말로 수수밭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실로 그런 통고를 해놓고는 **김일성**장군이 정말로 수수밭에 나타나리라고 그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누구도 믿지 않게 만들어놓고는 단신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헌병대장은 자기의 분석판단이 《명철》했다는 일종의 자부까지 느꼈다.

《요씨!》

헌병대장은 무릎을 탁 치고는 곧 긴급출동명령을 내렸다.

즉시에 병영들과 경찰서들, 《자위단》들이 발칵 뒤집

혔다.

철갑모를 쓰고 총창을 꼬나든 병사들을 가득 태운 군용트럭들이 황토먼지를 구름처럼 일으키며 미친듯이 내달리고 말발굽밑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기마대들이 질풍같이 내달리고 칼꽂은 총대들을 어깨에 비껴멘 군경들이 징박은 군화를 요란스럽게 절벅거리며 헐레벌떡 내달렸다. 급해맞기는 불난집보다 더했다.

수천명의 군경들을 휘몰고 숨이 턱에 닿게 달려온 헌병대장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는곳을 먼발치에서부터 은밀히 포위하였다. 그리고는 망루처럼 높이 세운 수수밭감시대에 기여올라가서 아래를 굽어보며 《작전》을 지휘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농민 한명이 장군님께로 황급히 달려와서 위급한 정황을 아뢰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이놈들이 이제야 오는군. 어디 한번 왜놈들에게 수수가을을 시켜봅시다.》라고 하시며 태연히 농민들과의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바로 이무렵 헌병대장놈은 망원경으로 장군님의 일거일동을 살피면서 졸병놈들에게 빨리 포위망을 좁히라고 다그어대고있었다.

그놈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농민들과 태평스레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는것을 보고는 아무런 기미도 눈치채지 못한것이라고 쾌재를 올렸다.

포위망은 후리그물처럼 점점 조여졌다.

이쯤되자 헌병대장놈은 기가 올라 감시대우에서 내려다보며 메가폰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들은 포위되였다. 살고싶으면 투항하라.》

그러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들은둥만둥 태연히 앉으시여 농민들과의 이야기만을 계속하시였다.

그 태연자약에 슬그머니 약이 오른 헌병대장놈은 또다시 꽥꽥 소리를 질렀다.

《투항하라. 당신들은 세겹, 네겹 포위되였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천천히 일어서시더니 전령병과 함께 무성한 수수밭속으로 들어가버리시였다.

《흥, 그래야 그물안에 든 고기요, 가마안에 든 팥이지…》

헌병대장놈은 병력을 증강하여 수수밭을 더욱 물샐틈없이 포위하는 한편 계속 함화를 들이댔다.

그러나 수수밭에서는 얼마동안 수수대들이 흔들리는것이 보였을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약이 오른 헌병대장놈은 마을에 가서 낫이란 낫은 몽땅 가져다가 수수대를 모조리 베여넘기여 포위망을 좁히도록 하였다.

촘촘히 둘러선 병사들이 수수대를 하나씩하나씩 베여넘기며 바득바득 조여들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이 통곡하다가 기절할 일이 또 어데 있는가.

수수대를 마지막까지 다 베여넘겼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왜놈들은 너무도 놀라와서 눈깔만 꺼벅거렸다.

(그러면 그렇겠지. 우리 장군님이 어떤분이시라구!)

발머리에 서서 마음을 조이며 장군님의 신변을 걱정하던

농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피여났다.

반대로 왜놈들의 상통은 곰열을 씹은듯 찡그러졌다.

《승천입지》를 한다더니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잦았는가?

수천명의 눈이 지켜보았으니 《승천》은 아닐게고 《입지》를 한 모양이라고 떠들며 수수밭이랑들과 고랑들을 바늘찾듯 살펴보았지만 쥐구멍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혹시 둔갑술을 써서 수수대로 변한거나 아닐가?》

《글쎄말이야, 술법도 한두가지래야지 천가지 만가지 술법을 모조리 도통하셨다니 도대체 대처할 묘방이 어데 있겠어!》

왜놈들은 까마귀새끼들처럼 떠들어댔다.

《주둥이를 다물지 못하겠는가?》

헌병대장은 제풀에 화가 나서 꿱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문득 《수수가을을 하러 나오라》고 한 명령서생각이 났다.

(정말 우리가 수수가을이나 해주었단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지경이였다.

졸병놈들이 지껄인것처럼 혹시 수수대로 둔갑을 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병대장놈은 또 소리를 질렀다.

《작두들을 가져다놓고 수수대들을 모조리 토막쳐라!》

그리하여 이번에는 수백개의 작두들을 모아다놓고 작두질이 시작되였다.

한놈은 작두를 밟고 다른 놈은 수수대를 먹이면서 《투항하라! 투항하라!》하고 웨쳐댔다.

정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겨서 처음 보는 작두질이였다.

만일 수수대로 변했다면 여물썰듯 토막내는판에 뛰쳐나오지 않고 배길텐가.

그런데 밭에 있던 수수대들을 다 썰어놓았지만 유격대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칠듯이 화가 난 헌병대장놈은 토막낸 수수대들과 이삭들을 모조리 모아놓고 불을 지르라고 소리를 질렀다.

졸병놈들은 수수대토막들과 이삭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투항하라.》

헌병대장놈은 미친놈처럼 소리쳤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불을 질러랏!》하고 소리를 질렀다.

졸병놈들이 불망치들을 던졌다. 순간 세찬 불길이 하늘에 솟구쳤다.

이때였다. 갑자기 수수알들이 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조화도 있단말인가.

톡톡… 탁탁 불속에서 튀는 수천수만의 수수알들이 총알이 되여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불더미를 둘러싸고있던 왜놈들을 모조리 쓸어눕혔다.

신기한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늘에 솟구치던 불길이 사그라지자 불더미자리에는 껍질까지 깨끗이 벗겨진 수수알들이 봉우리를 이루고 높이 쌓여있었다.

졸병들은 다 죽고 다행히도 혼자 살아남은 헌병대장놈

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제놈들의 시체를 둘러보며 땅을 쳤다.

《망했구나! <꼬량토벌대>가 망했구나! 아—**김일성**장군의 술법은 참으로 신비하구나!》

이때였다. 헌병대장은 그 누군가가 자기의 어깨를 툭툭 치는바람에 흠칫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건 무슨 천지조화란말인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전령병과 함께 자기뒤에 서계시지 않는가.

헌병대장놈은 갑자기 풍을 만난놈처럼 와들와들 떨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무적황군이라는게 뭐냐? <꼬량토벌대>는 망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통나무 쓰러지듯 넘어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때 농민들이 엎어질듯이 달려와서 장군님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우리는 장군님 신상에 혹시 변이나 생기지 않나해서 간장이 바질바질 탔습니다. 어디에 계시다가 이렇게 무사히 현신하셨소이까!》

농민들의 가슴속에는 천하에 위인들도 많고 영웅들도 많지만 적병에게까지 령을 내리시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시는 **김일성**장군님 같으신분은 더는 없다는 확신이 가득 차올랐다.

이때부터 만주땅은 물론이고 중국땅 내륙 저 멀리까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적들에게도 령을 내리시여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천 강 지 출》

《천강지출》이란 말은 《승천입지》라는 말의 반대이다. 다시말해서 《승천입지》가 《하늘로 오르기도 하고 땅속으로 잦아들기도 한다》는 말이라면 《천강지출》은 《하늘에서 훌연 내려오기도 하고 땅속에서 불쑥 솟아오르기도 한다》는 뜻이다.

천변만화하고 신묘무쌍한 전술로 왜놈들을 쥐락펴락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지략에는 마치도 하늘로 오르거나 땅속으로 잦아버린듯 감쪽같이 사라지는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속에서 불쑥 솟아나듯 불시에 나타나서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왜놈들을 족쳐버리는것도 있어 《천강지출》이라는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황해남도 안악, 재령, 신천지방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 실례이다.

이른바 태평양전쟁이라는게 터져서 세상천지가 끓던 때였다.

안악, 재령, 신천일대에서는 대낮에 안악땅의 대지주 김홍량의 집에 나타났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에 대한 이야기가

짜하게 퍼졌다.

《참 조화는 조화란말이야. 서울 총독부에는 뚫고들어갈수 있을지 몰라도 안악 김홍량이네 집만은 뚫고들어갈수 없다고 소문이 들썩한데 도대체 **김일성**장군부하가 어떻게 뚫고들어 갔다는거야?》

《아따, 귀구멍은 보리동냥을 보냈댔나? 장군님의 부하들은 다 장군님한테서 삼백예순가지 도술을 배웠기때문에 둔갑술도 쓸줄 알구 축지법도 능사로 쓸줄 안다는 말 못들었나? 거 보라구. 김홍량이네 집에도 어느날 몇시에 오겠으니 이리이리하라고 통고를 해놓고는 꼭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났다지를 않나…》

《글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느날 동경 한복판에 있는 천황놈앞에 불쑥 나타나시여 <이놈, 조선에 있는 왜놈군대들과 경찰들을 몽땅 걷어가지구 물러가지 못할고?> 하고 벽력같이 호령하셨다는데 이렇게 탁월무비하신 **김일성**장군님수하에서 도술을 배운 유격대원들이 그까짓 김홍량이네 집에쯤 뚫고들어가는거야 식은죽먹기가 아니겠는가, 허허…》

《쉿, 누가 듣겠네.》

김홍량이네 집에 나타났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김홍량은 《유력한자》로 소문이 뜨르르한 대지주였다.

예로부터 《유력한자》다시말해서 《힘있는 사람》이라면 《체재권능》을 겸비한 사람이라 하였은즉 건장한 체력과 넉넉한 재산, 높은 벼슬자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무슨 일이나 막힘없이 감당해낼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힘있는자》라 할수 있다는것이다.

김홍량은 이 네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있었다.

그의 체력으로 말하면 툭 삐여지게 두드러진데는 없지만 키는 보통을 지나고 박달망치처럼 단단하고 이목구비가 그쯘하였다.

그의 재산도 놀랄만하였다.

재령강을 막아 논을 풀 때 콩가마니들로 뚝을 쌓았다는 이야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의 재산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번은 남해기슭을 달리는 자가용 승용차안에서 아득히 펼쳐진 논벌을 내다보다가 《참 탐나는 땅이로다. 이게 뉘댁땅이냐?》하고 그가 물었을 때 그의 개인서기가 아연해서 《이건 다 주인님네 땅인뎁쇼.》하고 대답했다는 일화도 그의 재산정도를 말해주는것이다.

그의 권세로 말하면 관직을 가진것은 없지만 《도평의원》까지 지내면서 왜놈들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을뿐아니라 서울총독부에 가까운 친구들이 수두룩하고 게다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거액의 《헌납금》까지 바쳐서 총독의 치하까지 받았으니 허술히 대할자가 아니였다.

그의 《재능》과 《능력》이란 또 어떤것인가?

김홍량은 장마철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세파속에서도 약저울처럼 예민한 감각과 눈금자처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재산을 불구고 권세를 넓혔다. 실로 그는 어느쪽에 붙어야 리로울것인가를 재빨리 간파하는 특수한 감각과 함께 병아리를 던져 황소를 낚을줄 아는 남다른 수완의 소유자였다.

이쯤하면 김홍량은 《체재권능》을 다같이 겸비했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김홍량의 집은 곧 그의 재력과 권세와 수완을 집대성한듯 요란하였다.

본채와 별채, 안채와 바깥채, 고간들과 외양간, 마구간, 련못달린 정원…

성벽처럼 드높고 든든한 담장안에 들어앉은 그의 저택은 궁궐과도 같이 요란하고 화려하였으며 요새와 같이 위엄스러워보였다.

그래도 김홍량은 담장을 더 높이고 든든히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더구나 안악읍에서 조금 떨어진 연등마을 지주 원종빈의 집이 알지 못할 피한들의 침습을 받아 적지 않은 량의 돈을 털리우고 원종빈자신은 복부에 칼을 받고 비명횡사하는 끔찍한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담장을 굳건히 하는데 더욱 마음을 썼다.

수많은 돈과 로력을 들여 울담장을 성벽처럼 높이 쌓아올리고 그우에 또 철조망까지 쳤다.

김홍량은 울타리공사가 끝나자 그 둘레를 한바퀴 돌아보고는 만족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허허… 이쯤 했으면 괜찮아. 날새가 아닌 다음에야 이 담장을 어느놈이 넘을수 있을가.》

하지만 그는 이렇게 울담장을 높이 쌓아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대문가에다 말같은 개들을 매놓았고 경찰서장에게는 자기네 집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달라고 부탁해놓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밤이면 야경군들과 순경들이 그의 집둘레를 돌면서 보초를 서주었다.

실로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집 높은 담장과 경비진을 뚫을

수 없을것같았다.

그런데 이 모든것들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

김홍량이 서울에 올라가서 총독부에 수천원의 《헌납금》을 바치고 돌아온 날이였다.

《대일본제국》의 황군을 위하여 《헌납금》을 바치는데서 《모범》을 보였다고 총독이 내주는 《표창장》과 상품까지 타가지고 내려온 김홍량은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자기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창문가에 놓여있는 탁자우에서 낯선 편지봉투 하나를 발견하였다.

김홍량은 자기가 서울에 올라가있는 사이에 어데서 온것을 하인이나 아이들이 자기 방에 가져다놓았으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 한쪽에는 《김홍량귀하》라고 씌여져있었다. 분명 자기에게 온 편지였다.

(도대체 어데서 누가 보낸 편지일가?)

이런 생각을 하며 봉투의 다른쪽을 보려고 뒤집던 김홍량은 불에 데기라도 한듯 펄쩍 놀라서 편지를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말았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라고 씌여있었던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서 보내온 편지라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일본의 백만관동군을 꼼짝못하게 쥐락펴락하신다는 **김일성**장군께서 계시는곳에서 보내왔다는 소린데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홍량은 사지가 와들와들 떨리고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다.

변신술, 둔갑술을 비롯하여 별별 술법을 다 쓰신다는 **김일성**장군이 당장이라도 불쑥 자기 방에 나타날것만 같았고 지금 어데선가 멀지 않은곳에서 사시나무떨듯 하고있는 자기의 몰골을 지켜보고있는것만 같아서 방안 이 구석, 저 구석을 겁에 질린 눈으로 살펴보기까지 하였다. 바람에 창문이 덜커덩거리는것조차 **김일성**장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드나드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서둘러 집안식구들과 하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방의 탁자우에 누가 편지를 가져다놓은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일을 한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귀신의 조화란말인가? 김홍량은 점점 온몸이 얼어들었다.

(어쨌든 읽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김홍량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속지를 끄집어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당신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물과 낟알을 먹고 사는 조선사람일진대 어찌 제 나라를 빼앗고 자기 겨레를 도살하는 왜놈의 주구가 되여 수천원의 <헌납금>까지 섬겨바치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가? 재산이 넉넉하고 돈이 푼푼하다면 마땅히 나라를 되찾고 겨레를 구원하는 광복성업에 기여함이 옳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군자금이 필요한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에게 지난날의 죄를 씻고 나라와 민족앞에 의로운 일을 한가지라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통고장을 보내니 이달 그믐날 정오까지 3천원의 돈을 어김없이 준비해놓으시오. 정확히 그 시간에 사람을 보내겠소.》

김홍량은 통고장을 다 읽고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백두산에 있다는 항일유격대가 어떻게 벌써 일본총독부에 《헌납금》을 바친것까지 알고 준절히 꾸짖는단말인가? 참으로 귀신이 곡할노릇이다. 이건 다 천지에 통하는 신묘한 술법과 신통력을 지니신 **김일성**장군의 조화다. 그러니 관동백만군이 아니라 천만군인들 어찌 당할수가 있겠는가!)

김홍량의 머리에는 불현듯 며칠전 《헌납금》을 바치는데서 《모범》을 보인자들의 시상식뒤끝에 있었던 총독과 기자들사이의 회견장면이 떠올랐다.

《총독각하, 각하는 간도지방과 백두산일대에서 무시로 출몰하는 **김일성**유격대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습니까?》

재빠른 기자 하나가 시상식장에서 나오는 총독을 막으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총독은 점잔을 빼면서 호언장담하는투로 대답하였다.

《어떻게 생각하고말고가 있는가? 광대한 중국땅은 물론 저 멀리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동양천지를 통채로 타고앉은 <대일본제국>과 <무적황군>의 막강한 위력앞에서는 그쯤한 세력은 무시해버려도 무방한 <창해일속>이다.》

《아, 그렇습니까? 허나 우리가 알기에는 항일유격대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채 태평양전쟁에 뛰여든 <대일본제국>은 많은 고충을 안고있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항일유격대를 <소멸>하지 못한채 태평양전쟁에 뛰여들었는지 알고싶은데요.》

까다롭고 말짼 질문이 련속 날아들었다.

총독은 속으로 은근히 부아가 났으나 태연한듯 대답하였다.

《이미 말했지만 그건 보잘것없는 부스럼이나 같은거야.

세계패권을 쥘수 있는 권투선수가 그따위 부스럼때문에 경기에 출전안하겠는가?》

《아, 각하의 능란한 비유에 탄복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본영의 고관막료들까지도 **김일성**유격대를 <제국의 암>이라고 하였는데 부스럼치고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존재가 아닐가요! 그리고 그런 부스럼을 그대로 가지고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종말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각하의 고견을 듣고싶은데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야유였다. 총독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올라 주먹을 틀어쥐였다.

(망할자식들…)

용케도 자제력을 잃지 않은 총독은 바쁘다는것을 구실로 《오늘은 이만하자.》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의 뒤에서 놀려대듯 기자들이 시끄스르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 그걸 몰라서 물어보나? 내가 대답해주지. 암이라는 종양을 그대로 둔채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종착점은 무덤일세.》

《하하하… 그것 또한 명비유일세.》

《호호호… 명답이예요.》

녀류기자까지 끼여들어 까투리 날아가는 소리로 웃어대며 조롱을 하고 초치고 양념을 쳤다.…

김홍량은 지금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의 편지까지 받고보니 《종착점은 무덤》이라던 기자들의 야유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사실 총독이 큰 소리는 쳤지만 《대일본제국》이 그 《종양》을 그대로 둔채 태평양전쟁에 뛰여든것은 그렇게 하고싶어서 그런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어쩌는수가 없어서였다. 어쩌지 못하는것은 벌써 승리자가 아니요, 승리자가 아니면 그것은 곧 패자인것이다.

얼마나 많은 병력과 돈을 밀어넣으면서 십여년동안이나 신고를 했던가!

불치의 《종양》을 지닌채 《국제경기》에 뛰여든 일본의 《종착점》은 《무덤》이라는 기자들의 비유는 정확한것이였다. 하다면 구멍뚫린 《대일본제국》이라는 《함선》에 동승한 자신의 운명은 어찌될것인가?

이제라도 뛰여내려 《백두산》이라는 《함선》에 기여올라 유격대와 손을 잡을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였다. 지금까지 《대일본제국》에 《충성》을 다해오며 나라와 민족앞에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은 자기를 용서해줄리 만무하며 또 자기네 《배》에서 뛰여내려 《백두산》호에로 헤염쳐가는 자기를 발견하면 일본사람들이 가만둘리 없을것이다. 《백두산》호에 가닿기도전에 일본제 총알이 자기의 잔등을 뚫고말것이다. 그렇다고 항일유격대의 통고장대로 돈을 보내지 않을수도 없는 일이였다. 통고장이자 곧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령인데 그걸 어기고 무사할 모가지가 세상천지에 어데 있겠는가. 실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호미난방이 되였다.

김홍량은 머리를 싸매고 한동안 드러누워서 골머리를 앓았다. 어느쪽에 붙어야 리로울것인가를 저울질하기를 수십번, 그러다가 마침내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온 《대일본제국》의 보호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김홍량은 유격대가 보낸 통고장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경무총감에게 사실을 알렸다.

경무총감은 김홍량이 가져온 통고장을 받아쥐고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보호》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김홍량이가 자기 방에서 나간 다음 그는 통고장을 다시 곱씹어 읽어보고는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협박을 해서 돈푼이나 털어내자고 그 어떤 불량배들이 꾸며낸 모략도 아니요, 한번 혼쌀을 내주자고 만들어낸 그 어떤 장난군들의 속임수도 아니였다.

통고장은 어느모로 보나 조선인민혁명군에서 보내온것이 사실이였다. 따라서 가벼이 대할 일이 아니였다.

경무총감은 즉시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들여 이 일을 론의에 붙이였다.

론전은 처음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정말 돈을 가지려 김홍량네 집에 오겠는가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한쪽에서는 유격대가 돈을 가지러 오겠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와서 가져갈것이지 날자와 시간까지 쪼아박아서 알려놓고 그 시간에 찾아올 머저리가 어데 있겠는가, 이거야 날 잡아주시오 하고 함정에 제발로 제 시간에 찾아오는격인데 절대로 그럴수 없다, 유격대는 절대로 그 날자에 오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쪽에서는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 날자와 시간까지 밝힌것은 신출귀몰하는 자기들의 술법을 믿기때문이다, **김일성**장군빨찌산은 한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빈 소리를 모른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아도 온다면 그 시간에 꼭꼭 나타났지 틀린적이 없었다 하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론전에서는 유격대가 반드시 올것이라는쪽이 이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돈을 가지러 오는 유격대를 어떻게 붙잡겠는가 하는것에 론점이 옮겨졌다.

론쟁은 이번에도 두패로 갈라져서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신출귀몰하며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김일성**장군부하들은 제아무리 경비진을 친대도 절대로 잡을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쪽에서는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덧그물을 세겹, 네겹으로 둘러치면 성공할수 있지 하고 우겨댔다.

경무총감은 부하들이 옥신각신 떠드는 소리를 듣다못해 버럭 화를 냈다.

《빨찌산을 잡을수 있든 없든 김홍량이네 집을 물샐틈없이 둘러싸고 안악고을에 경비진을 철통같이 치라. 만일 우리 황군에게 <헌납금>을 바친 김홍량이 공산유격대한테 잘못되는 날엔 그들의 징벌이 무서워서 우리 제국을 위해 <헌납금>을 바칠 사람이 한명도 없게 될것이다. 제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되여 황해도는 더 말할것도 없고 멀리 다른 도들에서까지 날고뛴다는 형사와 경찰들을 발탁하여 안악고을로 급파하였다.

김홍량의 집은 두겹, 세겹 경비진속에 묻혀버렸다.

거리와 골목골목들에서는 사복형사들이 검은 안경속에서 눈알을 굴리며 오가는 사람들의 거동을 예리하게 살피고 길목과 다리목들에서는 총을 멘 군경들이 행인들을 깐깐히 검속하였다.

밤에는 김홍량의 집주변과 읍거리의 곳곳에 잠복초소들을 촘촘히 세웠다.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들은 장군님한테서 별별 술법을 다 배웠

기때문에 코끝을 건드리며 지나가도 눈에 보이지 않을뿐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땅속에서 불쑥 솟아나기도 한다는 소문을 자주 들은터이라 경찰놈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목이 유격대의 칼에 뎅겅 날아날지 몰라서 가슴을 조이였다.

어쨌든 김홍량은 자기네 집을 겹겹이 둘러싼 경비진을 보고는 다소간 마음이 놓이였다. 그는 자기네 집을 지켜주느라고 수고하는 경찰들에게 연방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소를 잡는다, 떡을 친다, 술상을 차린다 하면서 날마다 분주탕을 피웠다.

김홍량이네 사랑채에는 유격대는 절대로 잡을수 없다고 주장하던 겐지로중좌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왜 못잡겠느냐고 흰목을 빼던 고등계형사부장 사사끼중좌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들은 서로 돌아앉아서 시뚝삐뚝하면서 말도 안했다.

겐지로는 《어디 두고보자. 유격대를 잡는가?》하는 속심이였고 사사끼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유격대를 잡아서 겐지로놈을 납작하게 눌러놔야지.》하는 심보였다.

어느덧 날자는 자꾸 흘러가서 드디여 섣달그믐날이 되였다. 이날은 새벽부터 경비인원들과 단속초소들을 몇배로 더 늘이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김홍량은 아예 자기 방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바깥출입을 안했고 집안사람들이 드나드는것조차 삼가하도록 단단히 신칙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등잔심지처럼 타들었다. 벽에 걸린 벽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조차 불안한 마음을 더해주어 온몸이 얼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문밖에서 검둥개가 으르렁거려도 마음이 긴장해지고 나무가지가 바스락거려도 머리칼이 곤두섰다. 김홍량은 열두시에

로 전진해가는 시계바늘을 바라보기조차 두려웠다. 태평스레 뚝딱거리며 제 갈길을 가는 시계바늘이 얄밉게까지 생각되였다. 어느새 시계바늘은 열두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김홍량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백두산에서 요구하는 3천원을 미리 준비하여 벽장안에 넣어두었다. 돈을 아끼다가 귀한 목숨을 잃기는 싫었던것이다.

드디여 벽시계가 뗑뗑 열두점을 치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셋… 속으로 종소리를 세는 김홍량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다.

바로 이때 하인이 점심상을 들고 들어왔다.

김홍량은 하인에게 겁에 질린 제 몰골을 엿보인것 같아서 얼른 낯빛을 달리하고 제법 허세를 부렸다.

《거기 놓게. 점심을 먹어야겠네. 빨찌산이 제아무리 귀신같다 해도 경비진을 철통같이 쳐놓구 저들을 잡으려구 밤낮으로 독을 쓰고있는데 무슨 수로 찾아올텐가. 보게, 열두시에 찾아오겠다고 통고를 해놓고는 열두시가 다 됐지만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걸…》

김홍량이가 이러며 수저를 들고 밥그릇에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이였다. 그의 머리우에서 웅글고 저력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홍량씨, 안녕했소?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고 내가 왔소.》

그 소리는 염라대왕의 호령만큼이나 요란하고 무섭게 울려서 금시에 온몸이 얼어들고 사지가 굳어졌다.

얼혼이 빠져 한참이나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김홍량은 꾹 감았던 눈을 겨우 떴다. 자기가 마주하고있는 밥상앞에는 행전을 친 두다리가 기둥처럼 버티고 서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김홍량은 겨우 고개를 들어 행전을 친 두다리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산뜻한 군복에 허리띠를 가뜬히 졸라매고 오각별이 빛나는 모자를 쓴 름름한 젊은이가 불꽃이 튀는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김홍량에게는 그것이 하늘에 꾹 닿은 그 어떤 거인이 내려다보는것처럼 느껴졌다.

천둥같은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당신은 아직도 왜놈들한테 붙어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요. 당신이 하는 짓을 보아서는 당장 처단해버리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나지만 우리 장군님의 령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가겠소.》

김홍량은 사시나무떨듯하면서 돈을 내놓았다.

정작 돈을 내놓자니 그 위급한 순간에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때에 사랑채에 있는 겐지로나 사사끼가 들어왔으면 좋으련만 바깥동정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팔려 **김일성**장군의 부하가 방안에 들어온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김홍량이는 비록 유격대원이 돈을 받아넣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유격대원의 거동을 살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일이 또 어데 있는가!

김일성장군의 부하는 퇴마루에 나서더니 《승용차!》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김홍량의 차고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저절로 그의 앞으로 굴러왔다.

《수고스럽겠지만 당신도 나와 함께 얼마쯤 같이 가야겠소.》

김홍량은 유격대원의 말을 듣고도 선뜻 차에 오르지를 못

하였다. 그러나 어쩌는수가 없어서 유격대원이 요구하는대로 할수밖에 없었다.

《출발!》 유격대원이 한마디 하자 승용차는 빵빵 경적소리까지 울리며 달리기 시작하였다.

겹겹이 대문을 지키고있던 보초들이 승용차안을 들여다보았다. 김홍량은 보초놈들이 유격대원을 알아보고 손을 쓰게 하려고 눈짓, 몸짓을 하려 했으나 어쩐 일인지 큰 육신이 돌부처처럼 굳어져서 꼼짝을 할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저 보초들이 알아보기를 바랄수밖에 없어서 멍청히 앉아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라구야!

보초들은 승용차를 군말없이 통과시켜버리는게 아닌가!

대문을 빠져나온 승용차는 한참이나 달리다가 재령땅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섰다.

유격대원이 차에서 내렸다.

《김홍량씨, 이제라도 조선사람답게 사시오.》

유격대원은 김홍량을 준절히 꾸짖고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얼혼이 쑥 빠져서 한참이나 차안에 멍청히 앉아있던 김홍량은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문앞에 총을 들고서있는 보초병들을 보자 저절로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청맹과니들아, 백두산에서 온 유격대가 차안에 앉아있는것도 못본단말이냐?》

보초병들은 놀라서 저희들끼리 마주 보았다.

《차안에는 지주어른 혼자뿐이였는뎁쇼. 나 혼자만 차안을 들여다보았다면 몰라도 보초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는뎁쇼.》

보초병들은 오히려 김홍량에게 무슨 얼빠진 소리냐는듯 떠

들었다.

김홍량이는 기가 막혀서 사사끼중좌에게 화를 냈다.

《당신네 경찰들은 몽땅 눈먼 소경들이요.》

그러자 사사끼를 곱지 않게 보아오던 겐지로가 이죽거렸다.

《왜 소경이라는겁니까? 너무 조급해말구 두고보십시오. 사사끼씨가 꼭 유격대원을 체포하구 당신의 돈도 찾아줄겁니다.》

《닥쳐! 당신은 공산유격대를 잡을 의무가 없는가?》

사사끼는 약이 올라서 소리쳤다.

《닥쳐? 이건 어데다대구 악다구니야?》

애당초 사사끼를 아니꼽게 보아오던 겐지로는 군도를 빼들었다.

사사끼도 어느새 군도를 뺐다.

여러 사람들이 뜯어말려서야 두놈은 서로 떨어졌지만 그들은 유격대원을 잡지 못한 책임에다가 《제편끼리 싸워서 제국경찰을 망신시켰다》는 죄를 덧쓰고 감옥에 처박히고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안악, 재령, 신천일대에서는 두사람만 모여도 김홍량의 집에 나타났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김홍량은 기가 죽고 겁에 질려 늘 방구석에 처박혀있었을뿐 통 바깥출입을 안했다고 한다.

(《제자를 보면 그의 스승을 알수 있고 자식을 보면 그의 부모들의 됨됨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은즉 유격대원들이 그처럼 술법에 능할진대 **김일성**장군님이시야 얼마나 출중하시랴! 승천입지, 천강지출하고 축지법, 변신술, 둔갑술… 천만가지 술법을 도통하신 천하무적, 백전필승의 영웅명장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유격대는 반드시 이길것이구 일본이 망할것은 이미 정해놓은 일이야!)

이런 신념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든든히 자리잡았다.

불도 마음대로 다스리다

류수촌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정진평은 아이들에게 자주 세계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군하였다.

한때 청운의 뜻을 품고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뛰여든 정진평은 민족의 잠을 깨우는 계몽운동에도 몰두해보고 화승대끝에다 《왜멸복국》의 기발을 매달고 독립군을 따라다녀보기도 하였으며 《빠리콤뮨》이요, 《쏘베트》요 하는 귀에 선 말을 웨쳐대는 장발의 행세군들에게도 기웃해보았다. 그러나 결국은 빼앗긴 조선을 다시 찾을수 없다는 눈물겨운 결론을 내리고는 이곳 류수촌에 눌러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써 상처투성이의 자기 가슴을 달래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골수에 사무친 독립의 뜻만은 버릴수가 없어 아이들의 넋속에라도 그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

그 씨앗에서 하루빨리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알찬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았다.

정진평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두 뛰여난 인걸이 되여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되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세상력사를 다 들추어가면서 이름난 위인들과

명장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군하였던것이다.

우리 나라의 명장들인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은 말할것도 없고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오디쎄야와 로씨야의 력사에 나오는 쑤워로브, 프랑스의 쟌 다르크와 고대로마의 스파르타쿠스…

이야기해주지 않은 명인, 명장이 없으며 그것도 한번만이 아니라 두번, 세번 곱씹었다.

이러한 때 항간에서 전설같은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것인즉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를 이끄시고 왜놈들과 싸우고계신다는 이야기였다.

김일성장군님유격대는 여러가지 신기한 전법으로 적들을 쥐락펴락하며 족쳐대고있는데 전투가 있은곳에 가보면 왜놈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깔려있군한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축지법, 둔갑술, 변신술 등 별별 술법을 다 쓰시여 신출귀몰하실뿐아니라 유격대의 총알은 왜놈들만 딱딱 골라맞히고 불도 마음대로 다루시여 왜놈들의 집만 골라가며 태워버리게 한다는것이였다.

원래 정진평은 제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떠돌아다니는 말은 절대로 믿지 않는 성미인데 들리는 소문이 하도 신비한 것들이여서 반신반의하는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유격대가 산속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고해서 존재를 끝마쳤다는것이다.

왜놈들이 하는 수작을 그대로 믿을수 없어서 한해전에 이사를 온 《전라도집》으로 찾아갔더니 그 역시 한숨을 쉬며 《강약이 부동이니 어찌겠소. 그게 사실이라더군요.》하는것

이였다.

언제나 마을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왜놈들을 내놓고 욕질하는 《전라도집》의 말이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정진평도 한숨을 쉬며 돌아왔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아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위인, 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정진평은 어느 한 나라의 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불쑥 일어나더니 그의 말허리를 뚝 꺾어버렸다.

《선생님,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위인들과 영웅호걸들, 명인재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가운데서 누구를 따라야 왜놈들을 쳐부시고 우리 나라의 광복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까?》

너무도 뜻밖의 질문이고 너무도 절박한 문제였다. 대답이 궁해진 정진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누구를 따라야 악귀같은 왜놈들을 쳐없애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고 대답할것인가!

정진평이 머뭇거리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교실문이 벌컥 열리더니 왜놈순사놈이 머리를 쑥 들이밀었다.

《여기선 뭣들 하는가? 빨리 나오지 않구… 운동장에서 곧 불온분자에 대한 공판이 있게 된다. 빨리 나오라.》

왜놈순사놈은 이렇게 뇌까리며 눈알이 표표해서 정진평을 쏘아보았다.

《지금은 수업중이요.》

정진평은 교탁앞에 서서 점잖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왜놈순사놈은 발을 탕 굴렀다.

《나오라면 나올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아.》

정진평은 할수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운동장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운동장으로 나온 아이들은 정진평결에 붙어서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마치도 엄지닭의 품속에 파고드는 병아리들처럼 저저마다 더 선생의 가까이에 들어서려고 오구작작거리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진평은 그 애들의 눈길이 이 순간에도 누구를 따라야 저 악독한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을수 있느냐고 묻고있음을 느꼈다.

말을 탄 기마대들과 총을 멘 군대들이 삼엄하게 둘러싼 운동장에는 강제로 끌려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석에는 경찰서장도 나오고 관동군사령부에서 파견되였다는 《선무공작대》대장도 나앉았다.

손목에 쇠고랑을 찬 농군 하나가 피고석에 끌려나왔다.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하였는지 그의 온몸은 피투성이였다.

그 농군은 류수촌《집단부락》에 살고있는 사람이였는데 한달전에 유격대의 짐을 지고 따라갔던 일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여 체포되였던것이다.

《피고는 **김일성**유격대의 짐을 자진해서 지고갔을뿐아니라 〈유격대의 총알은 왜놈들만 골라맞힌다〉느니 〈**김일성**장군님은 불도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왜놈기관과 왜놈들의 집만 골

라서 불타게 한다〉느니 하면서 불온사상을 많이 선전하였다. …》

재판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그러자 헌병대장놈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흰 장갑을 낀 손에 긴 칼을 지팽이처럼 짚고 거만스레 소리를 질렀다.

《조용하랏, 공산유격대는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산속에서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고 하여 다 없어졌다. 그리구 유격대의 총알이 일본군대만 골라서 맞힌다는것도 저놈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헌병대장놈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피고석에 앉아있는 농군에게로 몸을 돌렸다.

《공산유격대의 총알이 일본군대만 딱딱 골라서 맞히고 집도 일본사람의 집만 골라서 태워버린다는건 꾸며낸 거짓말이라는것을 네입으로 실토를 해라. 그러면 용서해준다.》

그러나 농군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킬뿐이였다.

《나쁜놈의 새끼, 이래도 실토를 안할테냐?》

약이 오른 헌병대장놈은 칼을 쭉 뽑더니 농군의 목을 겨누었다.

바로 이 순간이였다.

《땅!》

야무진 총성과 함께 재판석에 거만하게 틀고앉아있던 재판관놈이 뒤로 벌렁 자빠졌다.

뒤이어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지고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유격대가 쳐들어왔던것이다.

급해맞은 왜놈들은 운동장에 가득 모인 인민들속으로 뛰여

들었다.

유격대는 인민들을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학교운동장에서는 마을사람들과 왜놈들이 뒤범벅이 되여 돌아갔다. 이런판에 아무리 신비로운 유격대총알인들 어찌 왜놈들만 골라서 맞힐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복새통에서도 유격대의 총알은 정말 왜놈들만 골라가며 쓰러뜨렸다.

유격대의 총알이 왜놈들만 골라맞히는바람에 겁에 질린 《선무공작대》대장놈은 정진평이 있는데로 달려와서 아이들속에 쑤시고 들어박혔다.

《어마나!》

아이들이 놀라서 흩어지는 순간 총알 하나가 날아와서 그놈을 맞혔다.

이런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는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천하술법에 도통하시였을뿐아니라 만백성을 극진히 아끼시고 보호해주시는 어버이이시라고 탄복을 금치 못했다.

마을 뒤쪽 언덕을 바라보니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에서 번개가 번뜩이는분이 전투를 지휘하고계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불을 지르라! 왜놈들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라!》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을 내리시자 왜놈들의 병영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더니 뒤이어 왜놈기관과 왜놈집들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솟구쳤다.

세찬 바람을 타고 하늘높이 솟구치는 불길속에서 왜놈기관,

왜놈의 집들은 순식간에 재가루로 되고말았다.

이때였다. 마을사람들속에서 비명이 울렸다.

《어마나! 저걸 어쩌나!》

세차게 휘몰아치는 불길에 왜놈네 집과 추녀를 가까이 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의 집이 위험하였기때문이다. 시뻘건 불꼬리를 마구 휘둘러대며 왜놈들의 집을 태워버리는 불길은 추녀가 마주 닿을듯한 조선사람의 집에도 당장 불을 달려는듯 불찌들을 마구 휘뿌려던지고있었다.

온 마을이 당장 불바다로 변할것만 같아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근심이였다.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 날아올랐던 불찌들은 왜놈들의 집에만 날아내리고 조선사람들의 집에는 날아내리지 않았다.

《장군님의 술법은 참으로 신령스럽기 그지없구나!》

정진평은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으며 탄성을 올렸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알에도 령을 내리시여 백성들은 털끝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미친듯이 날뛰는 불길에도 령을 내리시여 왜놈들의 집만 골라서 태워버리도록 하시는 **김일성**장군님!

정진평은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그 천변만화하고 신묘무쌍한 술법 하나하나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하늘같은 뜻이 맥맥히 흐르고 만백성을 친혈육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해빛같은 은정이 넘쳐나고있으니 어찌 천하가 장군님을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구세성인으로 높

이 떠받들지 않으랴.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와 겨레를 구원해주실분은 유일무이 **김일성**장군님뿐이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눈시울을 적시던 정진평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자기네와 제일 가깝게 지내던 《전라도집》에 불이 달렸기때문이였다.

《장군님, 저 집은 마음씨 무던하고 왜놈들을 미워하는 좋은 사람네 집이오니 제발 불을 거두어주소이다!》

정진평은 황급히 장군님께로 달려가 간절히 빌려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이였다. 뜻밖에도 불길에 휩싸인 《전라도집》에서는 헌병대장놈과 주인이 뛰쳐나왔다.

《아!!》

정진평도 마을사람들도 입을 딱 벌렸다.

《어느새 저놈이 저 집에 숨었던고? 저 집에 불이 달린 까닭이 그때문이였구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설레이였다. 장군님의 술법은 귀신도 울고가겠다고 법석을 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정신이 쑥 나갔지, 그 악귀같은놈을 제 집에 숨겨주다니…》

정진평은 헌병대장놈과 함께 체포되여오는 《전라도집》주인을 보고 가슴이 저린듯 탄식을 하였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진평선생, 이놈은 왜놈들이 박아놓은 밀정입니다.》

유격대원의 말을 듣는 순간 진평은 정신이 핑 돌았다.

밀정놈을 좋은 사람으로 잘못 보아온 놀라움도 컸지만 농사군의 너울을 쓰고 기여든놈까지 알아내여 집을 불태워버리시는 장군님의 신묘하기 그지없는 술법에 더욱 놀랐다.

드디여 왜놈들은 몽땅 녹아났다.

유격대를 맞이한 마을은 온통 환희와 감격으로 끓어번졌다.

김일성장군님을 에워싸고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울고 웃었다.

설레이는 군중들앞으로 헌병대장놈이 끌려나왔다.

이번엔 헌병대장놈의 칼에 목이 날아날번한 농군이 그에게 따졌다.

《어떠냐? 이젠 네입으로 말해봐라.》

헌병대장놈은 머리를 떨군채 중얼거렸다.

《당신의 말이 옳았소.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오.》

정진평은 한껏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아이들에게 웨쳤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누구를 따라야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을수 있느냐고 물었지? 내 이제는 똑똑히 대답해주마.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영웅중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충심으로 받들어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라야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

아이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하늘에 날아오른 《동아일보》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의 타격은 일제놈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였으며 항일유격대의 활동에 대한 소식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뢰소리와도 같았다.

항일혁명의 20성상에 있었던 수많은 대소전투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보천보전투는 그야말로 놈들의 머리우에 떨어진 불벼락이였으며 유격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이 삼천리에 퍼져감은 번개뒤의 우뢰소리처럼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늘에 날아오른 《동아일보》에 대한 전설도 생겨나서 널리 전해지게 되였다.

1937년 6월 4일이였다.

이 하루도 지구의 자전과 함께 조용히 흘러가는듯, 그저 평범하고 례사로운 날로 스쳐지나는듯하였다.

그런데 이날밤에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깨지는것과도 같은 《특대사변》이 일어나서 일본대본영과 조선총독부가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신 항일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쳐서 불바다로 만들었던것이다.

항일유격대한테 보천보가 녹아났다는 급보를 받은 총독놈은 불에 덴듯 놀라서 수하 각료들과 군종, 병종사령관들, 경찰두목들을 호출하여 무슨 《긴급회의》요, 《비상조치》요 하는것들을 련발하면서 복닥소동을 벌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신 유격대의 습격을 받은 보천보가 풍지박산이 되였다는 소식! 이것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생벼락이였다.

1936년 10월 총독 미나미자신이 직접 두만강을 건너 도문까지 찾아가서 관동군사령관 우에다와 마주앉아 이른바 《도문회담》이라는것까지 벌려놓고 국경경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지금까지 국경경비를 강화하느라고 악을 써왔는데 그 회담이 있은지 겨우 반년이 좀 지나서 보천보쪽에 구멍이 뚫리다니…

총독 미나미는 아직도 《도문회담》때 우에다와 약속한 회담내용이 귀에 쟁쟁하였다.

《조선에 주둔시킨 병력을 원산이북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조선과 만주의 군경들과 밀접한 공동작전을 벌려 항일유격대의 국내에로의 진출을 막는 대책을 세울것. …》

이런 밀약을 하고 수많은 병력과 경찰들을 국경지대에로 밀어넣고 포대를 건설하였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만것이다.

경찰관주재소는 유격대의 기관총사격을 받아 벌둥지가 되고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등은 불길에 휩싸여 재가루로 날아올랐다.

살아남은 경찰놈들은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다못해 돼지우리에까지 뛰여들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반대로 보천보

인민들의 기세는 솟구치는 불길처럼 높아졌다.

《치안숙정과 국경경비에 만전을 기하여 **김일성**유격대의 남하, 국내진출을 어떤 일이 있든지 막으라》는것이 대본영의 지시였는데 이를 어쩐단말인가.

불길한 소식은 련이어 날아들었다. 《토벌》대가 유격대를 추격하다가 구시산과 간삼봉에서 피멸되였다는것이였다.

총독 미나미는 이러다가는 유격대가 총독부의 담장을 뚫고 자기 방에 뛰여들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장군이 총독부에라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물에 빠진놈처럼 헤덤비며 《토벌》대요, 국경수비대요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몽땅 풀어서 유격대추격에 내몰고도 무엇인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미흡한 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던 총독은 《아차!》하는 비명을 질렀다.

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친 소식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조처하는것을 그만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만일 이 소식이 조선13도에 퍼지는 날에는 큰일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김일성**장군한테로만 쏠리는게 민심인데 거기에 보천보습격의 소식까지 전해진다면 그것은 실로 불붙는 장작더미에 기름퍼붓기가 되고말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유격대는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어서 전멸되였다.》고 선전하던 총독부의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지 않을게 아닌가.

그러니 문제는 철저한 보도관제를 실시하여 보천보소식이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는 사람이 적으면적을수록 리롭고 많으면많을수록 해롭다.…

총독은 급히 헌병사령관과 경무총감을 전화로 찾아서 신문사들을 봉쇄하고 경비진을 강화하여 한장의 신문도 새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그런데 몇분후에 경무총감한테서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

《각하, 기자놈들이 어느새 냄새를 맡았는지 기사를 써서 신문을 다 찍어놓았습니다. 몽땅 압수하여 제지공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같은 소리 작작하라. 제지공장에 날라가느라면 또 소문이 날것이고 초지기에 넣느라고 보는놈이 또 생길것이고 … 이래저래 다 새여빠지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신문사마당에 쌓아놓고 몽땅 불태워버리라.》

총독과 경무총감사이에 이런 전화가 있은지 30분도 못되여 《동아일보》사 마당에서는 경찰, 형사들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이미 찍어놓은 신문들에 불을 달았다. 인쇄잉크가 묻은 종이장들은 손바닥만한것일지라도 모조리 압수하여 불더미에 던져넣었다.

세찬 불길이 하늘에 치솟고 검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사회여론의 대변자인 신문사를 점거하고 찍어놓은 신문마저 압수하여 불태워버리는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라고 항거해나서는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 감옥으로 끌어갔다.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 모든것을 지휘하던 총독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길길이 타오르는 불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벼락은 이미 쳤으니 우뢰소리야 어찌 막을수 있겠는가? 타래쳐오르는 연기를 쳐다보며 중얼거리던 총독은 아연해지고말았다.

솟구치는 연기와 함께 하늘가득 날아오른 불티들이 하얀 종이쪼각들로 변하여 해빛에 반짝이면서 눈송이들처럼 하늘가를 날아다니는것이였다. 그것들은 점점 아래로 날아내렸는데 가까이 날아내린것을 보니 모두 옹근 한장의 신문들이였다.

(이게 무슨 조화란말인가!)

총독은 가까이에 날아내리는 신문 한장을 덥쳐잡았다.

《태풍이 지나간뒤의 보천보》

이런 제목을 특호활자로 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씌여있었다.

《보천보의 주요건물들은 모두 하루밤사이에 재가 되고말았다. 주재소는 가련하게도 벌의 둥지같이 되고 면사무소는 아직도 연기가 물물 나고 기둥과 들보가 탄 시꺼먼 숯덩이만 앙상하게 남았으며 문서더미도 모두 타서 바람에 재만 날리고있었다.》

총독은 신문을 손에 든채 혼맹이가 빠진듯 하늘가득 날아내리는 신문들을 쳐다보았다.

어떤것들은 바람에 날려 하늘끝으로 끝없이 흘러가고 또 어떤것들은 땅에 거의 날아내렸다가 다시 솟구쳐서 구름속으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서울시민들은 하늘에서 함박눈송이처럼 날아내리는 신문들을 받아쥐고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유격대한테 보천보가 얻어맞고 만신창이 되였다고 가슴후련해하였다.

신문기자들과 인쇄공들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소문을 막으려는것은 그물로 바람을 막으려는것만치나 어리석은 일이다.》고 코웃음을 쳤다.

아닌게 아니라 보천보에 대한 소문은 곧 온 세상에 퍼지고 말았다.

《동아일보》신문사마당에서 어마어마한 경비와 감시속에 불태운 신문의 불티들은 바다를 건느고 대륙을 넘어 날려가지 않은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유럽의 도시들에서도 하늘에서 날아내리는 신문을 받아보고 놀라와했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들판에서도 하늘에서 날아내리는 신문을 받아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한다.

《벼락은 피할수 없고 우뢰소리는 막을수 없으니 장차 <대일본제국>은 어찌될것인고!》

총독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장탄식을 하였다.

절망에 빠진 총독의 몰골이 또 신문에 나서 사람들을 웃기였다고 한다. 어떤 고장에서는 불태우려던 신문이 절대로 타지 않더니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라서 푸른 하늘을 가리울만큼 커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올려다보고 보천보소식을 한날한시에 알게 되였다는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왜놈들의 악착스러운 보도관제속에서도 《동아일보》에 보천보전투소식이 실린것은 력사적사실이다. 그것은 국내인민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는 건재해있으며 일제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한다. 그러니 조국해방의 날은 반드시 오며 멀지 않았다.》는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유격대의 《연놀이》

제2차세계대전의 불길이 온 세상을 휩쓸고있는 속에서 인류력사가 1940년대에 방금 들어섰던 때였다.

황해도 신평군 남천리(당시)에 있는 하람산의 수림속에서 왜놈들의 군용비행기가 《정체불명의 인원들》의 사격을 받고 추락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정체불명의 인원들》이란 후에 밝혀진데 의하면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이라고 한다.

최근 이곳에서 여러개의 밀영자리들과 구호나무들이 수많이 발굴되였는데 이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보아진다.

왜놈들의 군용비행기가 추락된 이 사건에 바탕을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생겨나서 항간에 널리 퍼졌는데 그중 《유격대는 일본놈비행기를 종이연 가지고 놀듯한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태평양전쟁이라는것이 터진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일본군 평양항공대장은 기분이 한껏 들떠서 라지오앞에 서있었다.

라지오에서는 일본군 항공대들이 태평양상공에서 적함들을 련속 타격하고있다는 소식을 전하고있었다.

《잘한다! 잘해! 계속 타격하라! 무적황군의 항공대들아! 용맹을 떨치라!》

항공대장은 마치도 제가 직접 전투를 지휘하기라도 하는듯이 주먹을 내흔들며 소리질렀다.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섬의 진주만을 불의에 공격하여 수많은 미국함선들을 순식간에 불바다에 처넣고 련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먄마, 타이 등 방대한 땅덩어리를 타고앉은데는 실로 항공대의 공적이 크다고 그는 자부하고있었다.

《군함의 굴뚝으로 용감히 날아들어 미국의 함선을 바다속에 처박은 〈용사〉도 항공대에서 배출되였고 오스트랄리아상륙의 돌파구도 항공대가 열었다. 제국의 항공대는 비록 청소하지만 맹금과도 같이 용감무쌍하게 싸우고있다.》

그는 이렇게 자부하고있었다.

우월감과 자존심이 강한자들은 남을 깔보기마련이다. 항공대장은 륙군이나 해군따위는 코끝아래로 내려다보았으며 《땅에서 기여다니는 버러지들》, 《물에서 헤염치는 물오리들》이라고 깔보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대신 항공대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뽐내였다.

항공대장의 이 삐여져나온 자존심과 우월감은 동창생이며 친구인 륙군련대장과의 충돌을 자주 야기시켰다.

둘사이의 언쟁은 언제나 **김일성**장군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군하였다.

어느날에 있은 일이 바로 그랬다.

《실로 **김일성**유격대는 불가사의한 존재일세. 글쎄 노조에사령부가 20만의 병력을 투하해서 몇해째 진땀을 빼고있지만 매번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맞기만하고 어쩌지를 못하지 않나.》

륙군련대장은 이렇게 개탄하였다. 항공대장은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땅에서 기여다니는 족속들이 무슨 큰일을 치랴 하고 비웃고있었다.

《그래도 내노라 하는 장군들이 모여앉아서 골을 쥐여짜서 만들어낸 계책이라는게 백두산동북부일대를 빙 둘러싸서 커다란 그물안에 유격대를 가두어넣은 다음 한켠으로는 큰 그물을 조이고 다른 한켠으로는 그안에 작은 투망들을 던져 〈소멸〉하겠다는건데 젖먹은 힘까지 다해서 포위를 해놓고 보니 유격대는 어느새 모래속으로 물 스며들듯 빠져버리고 낡은 신발짝조차 없단말이야.》

륙군련대장은 계속 지껄였다. 하늘에 떠다니는 항공대에서는 이런 고충은 알리가 없을것이라는 색조가 말마디마다에서 느껴졌다.

항공대장은 여전히 비웃는듯한 웃음을 띠우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두더지가 논뚝밑에서 살아도 제멋에 산다더니…)

이렇게 비웃고있었지만 륙군련대장은 그런것에는 아랑곳없이 계속 제말만 했다.

《그런데 이것 보게. 그 **김일성**유격대가 이번엔 땅바닥에 흩어진 수은알갱이들처럼 소부대로 갈라져가지고 만주일대와 조선천지에 쫙 퍼졌는데 그걸 무슨 수로 붙잡겠나. 지금 전민항쟁의 화약을 총독부 엉뎅이밑에까지 장진하고있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누가 알겠나? 요새는 꼭 지뢰매설구역을 걸어다니는 심정일세. 어디에서 쾅하고 튈지 통 가늠이 안가서 불안해죽겠네. 이게 다 누구의 조화인줄 아나? 그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장군의 조화일세. 이 세상의 기적이란 다 위인들

이 만들어낸다더니…》

항공대장은 더는 참지 못하고 빈정거렸다.

《임자들 륙군제씨들이 수고를 하누먼. 그덕에 우리 항공대도 <덕>을 보고있네. 땅에 착륙했을 때나 좀 편히 쉴가 했지만 비행장이 유격대의 습격을 받군하거든…》

《비꼬지 말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둥지는 땅우에 있는 법이야. 뭐니뭐니해도 군대의 기본이야 륙군이지. 칭기스한이나 나폴레옹이 비행기를 가지고 방대한 령토를 점령했었나?》

륙군련대장은 슬그머니 약이 오르는듯 어성을 높였다. 그러나 항공대장은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약을 올렸다.

《어랍쇼. 임자한테 륙군대신자리를 맡겼더라면 땅크나 대포는 다 내던지구 말을 타구 화살을 날리면서 남양군도로 내달렸겠네. 알아두게. 현대전의 승패의 열쇠는 공군이 쥐고있다해도 파언이 아니야.》

《흥, 공군제일주의자… 두고보세. 까마귀같은 공군이 얼마나 맥을 추나. …》

그들의 언쟁은 여기서 끝났다. 륙군련대장이 발길로 문을 차고 나가버렸던것이다.

바로 이렇게 가버린 륙군련대장도 지금 제국의 항공대들이 올리고있는 《혁혁한 전과》에 대한 소식을 듣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항공대장은 그의 심정을 엿보고싶었다.

그는 승리자나 된듯이 기분이 둥 떠서 휘파람으로 일본군가를 불어댔다.

이때였다. 뜻밖에도 륙군련대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양덕지방의 북대봉, 남대봉일대와 곡산군 하람산일대에 유격대의 소부대성원들이 나와서 활동하고있는것이 분명한데

술한 인원들을 파했으나 종적을 찾지 못했다는것이다. 그래서 항공정찰을 해서 유격대가 있는곳을 좀 알아내달라는 청탁이였다.

《흥, 별수 있나. 땅에서 기여다니는것들이… 이제야 머리를 숙이고 빌붙는군. …》

항공대장은 더욱 기분이 좋아져서 그의 청탁을 쾌히 들어주었다.

한대의 《히엔》비행기가 리륙하였다. 항공대장은 비행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유격대의 종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단단히 신칙을 했다. 물론 친구의 《청탁》을 성실히 풀어주려는 생각같은것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오로지 륙군련대장에게 항공대의 《위력》을 한번 똑똑히 보여주어 그의 코대를 짓눌러놓아야겠다는 심산뿐이였다.

그런데 비행기가 리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기분을 잡쳐버리는 불쾌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하람산일대를 공중선회하며 정찰을 하던 비행기가 정체모를 인원들의 소총사격에 맞아 추락되였다는것이였다.

이것은 실로 상투자랑이 고비에 올랐을 때의 탈모증이라 아니할수 없는 일이였다.

항공대장은 분통이 치밀어 사건현장으로 달려갔다.

울창한 수림속에 처박힌 비행기의 동체는 산산쪼각이 나고 다행히도 목숨이 붙어있는 비행사는 만신창이 되였다.

항공대장은 비행사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고 비행기의 잔해들은 양덕역으로 실어내게 하였다.

그가 방금 사건현장에서 돌아와서 지친 몸을 팔걸이걸상에 내던졌을 때 륙군련대장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고생했겠네. 비행기가 소총사격에 맞아 떨어졌다면서?》

이것은 분명 야유였다.

《네가 그렇게도 뽐내는 비행기라는게 소총에도 맞아 떨어지는 정도냐?》는 조롱이 진하게 느껴졌다.

전화통을 내던지듯 놓은 항공대장은 륙군련대장에게 별별 상스러운 쌍욕을 한참이나 퍼부었다.

다음날 비행사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항공대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비행사의 침대곁에는 의사들과 간호원들 그리고 이미 입원해있던 다른 환자들이 둘러서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느새 왔는지 륙군련대장도 있었다.

항공대장은 그것이 염병에 까마귀 찾아온것만큼이나 싫고 얄미웠다.

그런데 밉다하면 깨꼬한다고 륙군련대장은 부상당한 비행사의 머리말에 앉아서 그를 위안하는체 하면서 어떻게 되여 비행기가 추락되였는가고 미주알고주알 캐물으며 이야기를 시키고있었다.

비행사는 자기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륙군련대장이 고마와서 눈물까지 글썽해가지고 자기가 추락되게 된 경위를 지지콜콜이 다 이야기하고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양덕지구의 북대봉, 남대봉일대를 거쳐서 하람산을 살피며 몇고패째 선회할 때였습니다. 나는 수림이 조금 성긴 산판을 살피다가 문득 흰 백포를 쓴 여라문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옳지, 항일유격대 소부대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는 곧 무전을 날릴가 하다가 한번 더 알아보고 알리려고

하람산상공을 다시한번 선회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백포자락의 사람들이 나의 비행기를 향하여 총을 겨누는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행기는 고도 1,500메터 상공을 날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총이 발사되는지 푸른 연기가 총구에서 피여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총구에서 은백색의 실오리가 튀여나와서 나의 비행기를 향하여 솟구쳐올라오는것이 보였습니다. 은백색 실오리는 끈덕지게 내 비행기를 따라오더니 기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걱정도 안했습니다. 황소가 거미줄에 걸려 갈길을 못가랴 하는 배심이였습니다.

나는 그따위 실오리같은것은 개의치 않고 산발을 선회하며 공중감시를 계속했습니다. 흰 백포자락의 사람들은 고개를 잔뜩 젖히고 나의 비행기를 쳐다보더군요. 나는 우선 기총사격으로 백포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마음먹고 기수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나의 비행기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흰 실을 당기면 끌려가고 놓아주면 날아오르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들이 하자는대로였습니다. 조종간도 쓸데가 없었습니다. 무전기도 벌써 고장이 났는지 감도가 없었습니다. 폭탄을 던지려 해도 스위치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관총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비행장으로 내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오리를 당기고 놓아주지를 않아서 그럴수도 없었습니다. 계기를 보니 벌써 기름이 거의 떨어져갔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벌써 백포자락의 그 사람들에게 넋을 빼앗기고 그들의 손탁에서 놀아나고있었습니다. 잠시후에 갑자기 돌개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나의 비행기는 광풍

에 휘말린 종이쪼박처럼 휘날리다가 산비탈에 기수를 처박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적황군의 비행기가 거미줄에 걸려 떨어진셈이군. …》

륙군련대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중얼거렸다.

그러자 둘러섰던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항공대장은 그것이 자기 들으라는 수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질렀다.

《여기선 무슨 정신나간 짓들이요? 환자는 지금 안정해야 하오.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요. 정신분렬증이 온 환자의 말을 곧이 듣지 마시오.》

항공대장은 이렇게 소리치며 사람들을 내쫓으려 하였다. 그것은 륙군련대장에 대한 치미는 분격과 함께 비행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했기때문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쓴다, 천하도술을 마음대로 쓴다 하는판에 황군의 비행기를 아이들이 종이연 가지고 놀듯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일본제국》의 항공무력이라는게 한갖 《연놀이감》취급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였다. 그래서 항공대장은 《지금 비행사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신분렬증환자의 감투를 강짜로 씌우려 했던것이다.

그런데 이런 난사라구야… 비행사가 항변을 하는게 아닌가.

《나는 정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죄다 사실입니다.》

《그럴수 없소. 유격대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비행기를

가지고 연놀이를 어떻게 한단말이요.》

항공대장은 생억지를 썼다.

이때였다.

《목격자》가 나타났다. 이곳 경찰서장이 사건현장에서 모든것을 다 보았다는 《목격자》를 데려왔던것이다.

《잘했소. 서장,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게 뚜렷해질게요.》

항공대장은 구원자나 만난듯이 《목격자》에게 어서 이야기하라고 재촉을 하였다. 그가 《증언》을 한다면 비행사를 무작정 《정신분렬증환자》로 몰아치울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걸었다.

어수룩해보이는 농사군아낙네는 자기가 본것을 이야기하였다.

《내가 나무를 하려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잔등에 흰 백포자락을 쓴 사람들 여라문명이 걸어가고있지 않겠어요. 나는 겁이 더럭 나서 큰 나무뒤에 얼른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활랑거려 두손을 앞가슴에 꽉 대고 이상한 사람들을 살폈어요. 이때 하늘에서 와릉와릉하더니 비행기 하나가 날아왔수다. 그 비행기가 하람산상공을 너덧바퀴 돌았을 때였어요. 백포자락의 사람들가운데서 제일 어른인듯한분이 옆에 있는 군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령병동무, 동무는 어려서 연놀이를 해봤소?>

목소리가 천둥같이 우렁우렁해서 나한테까지 드릉드릉 울려왔어요.

<장군님, 고향에서 송아지적에 동무들하구 재미나게 연놀이를 하군했습니다.>

옆에서 걷고있던 나어린 군대가 쨍쨍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어른이 다시 묻더군요.

<오늘 유격대식으로 왜놈비행기를 가지고 연놀이를 하고싶은 생각은 없소?>

<저 왜놈의 비행기를 가지고말입니까?>

어린 군대는 말뜻을 알수가 없는지 <사령관동지>라는 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소. 자, 이 <실탄>으로 저 비행기를 쏴보오. 그러면 곧 연놀이를 해볼수 있을게요.>

<사령관동지>라고 하는 어르신은 어린 군대에게 이상하게 생긴 탄알 하나를 내주시였어요. 어린 군대는 메고있던 총에 탄알을 재우더니 비행기를 향해 추켜들더군요. 나는 눈정기를 모았습니다. <땅>하는 총소리와 함께 푸른 연기가 풀썩 나더니 총구에서 하얀 은백색 실오리가 하늘로 솟구쳐올라서 비행기를 휘감는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제멋대로 돌아치던 비행기가 코꿰인 송아지처럼 꼬마군대가 하자는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지 않겠어요. 글쎄 어느새 비행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종이연신세가 되고말았어요. 흰 백포를 쓴 사람들은 이것을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껄껄 웃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는 꼬마대원의 손탁에서 놀아나다가 돌개바람이 휘익 불자 팽글팽글 돌면서 땅바닥에 곤두박히고말았습니다.

백포의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와하 웃음통을 터뜨립디다.

<하하하… 장군님, 오늘 연놀이를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정말 장군님의 술법은 귀신도 울고가겠습니다.>

군대들은 모두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니… 뭐 장군님?!)

나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가슴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저 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란말인가!

<하하하… 연놀이를 재미있게 했다?>

장군님이시라는분이 우뢰같은 소리로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어떻소? 왜놈들의 비행기라는게 알고보니 별게 아니지 않소.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하나의 비행기를 가지고 연놀이를 한게 아니라 일제의 공군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 한셈이요. 우리는 왜놈들의 공군뿐아니라 륙군, 해군 아니 일본땅전체를 아이들 놀이감처럼 여겨야 하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눈굽이 뜨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김일성**장군님의 술법은 천지에 통하는것이여서 비행기나 땅크따위도 아이들 장난감처럼 되고만다는 생각이 듭디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흰 백포자락을 한번 펄럭이더니 그들은 어데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

아낙네의 말은 여기서 끝났다.

항공대장은 그만 입이 붙어버리고말았다.

양양땅의 명약수

강원도 양양땅 방아다리라는곳에 효능이 높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약수터가 있었다고 한다.

양양땅이라면 관동8경의 하나인 락산사가 있는곳이다. 그런데 락산사의 절경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으냐 아니면 방아다리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이 더 많으냐 하고 물으면 선뜻 어느쪽이라 대답하기 어려울만큼 약수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약수는 너무도 신령스러워서 《만병특효》의 명약이라고 소문이 대단했다.

수레에 실려왔던 앉은뱅이가 이 약수를 마시고는 다리를 펴고 제발로 돌아갔고 지팡막대를 뚝딱거리며 찾아왔던 소경은 눈을 뜨고 산천경개를 구경하며 돌아갔고 자식을 보지 못해서 속태우던 아낙네들은 한달만에 태기가 있더니 떡돌같은 아들을 보았다는것이다.

약수터마을에는 백살을 넘긴 늙은이들이 수두룩하여 《백살촌》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으니 이 약수가 얼마나 이름높았는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한때 중국의 진시황도 부하들을 시켜서 이 약수를 떠갔다고 하고 몽골의 칭기스한도 여러번 사람들을 보내여 이 약샘

을 길어갔다고도 한다.

《방아다리약수》라는 유별난 이름의 연원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하늘의 옥황상제가 이곳 약수이야기를 듣고 심복신하 하나를 내려보내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였다. 그 신하는 곧 양양땅에 내려와 물통에 약수를 가득 담은 다음 이왕 왔던김에 자기도 한모금 마셔보고싶어 허리를 굽혔다.

수정같이 맑고 얼음같이 차거운 약수를 마셨더니 대번에 가슴이 활짝 열리고 정신이 가을하늘처럼 맑아지면서 온몸에 황소같은 기운이 부쩍부쩍 내뻗쳤다.

《참으로 신기로운 약수로다!》

옥황상제의 신하는 너무도 약수에 마음이 끌려서 한모금 마시고는 돌아서고 돌아섰다가는 또 마시고…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놓았다 하며 약수터를 떠나지 못하였다.

이때 자기의 신하가 약수를 떠가지고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던 옥황상제가 땅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자기의 신하가 약수터곁에서 다리를 들었다놓았다 하면서 떠나지를 못하고있는게 아닌가.

《경은 어찌하여 약수터곁에서 다리만 들었다놓았다 하는고?》

옥황상제는 우뢰를 짜르릉 울려 그에게 물었다.

깜짝 놀란 신하는 얼결에 《제 다리는 방아다리가 돼서 그러나이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이 약수터에 《방아다리약수터》라는 이름이 붙었다는것이다.

바로 이 천하명약수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약수

를 뜨러 오셨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어서 그 이름이 더욱 높아지였다.

앓고계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약수를 뜨러 오셨댔다는것을 보면 아마도 강반석어머님께서 안도현 소사하에 계시던 그무렵인듯하다.

방금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수령님께서는 멀고도 험한 싸움길을 떠나셔야겠는데 앓고계시는 어머님을 뒤에 두고 떠나자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여러모로 마음을 쓰시던 끝에 명의 한사람을 데려다가 진찰을 해보게 하시였다.

그런데 그의 말인즉 어머님께서는 조선에서 태여나시여 조선에서 자라신 체질이기때문에 반드시 조선의 약수를 마셔야 효력이 있을것이라는것이였다.

특히 조선땅 강원도 양양땅에 있는 방아다리약수가 제일 좋을것이라고 했다.

어머님께 지극하신 수령님께서는 곧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시였다.

그런데 이런 야단이라구야. …

어느새 수령님께서 조선으로 약수를 뜨러 나가신다는것을 냄새맡은 왜놈들은 조선천지에 용모파기를 돌리고 현상금도 내걸고 양양땅에 이르는 수천리길에 군경들을 촘촘히 배치하였다.

특히 약수터주변에는 난다긴다 하는놈들로 《특수대》를 무어 철통같이 경비진을 치고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런 삼엄한 경계선을 뚫고 양양까지 다녀온다는것은 그 한걸음한걸음이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는 일이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말씀올렸다.

《장군님! 부디 위험한 걸음을 삼가해주십시오. 그 악귀갈은 왜놈들이 수천리 먼길에 함정을 촘촘히 파놓고 밤낮으로 지키고있을터인데 어찌 그 위태한 길을 스스로 가시려 하옵니까? 약수는 저희들이 떠올테니 장군님께서는 부디 가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마을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 길에 지금까지 익혀온 몇가지 술법을 한번 시험해보고싶어 그러니 마음들을 푹 놓으라고 위로하시고는 흔연히 길을 떠나시였다.

한편 왜놈들은 약수터주변에 감쪽같이 매복진을 치고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감시를 했다. 실로 개미 한마리 얼씬할수 없을만큼 삼엄한 경계진을 쳐놓았다.

놈들은 그 누가 이런 경계진을 뚫고 약수를 길러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약수터를 찾아오시였다. 그것도 안도에서 떠나셨다는 소식이 전화로 전해진지 한시간도 못되여 약수터에 나타나셨다.

《이놈들아, 무슨 얼빠진 소리냐? 네놈들이 지나치게 긴장하다나니 신경과민증에 걸려서 비슷하면 모두 **김일성**장군으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보고를 받은 대장놈은 코웃음을 쳤다.

그러다가 대장놈은 문득 정신이 펄쩍 들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랬더니 경무총감은 자기와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욕바가지를 퍼부

었다.

《이 바보천치같은놈아, 그런 험지에 스스로 뛰여들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는것은 그만큼 무비의 담력과 천지에 통하는 신통력을 지니고있어서 백만의 강적이 달려든다고 해도 자신이 있기때문에 단행한것이야. 비슷하면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 알았는가?》

《핫!》

대장놈은 전화로가 아니라 경무총감앞에서 직접 명령을 받기라도 하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서둘러 약수터로 달려갔다.

약수터에 이른 대장놈은 병졸들을 약수터로 한치한치 접근시켰다. 은밀히… 은밀히… 조심, 조심…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귀신도 모르게 포위망을 좁히고있는 이런 긴박한 정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연하게 우물가에 앉으시여 약수를 물통에 담으시였다.

왜놈들에게는 그 태연함이 더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래서 가슴을 조이며 한치한치 접근해왔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대장놈의 신호에 따라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뛰쳐일어나며 한꺼번에 소리쳤다.

《꼼짝말앗!》

그 순간이였다.

수령님의 모습은 눈앞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왜놈들은 경악실색하여 넋을 잃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때였다. 앞산마루에서 산이 드르릉 울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수령님께서는 앞산마루에 걸터앉으시여 통쾌하게

웃고계시였던것이다.

왜놈들은 달을 쳐다보며 짖어대는 어리석은 개들처럼 산마루를 쳐다보며 법석 굶었다.

수령님께서는 그 꼴을 조롱이라도 하시는듯 웃고계시다가 산봉우리들을 마치도 징검다리를 딛고가시는듯하시면서 멀리 북쪽으로 가시였다.

왜놈들은 그만 얼혼이 나가서 턱 떨어진 개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산봉우리만 쳐다볼뿐이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왜놈들은 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였다.

김일성장군이 또 약수를 뜨러 온다는것이였다.

(어찌하여 약수를 뜨러 또 떠났단말인가?)

왜놈들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종잡지를 못하였다.

수령님께서 약수를 뜨러 또 힘든 걸음을 하시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그이께서 떠오신 약수를 받으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타이르시였다.

《네 성의는 고맙다만 너야 이 어머니 한사람을 일으켜세우기 위해서 애쓸 몸이 아니지 않느냐? 왜놈의 철알을 맞고 앓고있는 독립군대장도 일으켜세워야 하고 속탈이 나서 늘 고생하는 반일부대사령도 일으켜세워야 하고… 이 약수는 독립군대장에게 가져다주거라!》

그리하여 수령님께서는 그 약수로 독립군대장을 하던 사람을 일으켜세우시고는 또 떠나셨던것이다.

왜놈들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놓치지 않으리라고 단단히 별렀다.

약수터주변에는 전번보다 몇배나 더 많은놈들을 잠복시켜 놓고 앞산, 뒤산의 봉우리마다에도 군경들을 배치하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또 약수터에 나타나시였다.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왜놈들은 잠시 멍청해있었다.

어느쪽에서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 본 일이 전혀 없었던것이다.

왜놈들은 또다시 손에 땀을 쥐고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대장놈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시에 덮쳐들었다.

순간 수령님께서는 또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바람을 덮치기라도 한듯 허탕을 친놈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였다.

혹시 어느 산봉우리에 오르지나 않았나 해서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어느새 저 아래 골짜기로 빠져나가고 계시였다.

산봉우리에서 지키고있던놈들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돌부처처럼 굳어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며칠후 또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번에도 방아다리 명약수를 앓고있는 어느 반일부대두령한테 먹여서 그를 일떠세우시고는 또 약수를 뜨러 떠나셨다누만. …》

두번씩이나 연거퍼 실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김일성**장군께서 또 약수를 뜨러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경무총감은 악이 올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밥통같은놈들아, 그러다간 주저앉았던 조선독립운동자들을 다 일으켜세우고말겠다. **김일성**장군을 어쩌지 못하겠

으면 약수터를 당장 메워버리라.》

왜놈들은 수백명의 군경들을 동원하여 방아다리약수터를 메꾸어버렸다. 그리고는 《이제는 **김일성**장군이 더는 약수를 길어갈수 없게 되였다.》고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때이른 안심이였다.

사람들속에서 수군수군, 소곤소곤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양양땅 방아다리 명약수는 원래 그 물줄기가 백두산에서부터 뻗어내린것이였다누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천지에서 그 원줄기를 찾아내시고 그 약수를 삼천리에 부어주시여 2천만동포를 모두 장수로 만드시려고 하신다오.

이제 그 장수들이 들구일어나서 왜놈들을 족칠판이니 그 힘을 무엇으로 막을텐가? 왜놈세상이 망할 날도 코앞이지. …》

왜놈들은 아연실색하고말았다.

《이제는 백두산에 뿌리를 둔 명약수를 온 나라, 온 민족이 받아마시구 **김일성**장군을 따라 반일항전에 떨쳐나설판이니 이를 어쩬단말인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할뿐아니라 나라와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김일성**장군과 백두산의 명약수의 신비무궁한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일제놈들은 이렇게 탄식을 하였다고 한다.

서울 한복판에 나붙은 이상한 그림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한해전에 있은 이야기이다.

한창 기세를 올리던 삼복무더위도 수그러들기 시작한 8월 중순의 어느날이였다.

조선총독부 총독놈은 늘 하는 버릇대로 두팔을 가슴우에 엇가로 지르고 창문가에 다가서서 맞은켠 부민관쪽을 내다보고있었다.

부민관이라면 서울바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크고도 이름있는 극장이다.

황군이 이룩한 《전과》를 소개하는 커다란 광고판이 세워져있었다.

총독은 바로 이 광고판앞에 사람들이 하얗게 모여서서 목을 잔뜩 빼들고 광고의 내용을 들여다보고있는 모습을 즐겨 내다보군하였다.

물론 이 광고판도 총독자신이 직접 생각해내서 만들어세운 그의 《창안품》이였다.

(호박순은 돌려놓을탓이구 민심은 이끌어줄탓이야.)

이렇게 생각한 총독은 태평양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황군의 《전과》를 요란스럽게 소개선전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기운을 아예 눌러버리고 제국시책에 노긋노긋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꾀하였다.

제아무리 민족정신이 강하고 독립열망이 높다해도 동양천지를 모조리 엉치밑에 깔고앉은 《대일본제국》의 위세앞에서야 제까짓것들이 어찌 기가 꺾이지 않고 고분고분해지지 않을수 있겠느냐는것이 그의 지론이였다.

《강약이 부동》이고 《강승약패》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리치인즉 《강대무비한 위력》을 널리 보여주면 약자들은 물론이요, 제가 강하다고 자부하던자들조차도 기가 죽지 않을수 있겠느냐는 타산이였다.

세해전 12월 8일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미군의 주요해군기지를 불의에 공격하는것으로써 첫 포성을 울린 태평양전쟁에서 황군은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먄마, 타이 등을 단숨에 점령하고 오스트랄리아에까지 혀끝을 들이댔다.

어찌보면 세상천지가 통채로 왜놈의 아가리에 들어가는상싶었다.

실로 기고만장한 일본의 《위세》는 5대양 6대주를 부들부들 떨게 하였고 아연실색케 하였다.

총독은 바로 이런 《위세》를 내흔들어서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꺾어버리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사흘이 멀다하게 황군의 《전과》를 《축하》하는 행사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미친듯이 선전하도록 하였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머리를 쥐여짜서 생각해낸것이 《광고판작전》이다.

(식민지족속들이란 대포소리, 총소리를 꽝꽝 울려야 명주고름처럼 만문해지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한 총독은 남양군도에서 발사하는 《대일본제국》의 대포소리가 조선에서 메아리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광고판을 세우고 황군의 《전과》를 소개하려고 작정했던것이다.

광고판에는 대형세계지도를 붙여놓고 황군이 점령한 나라들에 일장기를 꽂아서 표시하고 한쪽에는 황군의 전투장면들과 상대국들의 패전상을 찍은 사진들을 잔뜩 붙여놓았다.

세계정세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부민관에 연극구경을 온 관람객들까지도 광고판앞으로 몰려들어서 이곳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총독은 이것을 바라보는것이 사뭇 즐거웠다.

그런데 《민심의 호박순》은 제아무리 일본쪽으로 돌려놓으려 해도 《백두산》쪽으로만 돌아가니 이게 야단이였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지도에서 《대일본제국》의 색갈로 물든지도 서른해가 썩 넘고 그동안 《대본영》의 고위급막료들이 《반도정책》을 놓고 수백수천번이나 모의를 거듭하면서 얼려도 보고 때려도 보고 《동조동근》이요, 《내선일체》요 하는따위의 기만극도 연출해보았지만 도무지 이발이 들지를 않는다.

김일성장군유격대는 열다섯해 가까이 항전을 계속하며 제국의 심장에 면바로 칼을 겨누고 돌진해오고 이에 고무된 조

선인민은 불꽃만 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폭탄으로 되여가고있다.

얼마전에는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이 《궐기결의》모임을 열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일성**은 조선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지사이고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절대한 세력을 가지고있다. 더욱 **김일성**은 비상히 신체가 완전경철할뿐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역시 다우수한자들이다. 전주시에도 그의 부하가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다. 우리는 서로 신체를 단련하여 그의 부하가 되여 조선독립을 위하여 전력하자.》

(이것은 총독부에서 발간하는 《고등외사월보》 제51호에 실린 기사의 한 토막이다.)

이뿐이 아니였다. 기사에는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에 이어 이번에는 성진시안의 선진적청년들이 **김일성**장군유격대와 련계를 가지고 투쟁할 목적밑에 《백두산회》라는 조직을 뭇고 활동한다는 내용도 있고 지어는 재일조선인들속에서도 조국의 해방과 독립의 열망이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는데 가나가와에 살고있는 조선학생들은 이미 조선인민혁명군과 련계를 가지고 활동하고있다는것도 실려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통이란말인가!

총독이 이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여느날보다는 몇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판앞에 모여서 설레이고있는것이 눈길을 끌었다.

오늘은 웬일일가?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뿌둥한 눈길로 광고판을 한번 훑어보고는 《홍》하고

코바람을 불며 돌아서버리군하는것이 상례였는데 오늘만은 무엇에 끌렸는지 광고판앞에서 어깨성을 쌓고 좀처럼 떠나지를 못하고 법석이는것이였다.

총독은 은근히 호기심이 동해서 경무총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무총감, 부민관앞 광고판에 무엇이 실렸길래 오늘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모였나?》

《각하, 이상한 그림이 한장 나붙어서 그럽니다.》

경무총감은 마치도 제 잘못이라도 되는듯이 주저주저 대답하였다.

《이상한 그림? 어떤 그림인데…》

《우리가 붙여놓은걸 다 떼여서 찢어버리구 그자리에 붙여놓은걸 봐서는 분명 불온한 그림이 틀림없는데 그 뜻을 잘알수가 없습니다.》

《그래? 본관이 한번 슬그머니 나가보겠네.》

총독은 송수화기를 놓고는 다시 창문가로 다가가서 부민관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사람들이 붐비고있다.

총독은 서둘러 변복을 하고는 부민관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뒤에 다가섰다.

굉장히 큰 종이에다 선이 진하게 그려붙인 이상한 그림은 정말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제일 우에다 둥근해를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하오리를 입은 사나이를 그리고 또 그 사나이앞에다는 밥상을 세개나 그려놓았는데 그 세개의 밥상들은 모두 벌컥 뒤집혀져서 그릇들이며 수저들이 방바닥에 마구 딩굴고있는 그림이였다.

어찌보면 장난꾸러기들의 락서같기도 하였고 또 어찌보면 의미심장한 그림같기도 하였다.

어쨌든 총독부가 내붙인것들을 다 떼여 팽개치고 그자리에다 넌떡 붙여놓은것을 보면 허술히 대할 일이 아니여서 총독은 심중해졌다.

제 방으로 돌아온 총독은 정무총감, 경무총감을 비롯한 고위급인물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경무총감, 당신은 반도의 〈치안〉을 맡은만큼 부민판앞광고판에 나붙은 그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심중히 대해야할줄로 생각하는데 그래 그 정체도 모르고 뜻도 알기 어려운 그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총독은 먼저 경무총감에게 물었다.

《어쩌구저쩌구 할거나 뭐 있습니까. 당장 떼여버리면 그만일텐데…》

경무총감은 대수롭지 않은걸 가지구 뭘 그리 생각하며 그러느냐는투로 대답하였다. 그것이 총독의 부아를 돋구어놓았다.

《바보같은 소리… 광고판에서 그림을 떼여버릴수는 있지만 이미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그림은 어쩔텐가? 그건 철없는 아이들이 남의 집담벽에다 숯덩이로 그려놓은 락서가 아니야. 언제인가 남대문에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을 그린 그림이 나붙었을 때의 일을 벌써 잊었는가?》

총독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경무총감은 그만 자라목이 되여 주저앉았다.

장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대문담벽에 나붙은 그림을 허술히 대했는데 그 내용이

《소화 20년에 새 세상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바람에 온 서울바닥이 술렁거리고 삼천리가 들썩거리게 되였었다.

총독은 부민관앞 광고판에 나붙은 그림도 꼭 그런류의 그림일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총독각하, 제 생각에는…》

약삭바르기로는 따를자가 없는 정무총감이 총독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어서 말해보게.》

총독은 기대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총독각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단 그림은 나붙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본이상 그들의 머리속에 새겨진 그림은 지울수 없습니다. 만일 그 그림의 뜻을 남대문에 나붙었던 그림처럼 풀이해놓는 날에는 그 후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그림의 뜻풀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여 화를 복으로 만드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총감은 낮간지러운 소리로 총독을 추어올리면서 제 할소리를 줄줄 내리엮었다.

《화를 복으로?》

총독이 호기심을 가지고 되물으며 마주보자 정무총감은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제 생각을 마저 털어놓았다.

《허허… 그럴듯해! 신통한 묘방을 찾아냈어.》

총독은 정무총감을 칭찬하고는 곧 사람을 보내여 광고판앞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림의 뜻을 풀이해주도록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변복을 하고 광고판앞으로 나가 사람들짬

에 끼웠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싶었던것이다.

광고판앞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이상한 그림을 쳐다보며 제나름의 해석을 하느라고 떠들어대고있었다.

《허허… 여보게, 이건 대낮에 술을 처먹구 밥상을 뒤집어엎은 술주정뱅이를 비웃는 그림일세.》

《흥, 당치 않은 소린 작작하게. 밥상밑에 술병이나 술잔같은건 그림자도 없지 않나?》

《하긴 그래. 혹 저 하오리쟁이가 제 녀편네하구 한바탕 싸우고 화가 나서 밥상을 차던진거나 아닌가?》

《그럼 녀편네는 왜 안보이구 밥상은 셋씩이나 되나?》

《불망나니 서방녀석 꼴보기 싫어서 어데로 훌짝 내뺀 모양이지. 그런데 상이 세개나 뒤집혀진건 나두 모르겠네. 허허허…》

《하하… 허허…》 웃음통이 터졌다.

이때 정무총감이 내보낸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연설이나 하듯이 이렇게 소리쳤다.

《여러분! 이 그림의 뜻을 그렇게 엉터리로 풀이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선 맨우에 둥근 해가 비치고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일본사람이 있구. 그러니 해의 나라인 일본 즉 <대일본제국>의 모든 국민은 밥상을 세개씩이나 차려놓고 풍청거리며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곧 다시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빈그릇들만 딩구는걸 보니 잘 살긴 쥐뼉다귀가 잘 살아?》

《여보, 얼토당토 않은 소리 그만하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 밥상은 왜 뒤집어놓았소? 저 하오리쟁이는 미친놈이 분명한것 같소.》

《흥, 그 털보상판을 보니 불한당이 틀림없소.》

… … …

총독은 그만 자기네의 해석이 숱한 사람들의 입방아에 짓이겨져서 콩가루가 되여버리는바람에 도망치듯 자리를 뜨고 말았다.

총독도 사라지고 왜놈종자들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자 웬 젊은이 하나가 사람들앞에 나섰다.

《여러분! 이 그림은 백년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라가 언제 해방되는가를 알려드리는것입니다.》

젊은이가 말꼭지를 떼자 사람들은 갑자기 격정에 휩싸여 설레이였다.

《뭐 **김일성**장군?!》

《**김일성**장군님이 어쨌다오? 거 앞에서 좀 크게 소리쳐주오. 뒤에선 안들리오.》

《제길, 조용들 하라구. 그래야 작은 소리로든 큰 소리로든 말을 할게 아니요?》

잠시후 주위가 조용해지자 젊은이가 말을 계속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선 해가 하납니다. 그러니 한해 다시말해서 한해만 지나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해만 지나면 어쨌다는거요?》

《말허리를 뚝뚝 꺾지 말라구. … 계속하게스리.》

주위가 또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다음 말을 듣고싶어하는

기색이 력연하였다.

《그 아래에 왜놈이 있고 상이 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거요? 제길 답답하다.》

《마저 들으십시오. 왜놈이 있고 아래에 상이 세개이니 <왜놈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놈세상이 어쨌다는거요?》

성미급한 사람이 또 재촉을 했다.

《넨장, 목마르다구 우물 들어마시겠나? 조용합세그려.》

또 조용해지자 젊은이가 계속했다.

《그런데 세개의 상 즉 세상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왜놈세상이 뒤집힌다는건가?》

축기빠른 누군가가 앞장을 쳤다.

젊은이는 그때에야 큰 소리로 웨쳤다.

《그렇습니다. 먼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한해만 지나면 왜놈세상은 뒤집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왜놈들이 싱가포르를 점령했소, 뉴질랜드를 타고앉았소 하고 기고만장해서 날뛰지만 한해만 지나면 꼭 망합니다. 벌써 왜놈들이 망할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광솔기름을 짜라, 놋식기, 놋수저를 바쳐라, 발악하는것을 보십시오. 왜놈세상은 멀지 않아 꼭 망합니다. 신심을 잃지 말구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싸워나갑시다. 징용이요, <보국대>요 하는데로 끌려가지 말고 <헌납금>이요, <공출>이요 하는 것도 바치지 맙시다. 한해만 지나면 왜놈들은 꼭 망하구 우

리 나라는 해방됩니다.》

젊은이는 말을 마치자 사람들속으로 잦아들고말았다.

사람들은 그림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다시 쳐다보았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도 더 뜻이 깊고 귀중한 국보처럼 생각되였다.

《한해만 지나면 왜놈세상은 뒤집힌다!》

참으로 신통한 그림에 신통한 뜻풀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신통한 해석》에 이런 수정을 가하고있었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왜놈세상은 뒤집힌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왜놈들은 반드시 망하고 우리 나라는 반드시 해방된다는것이다.

이때로부터 서울바닥에는 한해만 지나면 왜놈들은 망한다는 소문이 번개뒤의 우뢰소리처럼 퍼졌고 그것은 전국각지로 퍼져나갔다.

한해가 지나자 우리 나라는 해방되고 왜놈세상은 정말 망하였다.

거리로 떨쳐나온 서울시민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천리혜안과 선견지명은 딱딱 들어맞는다고 감탄하면서 부민관앞 광고판에 나붙었던 그림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다고 한다.

천 리 혜 안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계시면서도 조선삼천리를 손금보듯하신다.》, 《장군님께서는 방안에 앉아서도 천리밖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환히 꿰뚫어보신다.》는 전설이 수많이 전해졌다.

그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도 있다.

1. 자석에 먹칠하는 아이

항일유격대가 도처에서 일제놈들을 족쳐대던 1930년대말의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관동군사령부산하 《특수공작대》대장 시마끼가 천황의 치하를 받고 《표창휴가》를 가게 되였다는 통보를 받으시였다.

왜병들에게 유격대군복을 입혀 가짜 유격대를 만들어가지고 도처에 내몰아 로략질을 하게 함으로써 유격대의 영상을 흐리게 한 《쐐기작전》의 《공로》로 《표창휴가》를 받았다는것이다.

《허허… 그놈이 기뻐하겠구만. 허지만 이번 휴가길이 얼마나 즐거운 려행길로 되겠는지는 두고 봐야 하겠는걸. …》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전령병을 불러 어찌어찌하라고 지시를 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버들숲이 우거진 릉라도의 기슭을 따라 한 신사가 천천히 거닐고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양복에 맥코모를 쓰고 단장을 짚은 사나이는 관동군사령부소속 《특수공작대》대장 시마끼였다. 그는 지금 《표창휴가》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던 길에 평양에 들려 체류하고있는중이였다.

《반도는 참으로 탐나는 땅이다. 첫째는 풍요함이 탐나고 둘째로는 수려함이 탐나고 셋째로는 그 위치가 탐나거든.》

이것은 조선을 강제로 타고앉기전에 이등박문놈이 자주 외우던 말이다.

이 말은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놈의 검은 속심을 말해주기도 하는것이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풍요하고 수려하며 위치 또한 좋은곳이라는 평가가 깃들어있다. 금새가 나가지 않으면 탐낼 까닭이 없다.

조선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번씩이나 들렸을 때에는 모란봉과 릉라도의 아름다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것이 새삼스레 이상한 감이 들었다.

왜 그때에는 이 평양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였던가? 잠시 생각을 더듬던 시마끼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사실 그때에는 《휴가》라기보다 유격대와의 싸움에서 련전

련패하여 만신창이 되였기때문에 지칠대로 지치고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서 몸을 추세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던 길이였으니 《강타》를 먹고 《셈세기》를 당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 산천의 아름다움같은데 마음을 줄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 그가 책임진 《특수공작대》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천황의 치하까지 받았던 것이다.

시마끼의 기분은 꼭 호랑이 잡은 포수요, 황소를 멨다친 씨름군같아서 마치도 바람을 안은 돛폭처럼 잔뜩 부풀어있었다.

그가 《특수공작대》대장으로 임명된것은 두해전 이맘때였다.

그무렵 《대일본제국》의 대본영에서는 치렬한 론쟁이 벌어지고있었다.

세계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2차세계대전은 불가피한것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각축전에 뛰여들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였다.

… 세계대전이 터지면 여기에 휘말려들어간 렬강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자기의 식민지들에 관심을 돌릴 겨를이 없을것이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번개같이 이곳을 타고앉아야 한다. 그러자면 뭐니뭐니해도 우선 **김일성**유격대를 《소멸》해야 한다. 유격대를 없애지 못한채 싸움판에 뛰여든다는것은 심장에 생긴 불치의 종양을 그대로 둔채 경기에 출전하는 권투선수와 같은것이다. 속성으로 이 《심장병》을 치료하자면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처방》이란 다름아닌 군부의 우유부단하고 무맥한자들을 《결패있고 유능한》자들로 교체하는것이다. …

이것이 론전의 기본골자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항일유격대

《토벌》에 신역을 다해오던 《로장파》들이 밀려나고 젊고 패기있는 장교들이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 《새로운 처방》에 따라 우에다사령관이 떨어지고 새로 관동군사령관의 감투를 뒤집어쓰게 된 우메즈대장은 지독한 호전분자 노조에소장을 《토벌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20여만의 병력을 배속시켜주었다.

이것은 《대일본제국》이 유격대《토벌》에 얼마나 큰힘을 돌렸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수 있게 한다.

이통에 《특수공작대》대장자리를 하나 얻은 시마끼는 의기양양해서 《작전》에 착수하였다.

그는 20여만이라는 병력이 얼마나 방대한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이만한 병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또 세계전쟁사를 더듬어보면 하나의 옹근 전쟁을 치르는데 20만의 병력이 동원된 례도 그리 흔치 않다.

그 어느 국가의 정규무력도 아닌 조선의 유격대와 싸우기 위해 이렇듯 방대한 병력을 쏟아부었으니 실로 동서고금의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실로 한마리의 참새를 잡기 위해 수십문의 대구경포를 발사하는것과 같은 정치만화, 군사만화가 아닐수 없다. 더구나 희비극은 그런 방대한 병력과 자금을 투하하고도 유격대를 어찌지 못하는것이였다.

김일성유격대를 《창해일속》이라고 하면서도 20만의 방대한 무력을 투하한것은 무엇때문인가? 력량대비의 수학적계산을 잘못한탓인가? 아니면 《창해일속》을 《소멸》하는데도 20만의 병력을 내몰지 않으면 안될 무맥한 군대가 황군이였기때문인가?

아니였다. 수학적계산의 착오도 아니요, 황군이 무맥한 군대여서도 아니였다. 황군은 무적을 뽐내는 군대였고 수학적타산은 정확하였다.

그처럼 방대한 병력을 들이밀고도 어쩌지 못하는것은 전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이 그만큼 강력한 존재였기때문이다.

실로 **김일성**유격대는 20만이 아니라 200만, 2,000만의 병력을 동원한다 해도 어쩌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존재였다.

시마끼는 《특수공작대》대장이 되자 한번 솜씨를 보이리라 이발을 사려물었지만 신통한 묘방이 떠오르지 않아 전전긍긍하였다. 그러다가 겨우 생각해낸것이 《쐐기작전》이였다.

인민들과 유격대사이에다 쐐기를 박아넣어서 그들관계가 버그러지게 하자는것이였다.

《특수훈련》을 받은 가짜유격대를 도처에 내보내서 유격대의 영상을 흐리게 함으로써 유격대한테로만 쏠리는 민심을 어찌해보자는것이 시마끼의 《기발한 착상》이였다.

바로 이 《쐐기작전》으로 하여 천황의 치하를 받게 되고 《표창휴가》를 가게 되였던것이다.

시마끼는 기분이 붕 떠서 모래불을 거닐다가 신문가게에서 신문 한장을 사들었다. 거기에도 《공비들이 민가를 습격》, 《비적단이 소를 끌어갔다》, 《목격자들은 고발한다》따위의 기사들이 실려있었다.

사람들은 신문을 들여다보며 술렁거리고있었다.

시마끼는 이런 파문의 고안자가 바로 자기라는 자부심과 함께 《성공》의 기쁨에 취해버렸다.

바로 이때였다. 뒤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마끼는 보던 신문을 천천히 내리우고 뒤를 돌아보았다.

휘늘어진 버드나무밑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조그마한 소년 하나를 에워싸고 무엇인가 구경하고있었다.

(저기서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술렁거리는건가?)

시마끼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거기서는 놀랍게도 코끝이며 볼따귀에 먹물이 게발린 여라문살 나는 아이 하나가 말편자처럼 생긴 쇠붙이에 먹칠을 하고있었다.

소년은 쇠붙이에 먹칠을 골고루 하고는 거기에 못이며 손칼따위의 쇠쪼박들을 가져다대보고는 그것들이 달라붙으면 다시 먹칠을 하며 애를 쓰고있었다. 말편자같이 생긴 쇠붙이는 말굽자석이 틀림없었다.

《뭘 그렇게 애를 쓰고있는가?》

시마끼는 호기심이 나서 점잖게 물었다. 그랬더니 이런 말버릇이라구야.…

《보면 몰라요? 자석에 먹칠을 하고있는걸.》

소년은 먹물이 튕긴 얼굴을 쳐들고 시마끼를 빤히 쳐다보며 내쏜다.

《허허… 그건 왜 칠하는가?》

《왜 칠하다니요. 자석에 먹칠을 하면 쇠붙이들이 달라붙지 않는다기에 칠하는데…》

역시 당돌한 대답이다.

《에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자석에 먹칠이나 한다구 쇠부스레기가 달라붙지 않겠느냐?》

시마끼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년에게 눈을 흘겼다.

어랍쇼, 그런데 그의 대답이 또 놀라왔다.

《여보세요, 신사어른님. 가짜유격대까지 만들어놓구 <공

비>요, <토비>요 하면서 유격대를 헐뜯어서 **김일성**장군님께로만 쏠리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마음을 어째보겠다는 시마낀지 사마권지 하는놈보다야 내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놈이 하는짓은 다 내굴을 피워서 해를 가리워보겠다는 어리석은것이야요.》

시마끼는 그만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정면공격이였다. 이런 정면공격을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생각해낼수 있었겠는가? 저 어린것이 어떻게 벌써 《쇄기작전》의 내막을 알수 있으며 그런 기만극으로는 **김일성**장군님께로 쏠리는 조선사람들의 마음을 막지 못한다는 생각까지 할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시킨것이다. 하다면 소년의 뒤에 서있는 그 그림자는 누구일가? 그것은 더 묻지 않아도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들일것이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자기 시마끼를 지켜보고있을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장춘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동안 내내 누군가가 뒤따른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일거일동을 빠짐없이 감시하고있은것 같아서 가슴이 얼어들었다.

《애야, 그건 네가 생각해낸 말이 아닌것 같은데… 누가 시키더냐?》

시마끼는 태연해지려고 애쓰면서 슬며시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서슴없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키가 이렇게 크고 잘 생긴 아저씨 한분이 나한테로 다가오더니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어느날 어느때쯤 어디에 가서 자석에 먹칠을 하며 있느라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할터인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래?!》

시마끼는 더욱 놀랐다. 자기가 여기로 떠나온것은 관동군사령부에서도 한두사람밖에 모르는 일이였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 나타나리라는것도 또 무슨 말을 할것이라는것까지도 미리다 알고있으니 귀신의 조화가 아니고서야 이럴수가 있는가.

《네 이름이 뭐냐?》

시마끼는 혹시 기회가 생기면 수사를 해볼 속심으로 소년에게 물었다.

《그저 경상골 진남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 그래? 그런데 너에게 그런 말을 시킨 사람을 지금도 보면 알수 있겠느냐?》

시마끼는 슬금슬금 한걸음씩 다가들었다. 소년은 별같이 반짝이는 눈으로 시마끼를 바라보며 자랑하듯 대답했다.

《알지 않구요. 주소와 이름까지 적어주고 갔는데요. 그런데 난 글을 몰라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제 글을 아는 사람에게 보아달랠래요.》

《그래. 그걸 좀 보자꾸나. 나도 글을 좀 안다.》

《그래요?! 마침이군요.》

소년은 얼른 옷섶에 손을 찌르더니 절반 접은 종이쪽지 하나를 꺼내서 시마끼에게 내밀었다.

시마끼는 종이쪽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주소　백두산
이름　조선인민혁명군

종이에 이렇게 씌여있었기때문이다. 시마끼는 종이쪽지를

쥔 손을 와들와들 떨었다.

《얘야, 난 이런 글자는 모르겠구나.》

시마끼는 소년에게 종이쪽지를 얼른 돌려주고는 도망치듯 달아나버렸다.

그때로부터 《자석에 먹칠을 한다고 쇠붙이가 끌리지 않으랴.》는 말이 생겨서 평양바닥에 널리 퍼졌다고 한다. 이것은 곧 왜놈들이 제아무리 유격대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고 모략을 꾸며도 **김일성**장군님께로만 쏠리는 조선인민의 마음은 막지 못한다는 말이였다. 이와 동시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앉아계시면서도 왜놈들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어보고계신다는 말이 널리 퍼졌는데 이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지니신 천리혜안의 예지와 지략을 칭송하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2. 제손으로 가면을 벗게 하시다

시마끼가 《표창휴가》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그를 만나준 륙군대신은 오찬까지 차려주면서 이렇게 칭찬하였다.

《시마끼중좌, 임잔 우리 제국의 자랑일세.》

《각하, 만주광야에 백골로 묻힌대도 <대일본제국>에 한줄기 빛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시마끼는 감지덕지하여 벌떡 일어섰다.

《아아, 앉게. <대일본제국>에 한줄기 빛을 보태는것도 좋

은 일이지만 **김일성**장군의 빛발을 한줄기라도 없애버리는게 더 중요하네. **김일성**장군이 찬란한 빛을 뿌리며 비상히 빠른 속도로 높이 솟아오를수록 <대일본제국>은 그만큼 빛을 잃고 침몰하는거나 같지 않겠나. 이게 문제야.》

《명심하겠습니다.》

시마끼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엄숙한 자세를 지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시마끼는 곧 가짜유격대를 이끌고 도처에 출몰하면서 맹활동을 벌렸다.

시마끼가 유격대너울을 쓰고 미친듯이 돌아치면서 물을 흐려놓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분기를 누르시는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교활하고 비렬한놈들.… 이놈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소.》

그러시고는 곧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저에게 임무를 주십시오. 당장 그놈들을 전멸시키고말겠습니다.》

지휘관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임무를 달라고 욱욱했다.

《이것 보오. 우리가 그놈들을 족쳐버리는건 간단하오. 그러나 우리가 그놈들을 쓸어버리면 그 내막을 모르는 인민들은 유격대가 유격대를 쳐없앴다고 놀라와할것이구 왜놈들은 또 왜놈들대로 유격대가 제편끼리 죽일내기를 했다구 입이 닳도록 악선전을 할거란말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지휘관들은 그만 자기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뒤더수기를 긁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일본군대로 변장을 하고 그놈들을 족쳐버립시다.》

한 지휘관이 불쑥 나서며 말씀올렸다.

《허허… 그건 더욱 안되오. 그러면 또 일본군대한테 유격대가 전멸했다고 떠들어댈거요.》

장군님께서는 그것 역시 신통한 방법이 못된다고 하시였다.

그 지휘관 역시 머리를 긁으며 앉아버렸다.

지휘관들은 입을 다물고 장군님만 바라보았다. 모두가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치심을 주기를 바라는 눈치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놈들이 제손으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해야 합니다. 시마끼 〈특수공작대〉 놈들이 돌아치고있는 쟈페즈마을 뒤산에 부대를 은밀히 매복시키고 차후명령을 기다리시오.》

유격대는 곧 출발하여 쟈페즈마을뒤에 높이 솟아있는 뾰족봉에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장군님께서는 벌써 다 생각이 계셨구나!)

유격대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유격대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치는 시마끼의 가짜유격대놈들이 빤히 내려다보였다.

푸덕거리는 닭들을 량손에 쥐고 히히닥거리는놈들, 농군의 집에서 둥글황소를 끌어내는놈들…

그 모양을 내려다보는 유격대원들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마을을 살피시다가 전령병을 부르시여 이렇게 분부하시였다.

《이제 동쪽으로 한 천메터쯤 가면 울창한 수림속에서 사냥군령감 하나가 어슬렁거리고있을게요. 동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사냥이 잘됩니까?〉 그러면 그 령감은 〈별로 시원치를 않네.〉 하고 대답할게요. 그러면 동무는 그 령감에

게 이렇게 말하시오. 〈아수라아저씨에게 손님이 기다린다구 전해주실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령감이 〈전해줄수 있지. 그야 어렵겠나? 그런데 어데서 기다린다구 해야 하나?〉 하고 물을거요. 그러면 〈쟈페즈마을에서 기다린다구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돌아오시오.》

전령병은 곧 농민옷을 갈아입고 길을 떠났다.

정말 울창한 숲을 헤치면서 동쪽으로 천메터쯤 가니 사냥군령감 하나가 숲속을 어슬렁거리고있었다.

전령병은 장군님께서 하라고 한대로 하였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사냥군령감이 있다는것을 아셨을가?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안팎을 손금보듯 하신다더니 정말이구나!

그런데 도대체 이 사냥군령감에게 손님이 기다린다는 말을 해서 시마끼놈들의 가면을 어떻게 벗겨버린다는걸가?)

전령병은 돌아오면서도 노상 이런 의문속에 잠겨있었다.

그때로부터 한시간도 못되여서 왜놈군대들이 까맣게 달려와 쟈페즈마을을 은밀히 포위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왜놈들을 끌어오셨을가?)

유격대원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내막인즉 이렇게 된것이였다.

사냥군령감은 적의 밀정이였다. 《아수라》는 불교에서 《싸움군》이라는 소리인데 일본 《토벌》대장놈의 별명이였다. 이놈은 일본으로 《표창휴가》를 가게 되였으나 유격대 《토벌》에서 《군공》을 세우고 《개선장군》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토벌》에 나선놈이였다.

공명에 들뜨고 야심만만하여 무분별하게 날뛰는놈이였으니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고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였다.

《아수라》놈은 부대를 이끌고 긴급출동하여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와서 쟈페즈마을을 포위하였던것이다.

드디여 싸움이 붙었다.

《흥, 제놈들끼리 실컷 싸워봐라!》

유격대원들은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에 탄복하여 마을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가짜유격대놈들은 총알소나기를 맞고 무리로 쓰러졌다.

《사격을 중지하라.》

시마끼놈은 웅뎅이에 처박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시마끼네가 유격대로 변장한 자기네 편이라는것을 꿈에도 알리없는 《아수라》네 패거리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사격을 퍼부었다.

급해맞은 가짜유격대놈들은 겉에 입었던 유격대군복을 부랴부랴 벗어던졌다.

갑자기 《유격대》가 황군으로 변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감투끈이야?》

왜놈들은 얼이 빠져서 입을 딱 벌리고 마주 쳐다볼뿐이였다.

《에구머니… 저놈들이 왜놈들이였구나! 어쩐지 노는 꼴이 이상하다 했지. …》

마을사람들은 가짜유격대가 죽어자빠지는것을 보고 통쾌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한동안 제편끼리 콩볶듯 총질을 해대던 왜놈들은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야 사격을 멈추었다.

시마끼네 패는 거의 전멸되고 부상당한놈들이 몇명 살아남았을뿐이였다.

《바보같은 자식아, 어데다 총질이냐? 우린 관동군사령부 직속 <특수공작대>다.》

시마끼는 악에 받쳐 승냥이처럼 날뛰였다.

《개자식아, 우리가 그걸 알게나 뭔가? 유격대옷을 입구 유격대흉내를 내니 총알소나기를 맞았지. 그래 그게 우리 잘못인가?》

《아수라》놈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

두놈이 이렇게 싸울 때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유격대원들에게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제편끼리 싸우다 죽다남은놈들은 유격대의 총알에 마지막 한놈까지 쓰러지고말았다.

유격대《토벌》에서 《공》을 세운 다음 《개선장군》마냥 표창휴가를 가겠다고 날뛰던 《아수라》놈은 묘지속으로 《영원한 휴가》를 가고말았다.

그리고 시마끼놈은 유격대군복을 제손으로 벗어버리고 왜놈군복을 드러낸채 시체로 변하고말았다.

시마끼는 숨이 지면서 이렇게 자인하였다고 한다.

《〈쐐기작전〉은 어리석은짓이였다. 연기를 피워가지고는 태양을 가리울수 없다. …》

쟈페즈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왜놈의 밀정이 누군지도 환히 꿰뚫어보시고 주문을 한번 외우시기만하면 제아무리 감쪽같이 가장한놈도 제손으로 허울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유격대지휘관들속에서는 《천만 별무리가 다 합쳐져도 태양을 대신할수 없듯이 우리 지휘관들의 지혜를 아무리 합친다해도 **김일성**장군님의 예지를 따를수가 없다.》는 경탄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고 한다.

담배꽁초를 《체포》한 헌병대장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몇해전 경성땅에 들린 유격대공작원들은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렸다.

그런데 그 유격대원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배워주신 술법들을 써서 바람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불쑥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입김을 한번 《후》하고 불면 철길레루가 엿가락처럼 녹아 비뚤어지기도 하였다.

주먹만한 돌을 집어서 던지면 수류탄이 되여 꽝꽝 터지고 짚고다니던 지팡막대를 척 내대면 총이 되여 뚜루룩 땅땅 총알이 나갔다.

한번은 청진역에 기차 하나가 들어와있었는데 다른 기차가 또 들어오는것을 보고는 레루를 척 휘여서 이미 있던 기차와 새로 들어오는 기차를 서로 뽀뽀를 시켜서 풍지박산을 만들어놓았는데 그통에 기차방통들은 콩가루가 되고 거기에 탔던 500명도 넘는 왜놈군대들은 눈깜빡할사이에 송장으로 변해버렸다.

어느날 경성경찰서 서장놈의 방에서 유격대를 붙잡을 작전회의를 하고있었는데 책상우에 놓여있던 작전지도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날아나가는바람에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들은 기절할만큼 놀라서 작전지도를 잡을 생각도 못하

고 멍청히 서있다가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여나갔으나 작전지도는 벌써 하늘로 훨훨 날아서 구름사이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헌병대장놈은 경찰서장에게 《밥통같은놈!》이라고 욕사발을 퍼부었다. 그러자 밸이 불끈 치솟은 서장놈은 《어디 한번 네가 나서서 유격대를 잡아봐라. 네놈이라고 하늘 쓰고 도리질하는 재간이 있다더냐.》하고 대들었다. 그래서 제놈들끼리 으르렁거리며 싸움질을 하던 끝에 이번에는 헌병대장놈이 직접 나서게 되였다.

이무렵 유격대공작원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돌아가던 길에 하루밤 묵어가려고 약수골에 들리였다.

그런데 그날밤 그만 사달이 났다.

유격대원들이 약수터주인놈의 집에서 자고있을 때 이놈이 왜놈에게 밀고를 했던것이다.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서둘러 문밖으로 나서니 그때는 날이 훤히 밝아올무렵이였는데 골짜기로는 왜놈군경들이 약수터주인놈을 앞세우고 은밀히 기여오르고있었다.

이번 기회에 자기의 솜씨를 한번 보여주리라 단단히 결심한 헌병대장놈은 의기양양해서 졸병놈들을 내몰았다.

정황이 매우 급하다는것을 깨달은 유격대원들은 약수터뒤에 솟아있는 뾰족봉으로 올리뛰였다.

산마루에 이른 두 유격대원은 바위에 걸터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담배 한대씩을 붙여물었다.

적들은 인차 올라오지를 않고 군용트럭으로 인원들을 계속 실어다가 산을 완전히 둘러쌌다.

헌병대장놈은 포위망이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야 졸병놈들을 올려밀었다.

총을 꼬나든 군경놈들은 봉우리를 향해 한치한치 기여올랐다.

산마루로 오르면오를수록 병졸들의 사이는 점점 가까와졌다.

삼각추처럼 생긴 뾰족산은 우로 오르면오를수록 그 둘레가 점점 작아졌기때문이다.

중턱쯤 올라왔을 때는 놈들의 팔꿈치가 서로 마주닿을만큼 가까와졌다.

그래서 두겹으로 포위를 하고 올려밀었고 산마루를 가까이할무렵에는 세겹네겹으로 포위진을 형성하였다.

그때까지도 두 유격대원은 바위에 걸터앉아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손을 뻗치면 잡힐듯이 가까운 거리에 이르렀을 때 헌병대장놈은 제일 《용감》하고 날래다는놈들로 《돌격대》를 뭇고 그들을 앞에 세웠다.

한걸음 두걸음… 왜놈들은 두 유격대원한테로 접근했다.

그래도 유격대원들은 태연히 앉아있을뿐이였다.

《손들엇!》

《돌격대》놈들이 일시에 소리치며 와닥닥 달려들려는 순간이였다.

홀연 유격대원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말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돌격대》놈들은 물론이고 그 뒤에 겹진을 치고 톺아오르던놈들도 눈이 휑해서 두리번거렸다.

유격대원들이 앉아있던곳에는 담배꽁초 두개가 놓여있을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정말 귀신의 조화라고 안할수가 없는 일이였다.

헌병대장놈의 머리에는 불쑥 **김일성**장군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장군님한테서 여러가지 술법을 배웠기때문에 변신술, 둔갑술 별별 도술을 다 쓴다는 말이 생각났다.

졸병놈들도 모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담배꽁초곁에 접근하지를 못하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다.

《유격대가 담배꽁초로 변한것이 분명하다. 체포하라.》

헌병대장놈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졸병놈들은 어쩔바를 몰라 허둥거리면서 헌병대장놈만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도대체 담배꽁초를 어떻게 체포한단말인가?

《야, 바보같은 자식들아, 뭘하고있는가? 물병에다 집어넣고 마개를 닫으라.》

헌병대장놈이 또 버럭 소리를 질러서야 그중 《용감하다》는 놈이 군용물통에서 물을 쏟아버린 다음 담배꽁초를 향해 조심조심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담배꽁초가 유격대원으로 다시 변하면서 자기 가슴에 총알을 쏘아박을것만 같아서 사지를 와들와들 떨면서 손을 뻗쳤다. 그리고는 마치도 숯불덩이라도 집듯이 냉큼 집어서 물병안에 넣고는 날쌔게 마개를 닫았다.

《잡았다!》

그놈은 범이라도 잡은듯이 소리쳤다.

《과시 영웅남아답다.》

헌병대장놈은 그 《용감》한 졸병놈을 칭찬하였다.

그리고는 물병마개가 열리지 않게 단단히 얽어맨 다음 그것을 다시 자루안에 넣고 꽁꽁 묶어놓았다.

헌병대장놈은 이 물통을 세개 중대의 《호위》를 붙여서 헌병대로 호송한 다음 철창안에 집어넣고 메주덩이만한 자물쇠를 철컥 채워버렸다.

다음날 헌병대장놈은 담배꽁초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였다.

《유격대선생, 이젠 손을 들고 항복하시지. 아무리 담배꽁초로 변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소? 철창안에 갇힌 몸인데…》

헌병대장놈은 제법 빈정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물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유격대선생,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만일 당신이 정 말을 안들으면 물병을 철궤안에 넣어서 바다에 처넣거나 용광로에 던져넣고말겠소.》

이렇게 위협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였다.

헌병대장놈은 은근히 화가 났으나 졸병놈들이 보는 앞이라 자제력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덤빌 필요는 없다. 언제든 유격대원은 항복을 하구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테니까.… 물병을 철궤안에 넣구 단단히 쇠를 채운 다음 철창안에 깊숙이 들여놓고 경비를 강화하라.》

헌병대장놈은 담배꽁초를 철창안에 오래동안 가두어두면 유격대원이 배가 고파서라도 다시 사람으로 변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아무리 담배꽁초로 둔갑을 했더라도 먹지 않고야 견딜수 있겠느냐는 심사였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역시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냄새작전》이라는것을 생각해냈다.

헌병대장놈은 졸병놈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철궤앞에다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구 불고기를 하면서 냄새를 피워라. 그러면 창자가 뒤집히고 머리가 핑핑 돌아서 미칠 지경이 될게다.》

그래서 졸병놈들은 담배꽁초를 가둔 철궤앞에다 별별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한쪽에서는 지글지글 불고기를 하면서 요란스레 냄새를 피우는것과 동시에 요염스러운 계집들을 불러다가 호들갑을 떨며 웃기도 하고 간드러지게 노래도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지껄였다.

《유격대선생, 옹고집을 쓰지 말고 투항하시오.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지내며 호강할수 있소.》

하지만 철궤안에서는 여전히 감감무반응이였다.

약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미칠 지경이 된 헌병대장놈은 더는 참지 못하고 드디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좋다. 죽는것이 그렇게도 소원이라면 용광로에 처넣어주지.》

그리고는 철궤를 청진제철소에 싣고가서 기중기에 매달아놓고 또 지껄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투항하라!》

그러나 여전히 잠잠하였다.

기중기의 갈구리에 매달려있는 철궤아래에서는 펄펄 끓는 쇠물이 사품치고있었다. 여기에 던져지면 철궤는 순식간에 녹아버리고말것이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조차 꿈쩍 안하는 유격대원들의 심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단말인가.

헌병대장놈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용광로에 처넣엇!》

철궤는 쇠물가마에 떨어지자 순간에 불길에 휩싸이고말았다.

헌병대장놈은 《유격대원들은 처단되였다.》고 씹어뱉듯 한마디 하고는 돌아서버렸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 또 어데 있단말인가.

《유격대원들은 처단되였다.》고 선포한 그날밤 약수터주인놈의 집에 두 유격대원이 불쑥 나타났던것이다.

약수터주인놈은 기절초풍을 하였다.

《이 더러운 왜놈의 개야, 또 밀고를 해봐라. 백번이구 천번이구 밀고를 해도 우리 유격대는 잡을수 없다. 우린 **김일성**장군님께서 배워주신 삼백예순가지 술법을 임의대로 쓰기때문에 새로도 변하고 담배꽁초로도 변하고 또 바람으로도 변해서 보이지 않게 다닌다. 생각같아서는 네놈을 당장 죽여버리고싶지만 총알이 아까와서 그냥 가겠다.》

두 유격대원은 추상같이 호령을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약수터주인놈의 통보를 받은 헌병대장놈은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김일성**장군유격대는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로구나!》하고 탄식을 했다.

약수터주인놈은 얼마나 혼쌀이 났던지 그후 미쳐버려서 자다가도 《유격대다!》하고 소리치며 뛰쳐일어나고 길을 가다가도 《유격대다!》하고 소리치며 개구장이건 시궁창이건 아무데나 대가리를 쑤셔박고 와들와들 떨군하였다고 한다.

날개달린 백두산장수들

공명출세의 야욕에 환장이 된 중위 요시라가 《양양한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장교》로 지목되여 대본영의 군부에서 일하게 되였다.

천황의 총애를 받는 거물급의 고위막료들과 군부의 실권을 틀어쥔 장군들곁에서 맴돌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가려워하는데를 눈치빠르게 긁어준다면 《고속승진》은 땅짚고 헤염치기련만 요시라는 남들이 금덩이를 던지고도 낚을수 없는 이 복덕방을 마다하고 조선이나 간도로 보내줄것을 고집스레 요구하였다. 그는 군인의 무훈이란 오로지 죽음과 삶이 마주선 아슬아슬한 최전연에 뛰여들어야 떨칠수 있는것이며 포연탄우를 뚫고 시체의 언덕을 넘고 피의 강을 건너서 얻은것이라야 값이 있고 빛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나치게 우월감이 강하고 야심만만하였으며 광신적인 잔인성과 호전성이 뼈속까지 푹 배여있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이 소원성취를 하여 조선으로 건너와서 무산지구 국경수비대에 배치된것은 1930년대중엽이였다.

수비대대장은 대위였는데 제법 《경험있고 로숙한 선배》로 자처하면서 요시라를 철딱서니없는 햇내기로 취급하였으며 선생이 학생을 대하듯 하대하였다.

자존심이 강한 요시라가 이런 대접을 달가와할리가 없었다.

요시라와 수비대장사이에는 언제 곪아터질지 모르나 언제든 꼭 오고야말 《충돌》의 싹이 풀싹처럼 자라고있었다.

요시라는 요시라대로 수비대장을 무능하고 고집세고 곰팡이내가 나는 《늙은 하늘소》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제아무리 아니꼽고 오장륙부가 뒤집힌대도 지금은 자기의 상관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비위를 발라맞추는수밖에…

그런데 그러면그럴수록 수비대장은 더욱더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래라저래라 노복처럼 부려먹으려 들었다.

요시라는 가슴에서 술독 끓듯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반발심을 가까스로 누르며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시어미 보기 싫어 죽을 지경인데 시집간 시누이까지 날아든다더니 일본에서 수비대장의 녀편네가 제 서방을 찾아 건너왔다.

수비대장은 너무 기뻐서 제 녀편네를 축하하는 잔치를 차리고 동료들을 청하였다. 요시라도 물론 이 잔치에 참가했지만 근무년한이 제일 짧다나니 막냉이취급을 면할수 없어서 잡다스러운 심부름을 혼자 다해야 하였다.

그런데다가 일본에서 건너온 수비대장의 녀편네라는게 첫순간부터 제 집 하인처럼 시켜먹으려 들었다.

(홍, 재수없어서… 사또권세가 등등하면 그의 셋째 첩년까지도 사또행세를 하려 든다더니…)

기분이 잔뜩 꼬인 요시라는 슬그머니 수비대장네 집에서 나와버렸다. 그가 병실로 돌아와서 벌렁 드러누워 천정만 바라보며 분을 삭이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수비대장네 집쪽에서 자지러진 총성이 터졌다. 황급히 수비대장네 집에 이른 요시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항일유격대의 습격을 받아서 풍지박산이 된 수비대장네 집에는 잔치에 초대되였던 사람들 전원과 수비대장 그리고 남편을 찾아 수천리를 달려온 그의 녀편네가 시체로 변해 널려있었던것이다. 요시라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자기도 이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분명 시체가 되여 이들짬에 끼여있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요시라는 하늘이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를 떴기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은데다가 꼴보기 싫던 수비대장이 죽었으니 미운 시어미꼴 안보게 된 며느리만큼이나 속이 후련해졌다.

수비대장네 집 담벽에 붙어있는 전화종이 세차게 울렸다.

요시라는 급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댔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행운이란말인가.

전화기에서는 국경수비대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위 요시란가? 이제부턴 네가 그곳 수비대장이다. 곧 임무에 착수하라.》

요시라는 흥분에 온몸을 떨었다.

(꼴보기싫은 시어미 죽어자빠지자 아래방차지가 내차지라더니…)

《핫!》

요시라는 국경수비대 사령관이 앞에 서있기라도 한듯이 몸을 꼿꼿이 펴며 대답했다.

그는 첫탁에 솜씨를 보여서 대번에 창공높이 솟구쳐보려는 욕망으로 온몸을 활활 불태웠다. 요시라는 곧 몇명의 인원들을 떼여서 희생자들을 처리하게 하고는 자기는 수비대를 이끌고 유격대의 행처를 찾아 수색의 길에 올랐다. 유격대가 있을만한곳을 이곳저곳 싸다니다나니 어느새 새벽이 되였다.

이날따라 안개가 어찌나 지독하게 끼였는지 눈알을 뽑아간대도 모를 지경이였다.

수비대장놈네 집에 몰사격을 퍼부어 《축하잔치상》을 《제사상》으로 만들어버린 유격대는 어느새 바람같이 사라지고 후위를 맡았던 두서너명만이 뒤산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은 요시라는 무릎을 탁 쳤다. 성공의 기쁨이 온몸을 휩쌌던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뒤산의 앞면은 밋밋한 경사를 이루었지만 뒤면은 깎아지른 80메터의 벼랑으로 되여있기때문이였다.

요시라는 대오를 이끌고 뒤산으로 기여올랐다.

2명 대 200명! 뒤에는 깎아지른 벼랑이 아슬하게 솟았으니 피할곳이 어데란말인가.

요시라는 유격대가 새여나가지 못하도록 1진, 2진, 3진의 그물을 치고 고지로 한치한치 기여올랐다.

지독한 안개속에서 《붉은 바위》라고 부르는 봉우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봉우리 뒤쪽은 높이가 80메터나 되는 벼랑이다. 이 벼랑으로는 다람쥐도 기여오르지 못한다. 뽀얀 안개속에서 두명의 유격대원이 산마루에 걸터앉아있는것이 보였다. 그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운명을 하느님께 맡겼는지 바위우에 걸터앉아서 담배만 피우고있었다. 요시라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데다가 하루아침에 수비대장까지 되고 이제 유격대까지 체포하여 바치면 공로까지 세우게 되는판이니 행운이 두겹, 세겹으로 찾아왔다고 기뻐하였다. 그는 30메터도 안되는 거리까지 포위망을 좁혔다. 그래도 유격대원들은 태연하게 앉아있었다.

탄알이 떨어졌는지 대응사격도 안했다.

바빠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유격대선생들, 이제는 어쩔셈입니까? 여러 생각말고 손을 들고 투항을 하시는게 어떨가요? 당신들이 앉아있는 그 뒤에는 80메터나 되는 깎아지른 벼랑이니 날개가 없는 이상 뛰여내리지는 못할게구…》

요시라는 제법 이죽거리기까지 하였다.

《여보, 왜 날개가 없겠소? 우린 한대 피우구 날아볼가 하는데…》

유격대원들도 마주 익살을 부렸다.

《그러면 어서 날아보십시오. 유격대어른들이 벼랑을 날아내리는 모습을 한번 구경합시다래.》

요시라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였다. 두 유격대원이 갑자기 몸을 솟구더니 자욱한 안개속으로 사라지고말았다.

《앗!》

요시라도 수비대놈들도 깜짝 놀라서 유격대원들이 앉아있던 바위만 바라보았다. 그들은 유격대원들이 최후를 각오하고 벼랑밑으로 뛰여내릴줄은 정말 몰랐다.

요시라는 손안에 들었던 황금새를 놓쳐버린듯이 아쉽고 분해서 유격대원들이 앉아있던 바위로 달려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안개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요시라는 저 아래 벼랑밑에 두 유격대원의 시체가 놓여있는것이 보일것만 같아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안개속을 주시하였다. 한줄기 바람이 휘—익 불어치자 안개가 밀려가고 벼랑아래가 환히 내려다보였다.

《앗!》

요시라는 또 한번 놀랐다. 80메터나 되는 벼랑밑에 유격대원들이 우뚝 서서 자기를 올려다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요시라각하, 우리가 날아내리는 모습을 구경했소?》

두 유격대원은 놀리기라도 하듯이 소리쳤다.

《?!》

김일성장군의 부하들은 모두 날개가 달렸다더니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안겨왔다.

요시라는 날개달린 백두산의 장수들을 도저히 잡을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요시라는 벼랑에 주저앉은채 놀려대듯 손까지 저으며 멀어져가는 두 유격대원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을 잡겠다는건 망상이야. … 천야만야한 벼랑도 훨훨 날아내리는 그들을 어떻게 잡는단말인가! 유격대를 잡아서 공을 세워보려던 내 꿈은 한갖 허망한 망상에 지나지 않았어!)

요시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돌아섰다.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안에 들어박혔다가 몇달후에는 사직서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가고말았다. 교원이 된 그는 자주 아이들에게 《날개달린 백두산의 장수》들에 대하여 옛말처럼 이야기해주군하였다. 그러다가 《불온사상선전》이라는 죄로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자기가 직접 본 사실을 끝까지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렇게도 출세욕에 불타고 그렇게도 야심만만해서 기고만장했던 요시라가 《용장밑에는 약졸이 없는 법》이라고 손을 들고나앉는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대일본제국》자체가 **김일성**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것이 뻔하다고 수군거렸다.

지금도 대홍단혁명전적지의 붉은 바위에 가면 그 높은 벼랑을 날아내려서 무사히 사령부로 찾아간 두 유격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을수 있다.

그림속으로 사라진 유격대원

한여름의 뜨거운 해빛이 지지는듯 내려쪼이는 산기슭에 림시로 만든 사형장으로 견장을 뜯기운 일본장교 하나가 끌려나왔다.

그는 며칠전까지만하여도 관동군산하의 한개《토벌》대를 지휘하던 미야모도대위였다.

총창을 비껴든 병졸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올가미가 바람에 흔들거리고있는 늙은 참나무밑으로 걸어갔다.

《미야모도, 너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는가? 잡았던 유격대는 놓치구 **김일성**유격대는 온갖 술법을 다 쓰기때문에 잡을수 없다구 선전을 하며 돌아다니구… 도대체 〈대일본제국〉의 장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나는 네놈이 그 유격대원을 세워놓구 총살하려다가 놓쳐버린 그 나무에다 네놈을 매달고말테다.》

관동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앙다문 이발새로 씹어뱉듯 내쏘았다.

새까만 코수염밑에서 얄팍한 입술이 일그러지고 갓 면도를 해서 푸릿한 볼편이 푸들푸들 떨리는것으로 보아 그가 매우 노했다는것을 대번에 알수 있었다.

하지만 목에 올가미를 쓴 미야모도는 모든것을 각오한듯

태연하였다.

《각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격대원을 놓친것은 저의 실수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놀라운 도술때문이였습니다. 용장밑에는 약졸이 없다구 그는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의 부하였기때문에 그 누가 다루었다 해도 나의 처지를 면치 못했을것입니다. 설사 각하자신이 그 유격대원을 다루었다 해도 지금 내가 올라선 이 자리에 각하자신이 올라서게 되였을것이라는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미야모도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얼음에 박밀듯 내리엮었다.

《닥쳐! 저자를 당장 없애버리랏!》

헌병대장은 부아통이 터져서 번쩍거리는 장화로 땅바닥을 구르며 소래기를 질렀다.

나무곁에 서있던 졸병놈들이 발판을 차버렸다. 미야모도는 올가미에 데룽데룽 매달리고말았다.

그러면 어찌하여 미야모도는 이 나무앞에서 총살하려던 유격대원을 놓쳐버렸는가? 도대체 유격대원이 어떤 술법을 썼기에 헌병대장자신이 그를 다루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리 될수 없었을것이라고 그렇게도 확신에 차서 말했단말인가?

열흘전이였다. 미야모도는 지금 자기가 목매달린 이 늙은 참나무밑에서 유격대원 한명을 총살하려고 하였다.

그 유격대원은 불의에 조성된 위급한 정황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을 유인하다가 체포되였던것이다.

유격대원은 오래동안 놈들의 취조를 받았다.

《토벌》대 대장 미야모도는 그를 달래보기도 하고 위협도 해보았으며 모진 고문을 들이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격대

원은 조금도 굽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제가 먼저 지칠대로 지치고 맥이 빠져버린 미야모도가 약이 꾹뒤까지 올라서 이발을 사려물고 개벼룩씹듯 입을 옥물며 소리쳤다.

《당신을 당장 총살하겠소.》

그래도 유격대원은 태연하였다.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오. 죽이고 살리는건 당신의 손에 달린거니까.… 그러나 죽이는게 곧 승리하는것으로 되는건 아니요. 나는 비록 죽더라도 승리자로 남을것이구 당신은 패배자로 남을테니까.》

《뭐라구?》

미야모도는 그만 억이 막혀 두눈을 흡떴다.

《도대체 당신네 유격대는 어찌하여 천하만물이 한결같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앞에서도 그렇게 태평스러울수 있는가?》

《아마 리해가 안될거요. 혹시 당신은 이런 격언을 알고있소? 〈용장밑에는 약졸이 없다.〉…》

《알고있소. 그래 그게 어쨌단말이요?》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처신을 바로 하라는거요. 우리 유격대원들은 천하제일명장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들이요. 하늘에 닿은 그이의 높은 뜻과 천지를 꿰뚫는 탁월한 예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꾸어버릴 그이의 담력과 만민을 한품에 안으실 그이의 덕망은 우리를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되게 하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신으로 만들어주었소.》

유격대원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젖어드는듯 잠시 말을 끊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미야모도의 얼굴은 곰열을 씹은듯이 이그러졌다.

《허세를 부리지 마오. 인간이란 죽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도 끝장나는것이구 신념이요, 의지요 하는것두 다 사라지는 법이요. 그러니 우선 살고봐야 하는거요.》

미야모도는 제법 인생철학을 풀듯 지껄였다.

《하하하, 당신의 인생관이 그럴듯하오.》

유격대원은 한참이나 앙천대소하다가 웃음을 뚝 그치고는 미야모도를 경멸에 찬 눈길로 바라보면서 비웃듯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있을진대 나를 놔주어야 하지 않겠소? 당신도 우선 살고봐야 할테니까…》

《?!》

미야모도는 유격대원의 말뜻을 알수가 없어서 눈만 멀뚱거렸다.

《왜, 리해가 잘 안되오? 우선 〈토벌〉에 미쳐날뛰던 당신을 우리 동지들이 용서를 안할거구 다음은 일본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으니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해야 살아날수 있을게 아니요?》

유격대원이 이렇게 주를 달아서야 말귀를 알아들은 미야모도는 코웃음을 쳤다.

《꿈같은 소리… 지금 〈대일본제국〉은 동양천지를 다 타고앉았을뿐아니라 계속 승승장구하고있소.》

《흥, 호박넝쿨이 한창 기세를 올릴 때는 온 하늘을 다 덮을것 같지만 기껏해야 초가집지붕하나를 다 덮지 못하고 시들어버리오. 일본은 기껏해야 2년내지 3년안에 망할거요.》

유격대원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였다.

《흥.》

이번엔 미야모도가 코방귀를 뀔었다.

《〈대일본제국〉은 2～3년이 아니라 2천년, 아니 3천년이 흘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럼 나하구 내기를 하지 않겠소?》

유격대원은 싱글벙글 웃기까지 하였다. 그 태연자약이 미야모도의 약을 올리고말았다.

《닥쳐! 나는 당장 너를 총살하겠다. 내기를 하겠으면 저승에 가서나 하라.》

미야모도는 얼굴이 벌개서 소리를 질렀다.

《허허… 너무 소리치지 마오. 이건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 예언하신거요. 백년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하신 예언이란말이요.》

《뭐 **김일성**장군님께서?》

미야모도는 저도모르게 받아외웠다.

무엇인가 무시무시하고 소름끼치는 운명이 자기한테로 다가오고있는것만 같아 사지가 얼어들었다.

(삶이 끝나는 마지막 벼랑끝에 서서도 비관과 절망, 동요와 변심을 모르고 당당히 웃으며 세상을 하직할수 있는 그 억척같은 정신력의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김일성**장군을 철석같이 믿는 그 확고한 신념이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수 있는 최대최고의 징벌이 죽음일진대 그것을 초월한 **김일성**유격대를 도대체 무엇으로 굴복시킨단말인가!)

미야모도는 《대일본제국》과 **김일성**유격대와의 대결은 벌써 승부가 결정되였다는 느낌이 들어 온몸을 떨었다.

《이자를 총살하라!》

미야모도는 저도모르게 소래기를 질렀다.

졸병놈들이 달려들어 유격대원을 사형장으로 끌어냈다.

유격대원은 미야모도앞에 멈춰서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나으리, 보아하니 당신은 분명 바로 저기, 나를 세워놓고 총살하려는 저 늙은 참나무에 목이 매달릴 팔자요.》

이 한마디를 남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나무밑으로 걸어갔다. 늙은 참나무밑에 이른 유격대원은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똑바로 서서 푸른 하늘로 두둥실 떠가는 흰구름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격준비!》

미야모도는 악에 받쳐 꽥 소리치며 흰 장갑을 낀 손을 높이 쳐들었다. 자기 운명에 대한 유격대원의 예언이 그만 그의 분통을 폭발시켰던것이다.

그가 《쏴!》하고 한마디 소리치면 《땅땅땅》총성이 메아리치고 유격대원은 쓰러지고말것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미야모도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유격대원의 마음을 흔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왜 없겠소.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아주 많소.》

유격대원은 여전히 평온을 잃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미야모도는 속으로 유격대원도 사람일진대 총구앞에 선 이 순간 생에 대한 열망이 걷잡을수없이 솟구치리라고 짐작하였다. 바로 이런 때에 잘만 구슬리면 뜻밖의 효력을 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비심이라도 베풀듯 말하였다.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유격대원은 서글픈듯이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올해 스물여섯살이요.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소. 그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을거요.》

유격대원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

(옳지! 흔들리기 시작하는구나.)

미야모도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나는 꿈도 컸소. 이제 우리 나라가 해방되면 꼭 화가가 되여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리라 마음먹고있었소.》

유격대원은 또 말을 끊었다. 미야모도는 유격대원이 지금 마음속으로 울고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제아무리 돌심장을 가졌다하더라도 죽음앞에서야 어찌 랭담할수 있겠는가. 무엇인가 성공의 순간이 가까와오고있는듯한 느낌이 온몸에 흘러들었다.

《그래 마지막으로 부탁할것은 없는가? 부모들이나 동생들에게 전하고싶은…》

미야모도는 유격대원의 심리를 자극할만한곳을 찔렀다.

《아니… 그런 부탁은 하고싶지 않소. 마지막으로 그림이나 한장 그려보고싶소.》

유격대원은 푸른 하늘과 푸른 산발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그림을 그려보고싶단말이지? 이건 확실히 생에 대한 간절한 애착에서 나온것이다. 이제 조금만 더 생에 대한 애절한 욕망을 건드리면 틀림없이 생각을 바꿀거야.)

미야모도는 벌써 성공의 순간을 확신하며 자기의 병졸들에게 호기있게 지시했다.

《종이와 붓, 색감을 가져다주라.》

그리하여 유격대원은 결박당했던 손을 풀리우고 그림을 그리게 되였다.

《고맙소. 당신들에게도 이렇게 너그러운데가 있었구만.》

유격대원은 여전히 태연하게 미야모도를 조롱하는 어조로 말하고는 종이를 펴놓고 붓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려는것일가? 당장 가슴에 총탄을 받고 쓰러져야 할 이 기막힌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보고싶다고 소원하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데 있단말인가. 과연 그는 어찌하여 생의 마지막순간에 그림을 그려보고싶다는것이며 또 어떤 그림을 그리려는것인가?

사형장에 둘러선 사람들은 너나없이 이런 생각을 하며 유격대원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미야모도 역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격대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도사렸다. 마치도 자기의 운명이 거기에 달리기라도 한듯이…

유격대원은 먼저 붓에 색감을 듬뿍 묻히더니 하얀 종이의 웃쪽에 백두산을 그렸다.

(옳지. 백두산이 그리울테지. 그곳에서 **김일성**장군과 함께 싸웠으니까. …)

미야모도는 제나름대로 유격대원의 속마음을 앞질러 짐작하였다. 유격대원은 백두산밑에다 푸른 밀림을 그렸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아래에 푸른 초원을 그리고 그 한복판에 밤색말 한필을 그렸다.

(그렇지.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저 말처럼 자유로운 몸이 되고싶겠지. …)

미야모도는 또 속짐작을 했다.

그림을 다 그린 유격대원은 붓을 내려놓고는 잠시 그림을 들여다보며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미야모도는 유격대원이 당장이라도 자기의 발목을 끌어안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할것만 같아 가슴이 뛰였다.

이제나 저제나… 미야모도는 성공의 순간을 초조히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였다.

유격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섰던 나무밑으로 걸어가서 총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미야모도는 그만 속히운게 분해 저도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사격준비!》

병사들이 일제히 총구를 추켜올렸다. 총을 겨눈 병사들의 눈앞에는 나무앞에 서있는 유격대원의 태연한 모습이 조문, 조성을 거쳐 똑똑히 바라보였다.

《쐈!》

미야모도가 이렇게 소리치려는 순간이였다.

홀연 유격대원이 눈앞에서 사라지고말았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병사들은 총구앞에서 유격대원이 사라지는바람에 눈이 둥그래졌고 미야모도는 흰 장갑을 낀 손을 내려그으려다가 그대로 굳어져버렸다.

사형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유격대원이 등지고 서있던 늙은 참나무만 멍청히 바라보며 입을 하 벌렸다.

이때였다.

《오호홍…》

어데선가 말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유격대원이 그려놓은 그림속의 밤색말이 네굽을 안고 달려가며 내는 소리였다.

그림속의 말잔등에는 유격대원이 타고있었다.

유격대원을 태운 말은 어느새 푸른 밀림속으로 사라지고말았다. 푸른 밀림 다음에는 백두산이니 밤색말은 유격대원을 태우고 백두산으로 갔을것이다. 미야모도와 병졸들이 어리둥절해있는 사이에 그림조차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꼭 귀신한테 놀리움을 받은것만 같아서 멍청해있는데 어데서 날아왔는지 종이 한장이 미야모도의 눈앞에 날아내렸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미야모도씨,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배워주신 술법을 써서 그림속의 말을 타고 백두산으로 돌아왔소. 이젠 명장밑에 약졸이 없다는 격언의 뜻을 잘 알겠지?…》

이렇게 되여 미야모도는 유격대원을 놓쳐버리고 유격대원을 세워놓고 총살하려던 그 늙은 참나무에 목이 매달리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올가미를 쓰고 나무가지에 매달리면서도 유격대원의 예언이 신통하게 맞았다고 탄복하면서 《일본은 2년내지 3년안으로 망한다.》는 그 예언도 반드시 맞아떨어지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확신은 1945년 조선의 해방과 함께 현실로 증명되였다.

사형장에서 유격대원이 그림속으로 사라지는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였다.

거기에 또 꼬리가 달리고 새끼를 쳐서 나중에는 어데서는 김장군님의 부하가 비행기그림을 그려서 진짜 비행기로 만든 다음 그것을 타고 날아갔다는 얘기도 돌았다.

아버지가 명성이 높으면 자식들까지도 유명해진다고 **김일성**장군님께서 하도 위대하시니 유격대원들도 유명해져서 전설 또한 끝없이 생겨나는것이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

4

발굴정리 지홍길
편　　집 선우연희
사　　진 로창업, 김형용 장 정 한명신
편　　성 김혜경 교 정 김영심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95(2006)년 4월 20일
발　　행 주체95(2006)년 4월 25일

ㄱ-66020 값170원